

#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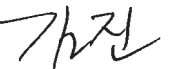
사회발전의 목표가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정책대상별로 세분화된 지표의 생산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 연구를 외부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를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건강, 관계, 학습·역량 등 8개 영역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60개의 지표를 선별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자립적인 생활 영위가 힘들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의 따스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미래의 성공만을 목표로 현재의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 보고서에서 지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어,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과제가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한 동남지방통계청 이희길 과장, 3년 동안 협동연구과제의 책임을 맡아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12월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 일러두기

이 지표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3차연도(2019~2022년)의 협동연구 과제로 진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었던 측정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등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구축,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 주요 이슈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은 만 0~17세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한다. 청소년기본법 상에서의 청소년(만 9~24세) 중 후기청소년(만 18~24세)를 제외하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은 같은 생애주기의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후기청소년은 성인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정이나 양육과 보호의 개념으로 다루기 보다는 자립이나 독립이 중요시되는 시기로 동일한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법정 연령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기 공표된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고 있어, 기존 통계자료의 연령 기준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연령기준은 만 0~17세이지만, 활용통계에 따라 연령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일부 연령만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 CONTENTS

## PART 1 개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10
2 아동·청소년 삶의 질이란?	11
3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12
4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14
5 지표 선정과정	16
6 지표체계	17
7 활용자료 및 한계	19
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발전방안	21

## PART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b>1. 사회적 배경</b>	<b>24</b>
물질적 결핍지수	33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34
상대적 빈곤율	35
거주지역 편의성	3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	38
초미세먼지 농도	39
<b>3. 건강</b>	<b>40</b>
스트레스 인지율	41
자살률	42
저체중 출생아 비율	44
비만율	45
주관적 건강 인지율	46
수면시간	47
예방접종률	48
영양결핍률	49
규칙적 운동 실천율	50
<b>4. 학습·역량</b>	<b>52</b>
학습시간	53
사교육 참여율	54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55

학교생활 만족도	56
학업중단을	57
영유아 언어발달 정도	58

## 5. 여가 활동 참여 60

평일 여가시간	61
방과 후 활동	62
여가생활 만족도	64
동아리 참여율	65
사회문제 관심 정도	66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67

## 6. 안전·위험행동 68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69
방과 후 방치 정도	70
도래폭력 피해 경험률	71
교통사고 사망률	72
강력범죄 피해율	73
흡연율	74
음주율	75
소년범죄 발생률	76
가출 경험률	77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78

## 7. 관계 80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81
가족과의 식사빈도	82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83
가족관계 만족도	84
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	85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86
친구관계 만족도	87
사회 신뢰도	88

## 8. 주관적 웰빙 90

삶의 만족도	91
긍정정서	92
부정정서	93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94

## PART 3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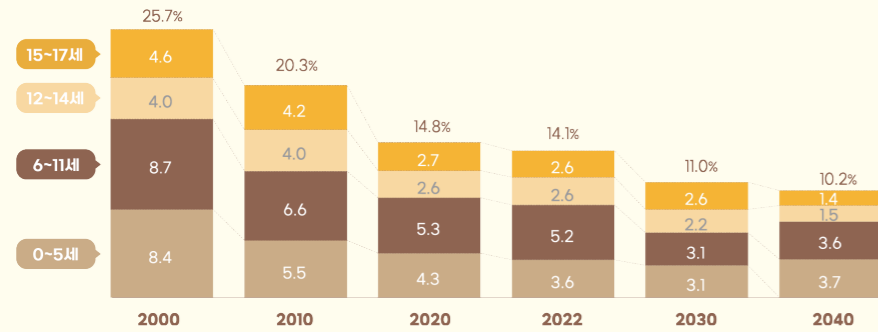
지표 정의서	9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참여연구진 및 도움주신 분들	118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요약

## 1. 사회적 배경

만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22년 725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이다. 2000년 25.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2040년에는 10.2%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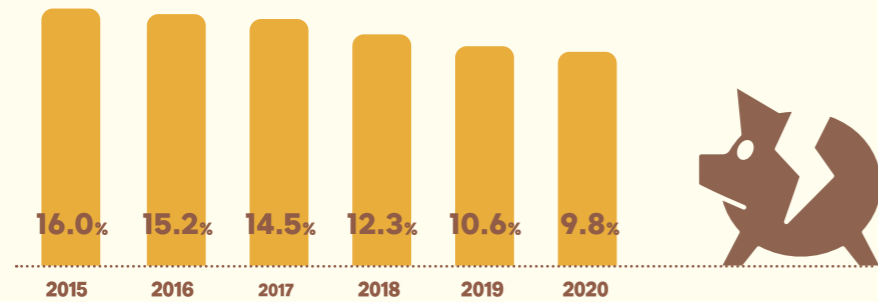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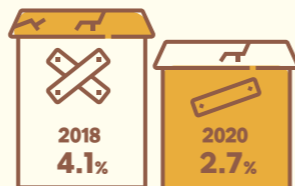
## 2.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결핍지수에서 2018년 아동·청소년의 31.5%가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9년 10.6%에서 2020년 9.8%로 감소하였다.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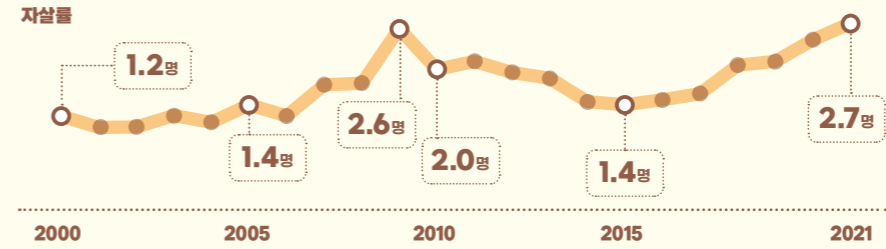


주거환경을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8년 4.1%에서 2020년 2.7%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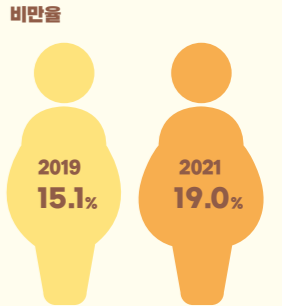


## 3. 건강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 중 자살률은 2020년 10만 명 당 2.5명에서 2021년 2.7명으로 증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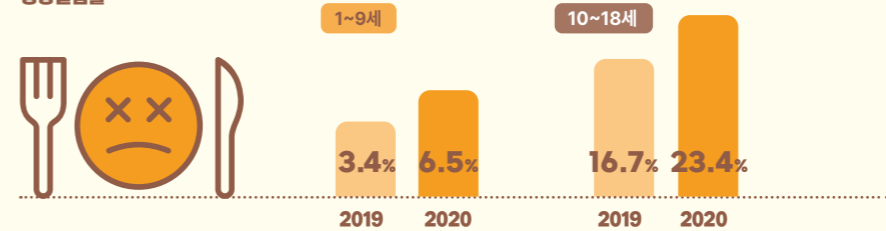


신체건강을 보면 비만율은 2019년 15.1%에서 2021년 19.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인지율 또한 2020년 69.6%에서 2021년 64.7%로 감소하였다.



영양결핍률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1~9세는 3.4%에서 6.9%로 10~18세는 16.7%에서 23.4%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코로나 19를 지나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20년 14.0%에서 2021년 14.6%로 소폭 증가하여 코로나 19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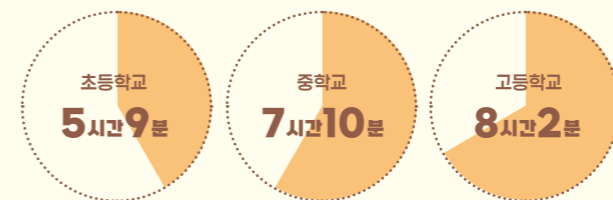
영양결핍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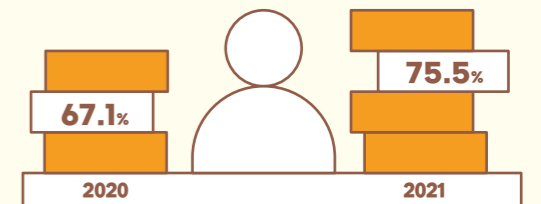
## 4. 학습·역량

아동·청소년들의 평일 학습시간은 2014년에 비해 감소하여 2019년 초등학생은 5시간 9분, 중학생은 7시간 10분, 고등학생은 8시간 2분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학생들의 75.5%는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학습시간(2019)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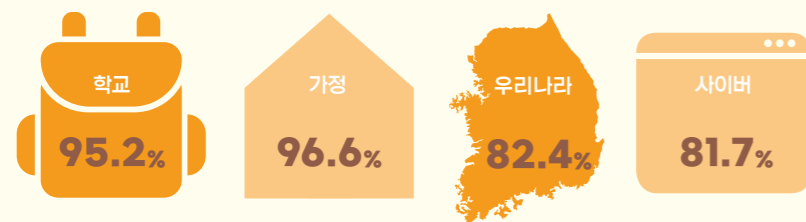
## 5. 여가·활동·참여

아동·청소년 중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인 비율은 2021년 11.4%로 2015년 전후 2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가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 43.3%에서 2021년 47.9%로 증가하였다.

방과후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학원이나 과외'가 가장 높게 나타나 2018년 47.3%로 2013년 40.6%에서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이 14.1%로 높고, '친구들과 놀기'는 5.0% 정도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은 2021년 95%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와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비율은 각각 82.4%, 81.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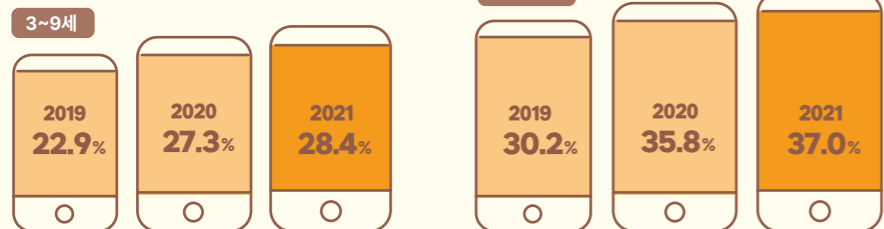


## 6. 안전·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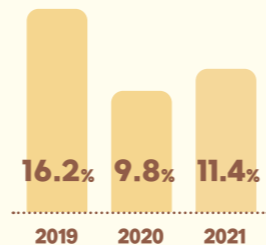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또래폭력 피해경험률은 2018년 8.5%에서 2020년 5.9%로 감소하였고, 강력범죄 피해율도 같은 기간 10만 명당 325.2명에서 280.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위험 또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9년 10만 명 당 380.3건에서 2020년 401.6건, 2021년 502.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만 3~9세는 2019년 22.9%에서 2020년 27.3%로, 만 10~19세는 같은 기간 30.2%에서 35.8%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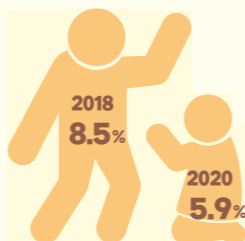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 평일 여가시간(1시간 미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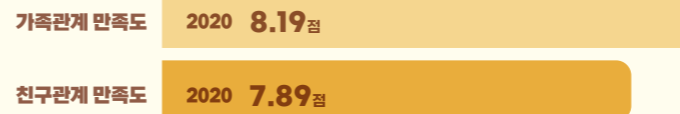
###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



## 7. 관계

아동·청소년이 일주일에 4회 이상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2017년 63.0%에서 2020년 69.4%로 증가하였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0년 평균 8.19점으로 나타났다.

3~8세 아동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친구들과 노는 비율은 2018년 83.7%이며, 9~18세 아동·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평균 7.89점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친구관계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약간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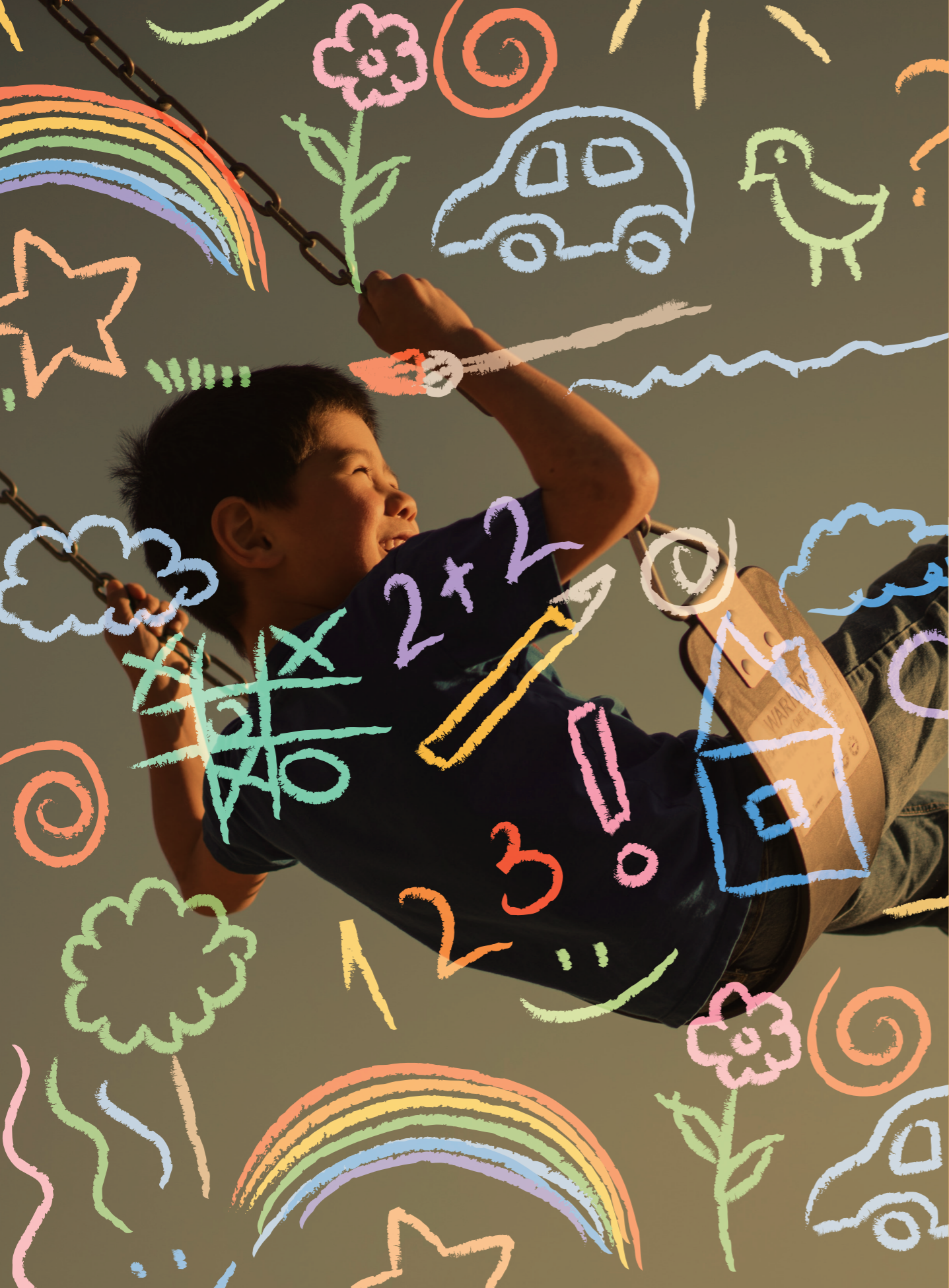
### 가족과 주 4회 이상 저녁식사



## 8. 주관적 웰빙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20년 6.80점으로 201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긍정정서 또한 2020년에 소폭 감소하였고, 부정정서는 2017년 2.67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PART

# 1

개요

# 01

## 작성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 개선은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구집단별로 세분화된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sup>1</sup>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UNCRC의 등장 이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UNICEF, OECD, EU 등의 국제기구와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또는 웰빙 수준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유민상 외, 2019).<sup>1</sup>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은 그 자체로써도 중요할 뿐 아니라 부모의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생 초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삶의 질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적 노력을 통한 개선의 여지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보다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sup>2</sup>
- 우리 사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옹호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사회정책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질 현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지표보고서가 작성되어, 아동·청소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시계열 및 하위집단별 분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들은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sup>1</sup> 국제기구 및 각 나라별 측정사례는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유민상 외, 2019) 1차년도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음.

<sup>2</sup> 이희길 외, 2019,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02

## 아동·청소년 삶의 질이란?

-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와 관계되어 있고, 상태와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다차원적인 특성과 규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매우 포괄적이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삶의 질<sup>quality of life</sup>과 웰빙<sup>well-being</sup>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청소년 삶의 질 개념은 연구자의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배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다차원적인 접근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아동·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아동의 권리, 주관적인 인식을 모두 포괄한다.
-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원과 영역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삶은 성인의 삶과 차이가 있어 생활환경이 주로 가족-학교-지역사회이며, 주요한 관계도 부모, 교사, 친구 등으로 성인보다 범위가 좁다. 아동·청소년기는 자립보다는 양육 및 보호가 더 중요시 되고, 성장과 발달적인 측면은 성인기와 구분되는 핵심적인 차이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차원과 영역 또한 성인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이란 현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질은 객관적인 환경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과 감정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만 0~17세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만 0~17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만 9~24세)을 고려한다면 “아동 삶의 질 지표”가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지칭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보다는 중·고등학생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에서의 연령 규정은 다양하고 각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어 서로 상이한 법적 아동·청소년 연령 규정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령	주요 내용
아동돌봄지원법	제2조(정의)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UN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작성목적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른 인구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 인구 집단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다.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생물학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건과 사회적인 역할이 변화하는 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영유아(영아-유아)-아동-청소년-성인(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 아동·청소년기의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진학과 사춘기 시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진학과 사춘기 시작 등의 큰 변화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는 않더라도 양육과 보호보다는 자립과 개인의 책임이 중요시되는 시기이며, 대학진학 또는 사회생활 등 다양한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후기 청소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만 18~24세 연령집단과 만 18세 미만을 같은 프레임워크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보고자 하는 대상은 생애주기상에서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으며, 성인이 아닌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아동·청소년’은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만 0~17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만 18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위연령별 비교에 있어서는 미취학 아동 또는 영유아(만5세 이하), 초등학생 또는 아동(만 6~11세), 중·고등학생 또는 청소년(만 12~17세)을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령 구분은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연령이 아닌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통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구축과정에서는 이론 중심의 접근, 데이터 중심의 접근, 아동·청소년 목소리 중심의 접근 등 종합적인 방법이 고려되었다.

### 이론 중심 접근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표체계와 세부 지표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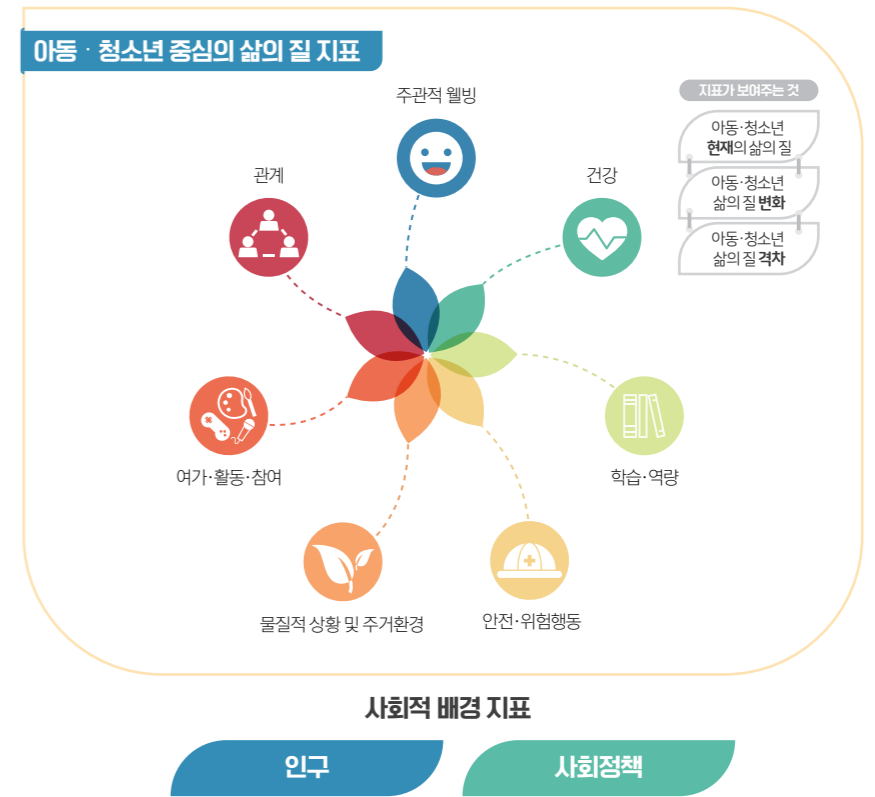
### 데이터 중심 접근

이론 중심으로 구축된 지표체계를 현재 작성중인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작성가능한 지표를 구축하고 신규개발이 필요한 지표 도출

### 아동·청소년 목소리 중심 접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표체계에 반영

-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거시적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사회적 배경 지표, 미시적 환경과 삶의 질 영역을 반영하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연령별 특징과 종단적 변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각 영역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건강** 아동·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안전하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학습·역량**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여가·활동·참여**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고,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안전·위험행동**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관계** 아동·청소년이 가정, 학교,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주관적 웰빙**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의미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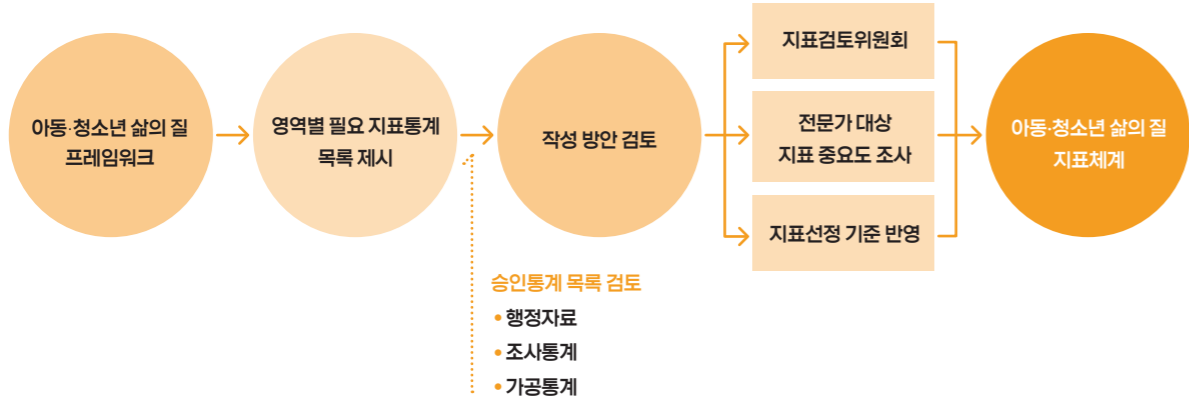
# 05

## 지표 선정과정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각 영역별 지표목록은 기존의 작성중인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각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표를 구성하였다. 필요한 지표 목록을 정하고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기존의 승인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3차 연구로 추진된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지표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 지표검토를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지표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 배경을 포함한 8개 영역의 120여개 지표가 선정되었고, 지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60개 지표로 요약하였다.

<b>타당성</b>	전문가 대상 지표중요도 선정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당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
<b>대표성(신뢰성)</b>	아동·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통계자료 선정
<b>포괄성</b>	만 0~17세를 가능하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범위가 높은 지표를 선정
<b>시의성과 작성주기</b>	가능하면 작성주기가 짧고, 공표시기가 빠른 통계를 중심으로 선정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선정 과정



# 06

## 지표체계

- 이 보고서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표체계는 8개 영역의 60개 지표이며, 영역별 지표와 출처, 작성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다.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출처	대상연령	
사회적 배경 (11개)	인구	아동청소년 추계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7세	
		10만명당 사망자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17세	
		맞벌이 가구 아동 비율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0~17세	
		한부모 가구 아동 비율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0~17세	
	사회정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0~5세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0~5세	
		학급당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유·초·중·고	
		장애아동 통합교육 비율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유·초·중·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0~17세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0~17세	
		시설가정위탁보호아동 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0~19세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6개)	빈곤 및 생활수준	물질적 결핍지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9~17세	
		상대적 빈곤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0~17세	
주거환경		거주지역 편의성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0~17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0~17세	
		초미세먼지농도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	
		건강 (9개)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살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0~17세			
신체건강		저체중 출생아 비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세	
		비만율	교육부, 학생건강검사표본통계	초·중·고	
		주관적 건강 인지율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수면시간		수면시간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건강행동	예방접종률	질병관리청,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1~6세
			영양결핍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18세
		규칙적 운동 실천율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출처	대상연령
학습·역량 (6개)	학습	학습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0세~고3
		사교육 참여율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초·중·고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학교생활 만족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학업중단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초·중·고
	역량	영유아 언어발달 정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0~5세
여가 활동 참여 (6개)	여가 및 활동	평일 여가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고3
		방과 후 활동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9~17세
		여가생활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13~19세
	사회경제 정치 참여	동아리 참여율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사회문제 관심정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18세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고3
안전·위험행동 (10개)	안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0~17세
		방과 후 방치 정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0~12세
		도래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초4~고3
		교통사고 사망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0~20세
		강력범죄 피해율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0~20세
	위험행동	흡연율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음주율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소년범죄 발생률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14~18세
		가출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고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3~19세
관계 (8개)	가족관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0~5세
		가족과의 식사 빈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고3
		가족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3~8세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13~18세
		친구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사회신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3~18세	
주관적 웰빙 (4개)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긍정·부정감정	긍정정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부정정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삶의 가치·의미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18세

# 07

## 활용자료 및 한계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기존에 작성되고 있는 승인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조사별로 작성주기, 조사대상과 연령이 상이하고 공표범위와 시기도 달라 모든 지표의 통계자료 시점과 연령기준을 통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대부분의 활용 통계가 1년 주기이나 2~5년 주기인 경우도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지표의 연도를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1년 주기인 경우에도 공표시점에서 차이가 있어 지표별 작성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며, 각 지표별로 시계열도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자료가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자살률, 학업중단율 등),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최근 3년주기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5년주기 조사로 현재 가용한 자료는 2018년이 가장 최근이며, 일부 지표는 단일 연도만 활용가능하다.
-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작성연령 기준은 만 0~17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표체계에 포함된 모든 지표가 동일한 연령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표에 따라 특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예, 미취학아동 대상, 초중고 학생 대상)가 있으며, 조사대상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을 만 연령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같은 학년이라도 조사기준 시점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사통계의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의 대리응답이고, 이 또한 항목이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표별로 대상이 되는 연령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지표의 경우 만 17세 이상인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다.
- 이러한 것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한계로 별도의 단일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모든 지표를 행정자료가 아닌 조사통계로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행정자료나 조사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연령 기준의 통일이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생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보완될 필요는 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지표작성에서 활용한 전체 통계목록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통계에서의 작성대상과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연령범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구분	작성대상	지표 작성 연령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년	가공통계	전연령	0~17세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1년	가공통계	전국	-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조사통계	전연령	0~17세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통계청	1년	가공통계	0~17세	0~17세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건복지부	1년	보고통계	어린이집	0~5세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1년	보고통계	유·초·중·고	유·초·중·고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1년	보고통계	유·초·중·고	유·초·중·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1년	보고통계	전연령	0~17세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보건복지부	1년	보고통계	0~17세	0~17세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년	보고통계	-	0~19세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년	조사통계	0~17세	0~17세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1년	조사통계	전체가구	0~17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1년	조사통계	전체가구	0~17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1년	조사통계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가공통계	전연령	0~17세
학생건강검사표본통계	교육부	1년	보고통계	초·중·고	초·중·고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질병관리청	1년	보고통계	1~6세	1~6세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1년	조사통계	1세 이상	1~18세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조사통계	10세 이상	초·중·고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통계청	1년	조사통계	초·중·고	초·중·고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년	조사통계	9~24세	9~18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년	조사통계	초4~고3	초4~고3
사회조사	통계청	2년	조사통계	13세 이상	13~19세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년	조사통계	초4~고3	초4~고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	1년	보고통계	0~17세	0~17세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1년	보고통계	전연령	0~20세
범죄분석통계	검찰청	1년	보고통계	전연령	0~20세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년	조사통계	3~69세	3~19세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년	조사통계	미취학아동	0~5세

# 08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발전방안



## 영유아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데이터 생산

이 지표체계는 지표를 통해 0세부터 17세까지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사통계는 자기 응답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연령에 한정되어 있어 영유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매우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동 삶의 질 지표의 한계이다. 영유아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및 지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별 아동 삶의 질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통계자료들은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광역 지자체별 비교가 어려운 표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아동 삶의 질을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부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삶의 질 격차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 아동 삶의 질 측정의 주기 단축 및 통합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기존 5년 주기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변화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의 삶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실태조사는 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필요 시 통합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표가 생산되어야 한다.

## 아동 삶의 질 모니터링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이 지표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지표체계는 대중들에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대중들이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 및 이용자 친화적 인터넷 포털 등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아동 삶의 질 증진 정책의 생산 및 보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비교 가능한 아동 삶의 질 지표 생산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을 횡단적으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비교 가능한 아동 삶의 질 지표를 생산하고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PART

#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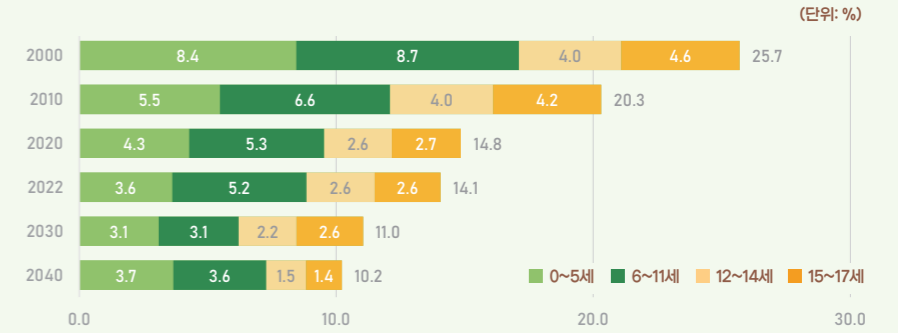


##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 지표는 아동의 삶의 질 측정결과라기 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지만, 아동인구의 현황과 추세, 아동 관련 사회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의 인구와 가구, 사회정책 관련하여 주요 현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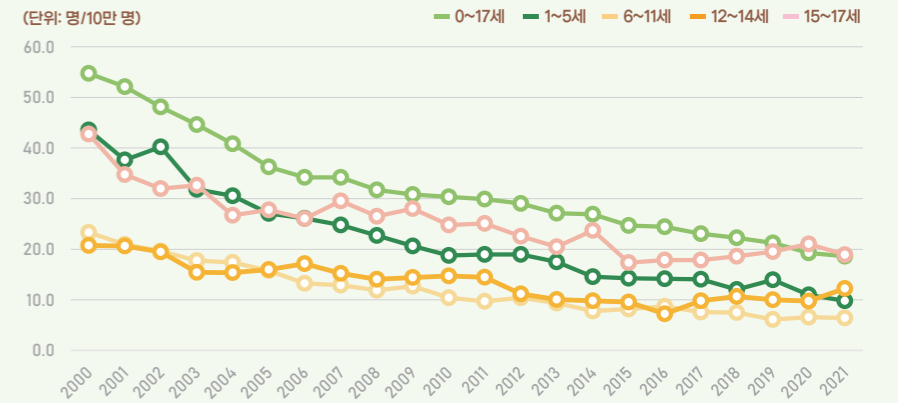
- 0~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2022년 7,256천 명으로 2000년 12,077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아동·청소년 인구의 비율은 2022년 전체 인구의 14.1%로, 2000년 25.7%에서 2010년 20.3%, 2020년 14.8%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2040년에는 10.2%로 예상된다(그림 1).
-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2000년 54.8명에서 2021년 18.6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12~17세의 경우 2013년 이후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반면,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특히 0세 사망자수는 2000년 10만 명당 484.1명에서 2021년 241.2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사망원인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이 사망원인 1순위였으나, 2021년에는 1~9세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10~17세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사망원인 1순위이며, 다른 사망원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 아동·청소년의 가구구성과 관련해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부모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 0~17세 아동·청소년 중 한부모와 사는 아동은 2020년 8.1%이며(표 1,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높아져 0~2세 영아의 경우 2.6%인 반면, 15~17세는 12.7%로 높다. 한부모 가구 중 66% 정도는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는 2020년 67%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표 2. 한부모 가구와 맞벌이 가구 아동의 경우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연령이 어릴수록 공적인 영역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아동인구 비율 (2000~204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고, 2022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 연령대별 사망률 (2000~20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해당연령 주민등록연앙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임

표 1. 한부모 및 맞벌이 가구 아동의 비율 (2015~2020)

연도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2015	8.1	60.3
2016	7.8	61.6
2017	7.8	63.3
2018	7.9	64.8
2019	7.8	66.6
2020	8.1	67.0

출처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주 맞벌이가구 비율은 0~17세 아동 중 한부모 및 부모 미양육인 아동은 제외하고 산출됨.

표 2. 연령대별 한부모 및 맞벌이 가구 아동의 비율(2020)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한부모 가구	2.6	4.4	7.8	11.0	12.7
맞벌이 가구	60.9	65.0	67.1	70.1	70.8

출처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 돌봄이 필요한 아동(영유아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다<sup>표 3.1</sup>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 대상이 되는 초등돌봄교실(교육부)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방과후에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의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12세의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장애 및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교육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취학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3~5세의 경우 2021년 94.0%이며,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2021년 76.2%이다<sup>그림 3</sup>. 만 2세이후 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취학전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해보면 미취학아동의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0~2세 아동의 무상보육과 3~5세 아동의 누리과정 지원 등 보편적인 정책 이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2021년 16.4%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2017년 7.8%, 2018년 9.2%, 2019년 11.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up>그림 4</sup>.

● 학급당 학생수와 교과교사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교원수의 증가와 함께 학생수의 감소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급 측면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과정에서의 질을 객관적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2000년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26.3명, 초등학교 35.8명, 중학교 38.0명, 고등학교 42.7명에서 2022년에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감소하였다<sup>그림 5</sup>. 특히 고등학교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커서 초등교육에서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OECD 평균은 2010년 20.9명에서 2020년 20.3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27.5명에서 22.7명으로 감소하였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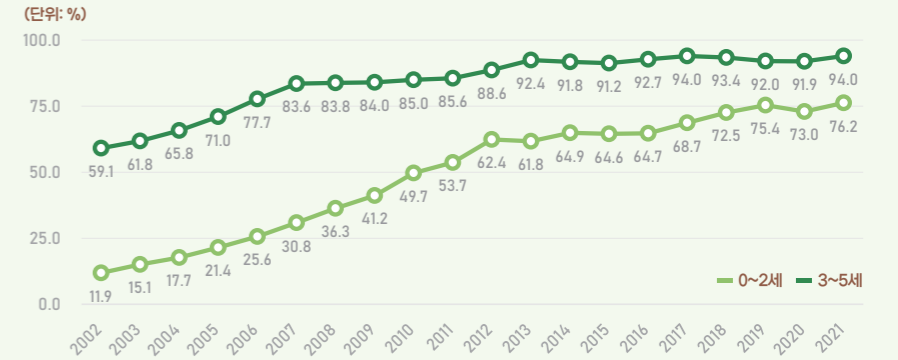
1 참고\_이희현 외, 202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 OECD. stat

표 3.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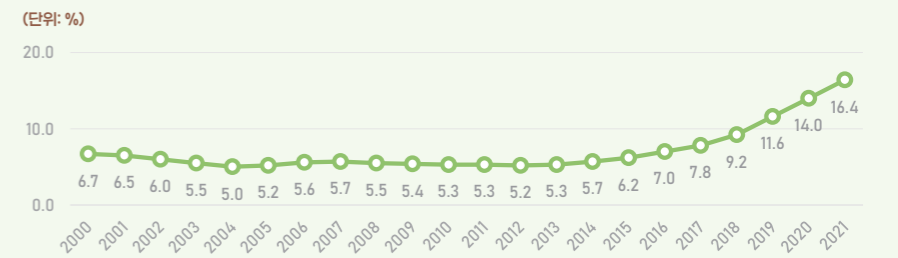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연령	초등학생	만 18세 미만, 만 6~12세	초등4~중3

그림 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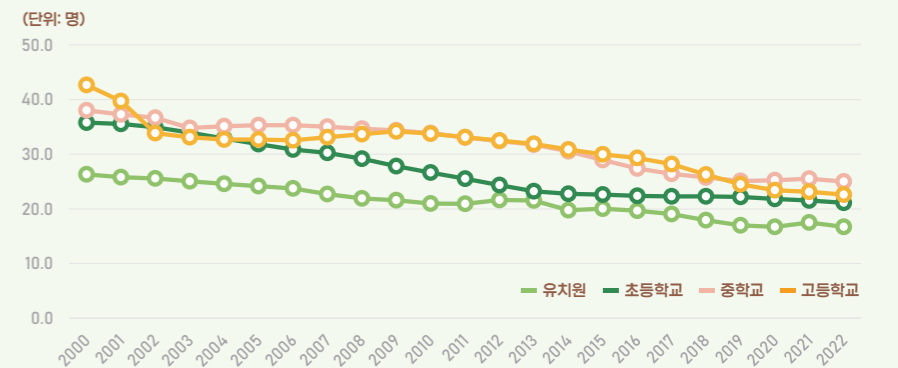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0~2세는 어린이집 이용률, 3~5세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임.

그림 4.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2000~2021)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주 보육시설 전체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함

그림 5. 학급당 학생수(2000~202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주① 학급당 학생수 = 학생수 ÷ 학급수  
 ② 학급수 기준이 인가기준(2020년까지)에서 편성기준(2021년부터)으로 변경됨

● 보편적인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sup>3)</sup>”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아동의 교육은 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면서 특수학급 증설, 통합유치원 설립 등 통합교육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아동 통합교육 비율은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의 초·중·고 통합교육 비율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초·중·고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유치원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그림 6).

●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비율은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아동에 대한 정책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비율은 2021년 전체 아동인구 대비 4.5% 정도이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함께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되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14년 1.4%에서 2015년 4.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5~17세 아동의 수급자 비율이 6.9%로 가장 높고, 0~5세는 2.0% 정도로 낮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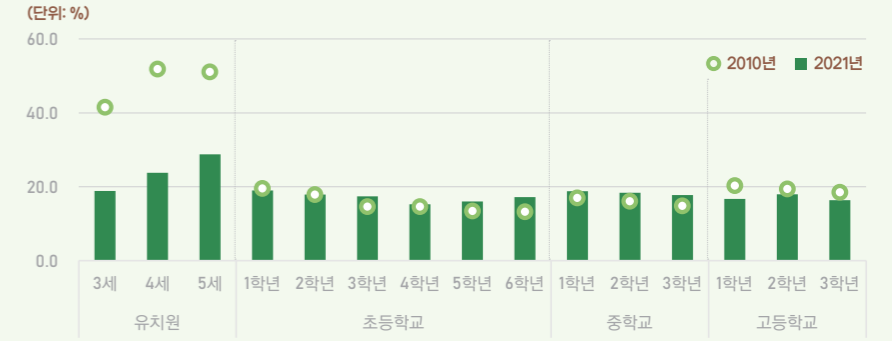
●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며 공적인 영역에서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 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2000년 9,085명에서 2003년 10,222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8년 3,918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3,437명으로 감소하였다.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00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75.2명에서 2018년 48.0명까지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45.9명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은 2021년 학대가 48.3%로 가장 많고, 미혼부모/혼외자(10.6%), 부모이혼 등(10.4%), 비행/가출/부랑(8.5%)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특히 학대의 경우 2008년 9.6%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0년 42.9%(전년대비 6.2%p 증가), 2021년 48.3%(전년대비 5.4%p 증가)로 최근 증가폭이 더 커졌다(그림 8).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정책으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가는 국내외 입양과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아동입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2000년 4,046명 → 2021년 415명), 국내외 입양비율을 보면 국내입양이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 41.7%에서 2021년 54.5%로 증가하였다.<sup>4)</sup> 입양이 아

3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

4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그림 6. 장애아동 통합교육 비율 (201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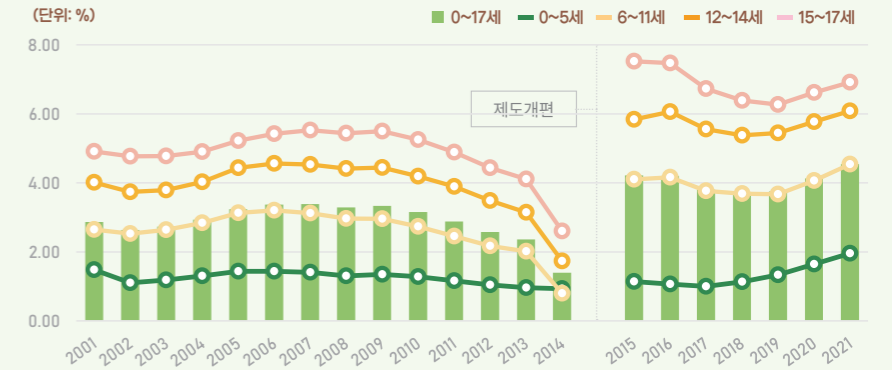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주①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 X 100

②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를 합한 것임

그림 7.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비율 (200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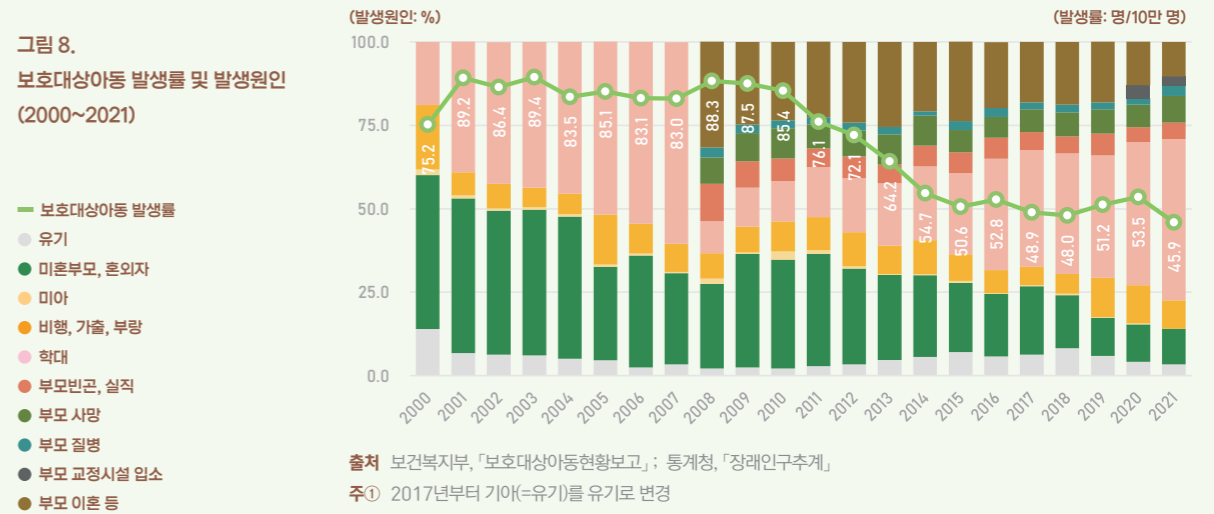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① (기초생활보장수급아동수 ÷ 0~17세 추계인구) X 100

② 2015년 제도 개편으로 기준 완화

그림 8.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및 발생원인 (2000~2021)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① 2017년부터 기아(=유괴)를 유괴로 변경

② 2008년 이후부터 발생요인 통계항목 변경(부모빈곤, 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추가, 2020년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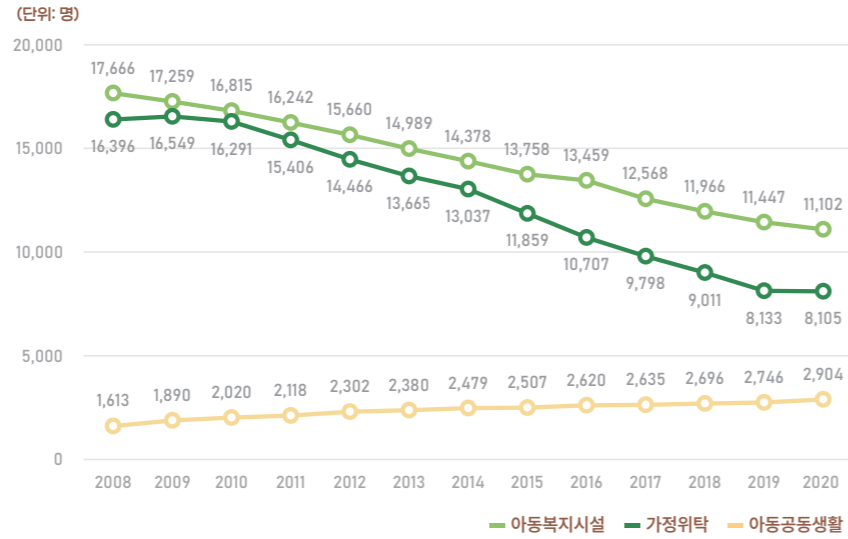
③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 0~17세 추계인구) X 100,000

④ 장래인구추계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이며, 중위추계를 사용함. 2001~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 수치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 될 수 있음.



닌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의 수를 보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아동공동생활 보호아동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9).

**그림 9.**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2008~202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주①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만 포함하였음.  
 ② 가정위탁보호아동과 아동공동생활보호아동의 경우 고등학생까지만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연령별 자료가 없어 시설의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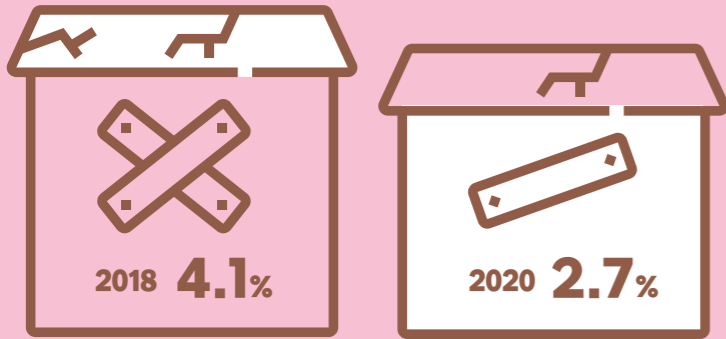
# 02

##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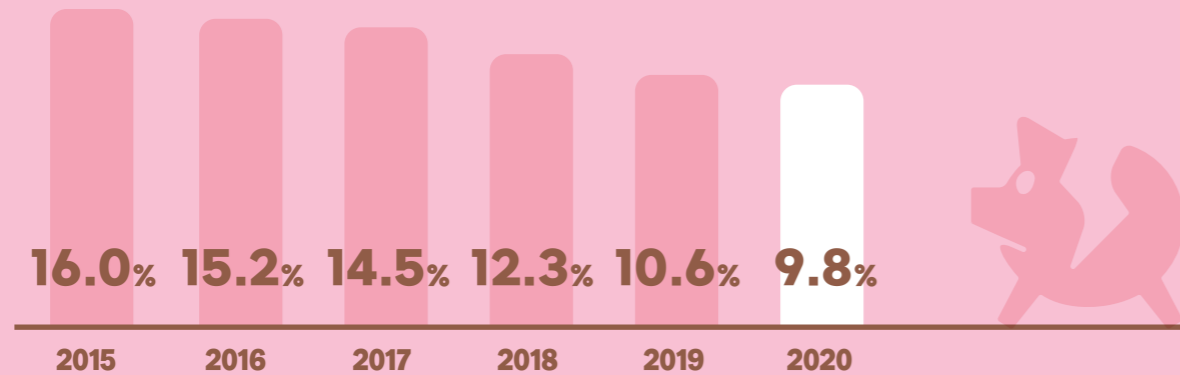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 안전한 지역사회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 Key Indicators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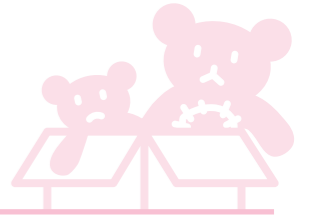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 Indicators

세부영역	지표명	출처	주기	이전년도	최근년도	해당연령
빈곤 및 생활 수준	물질적 결핍지수	아동종합실태조사	5년	-	31.5%(2018)	0~17세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아동종합실태조사	5년	-	1.84점/4점(2018)	9~17세
	상대적 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1년	10.6%(2019)	9.8%(2020)	0~17세
주거환경	거주지역 편의성(대중교통)	아동종합실태조사	5년	94.1%(2013)	86.7%(2018)	0~17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	주거실태조사	1년	4.1%(2018)	2.7%(2020)	0~17세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부	1년	19.4 $\mu\text{g}/\text{m}^3$ (2020)	18.7 $\mu\text{g}/\text{m}^3$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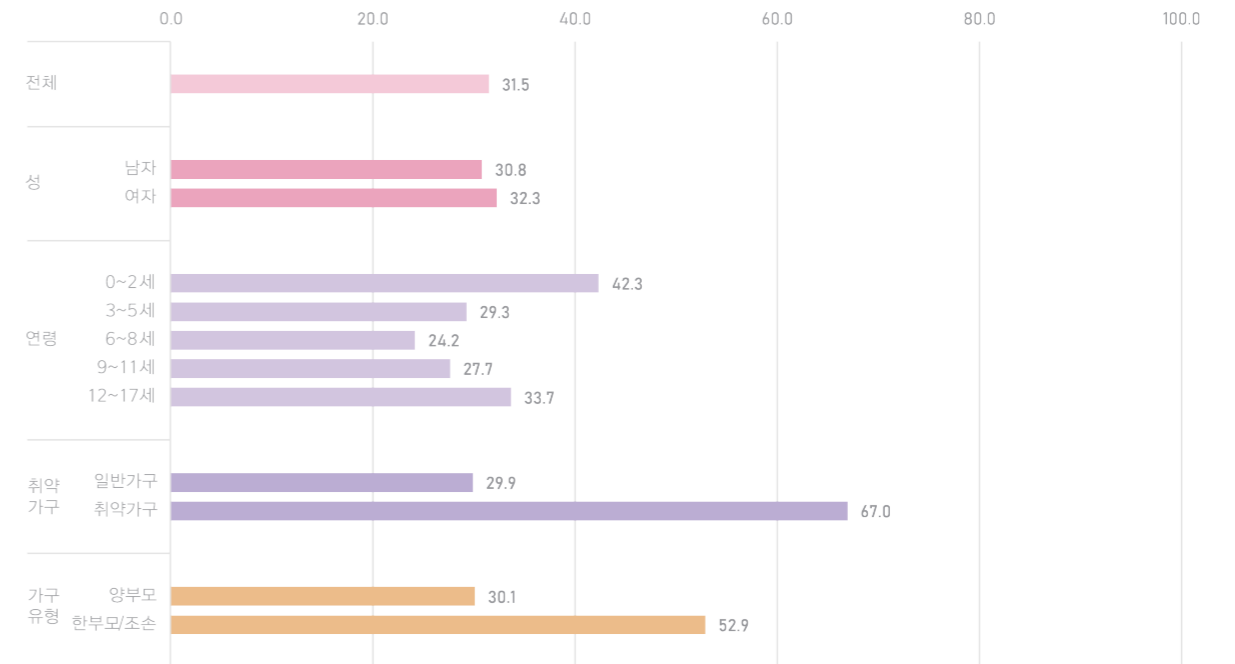
## 물질적 결핍지수



**지표정의**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적인 물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0~17세  
**측정방법** 물질적 결핍지수를 측정하는 1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결핍으로 응답한 비율

-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수준에서 결핍된 아동은 2018년 기준 31.5%이다. 초등학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6~8세는 24.2%, 9~11세는 27.7%, 12~17세는 33.7%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결핍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0~2세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조사항목이 미취학아동보다는 취학아동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취약가구** 특히 취약가구 아동·청소년의 결핍지수는 67.0%로 일반가구 아동·청소년의 결핍지수 29.9%보다 2배 이상 높다.
- **가구유형** 한부모나 조손가구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결핍지수는 52.9%로 양부모가구(30.1%)보다 더 높다.

가구특성별 물질적 결핍지수(2018)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주** ① 0~8세는 보호자가 응답한 내용임.

②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금 수급자 중 만 0~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임.

#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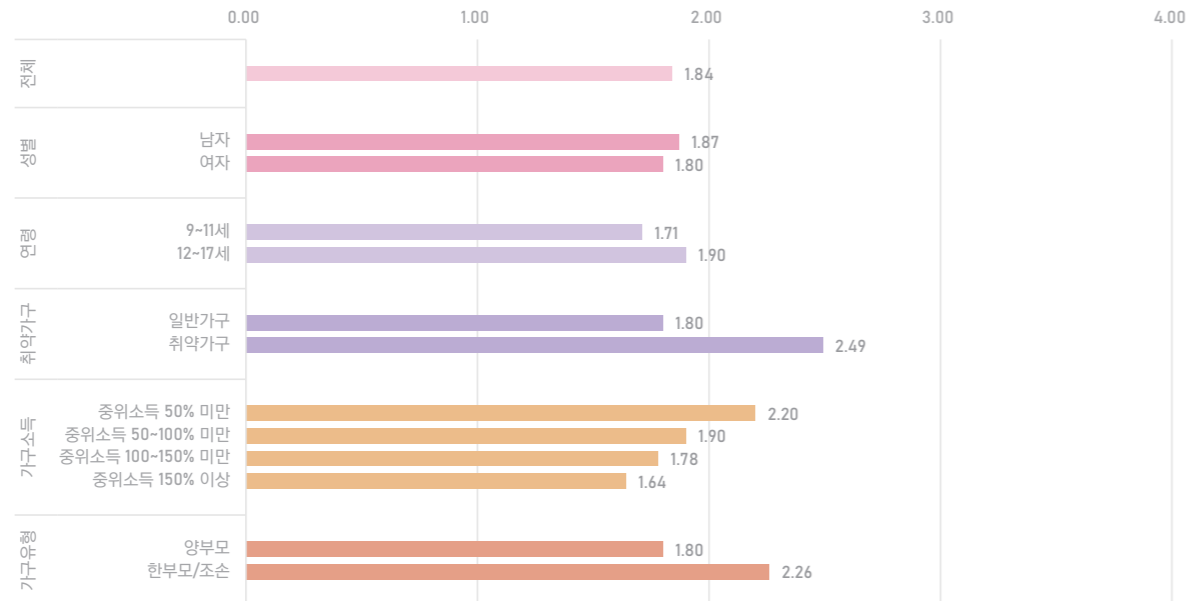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정도

해당연령 만 9~17세

측정방법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한 4점 척도('전혀 걱정하지 않는다'~'항상 걱정한다') 응답의 평균점수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아동들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만 9~17세 응답자의 4점 척도 평균 값은 2018년 1.84점이었다. 이 중 항상 또는 자주 걱정한다는 비율은 12.1%이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0.4%에 그쳤다.
- 연령 9~11세 아동(1.71점)보다 12~17세 아동이 1.9점으로 더 높아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계층은 평균 2.2점으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가 높으며, 취약가구의 경우 2.49점으로 일반가구(1.8점)보다 2배 가까이 높다.
- 가구유형 한부모나 조손가구 아동·청소년이 2.26점으로 양부모가구 아동·청소년(1.8점)보다 가정경제 어려움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2018)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 주①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금 수급자 중 만 0~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임
- ② 소득계층은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이며,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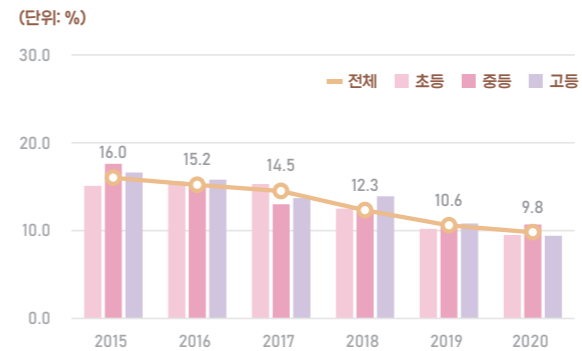
지표정의 상대적인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0~17세

측정방법 가구소득이 상대적 빈곤선(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층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0~17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9.8%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6.0%에서 2019년 10.6%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 학교급 초등학생 9.5%, 중학생 10.7%, 고등학생 9.4%로 나타났으며, 시계열로 보면 학교급별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 국제비교 한국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중상위권이다. 핀란드, 덴마크의 아동·청소년 상대적 빈곤율은 5% 미만으로 상위권이며, 프랑스(11.7%), 호주(13.3%), 일본(14.0%), 영국(14.1%) 등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고, 미국은 21.0%로 매우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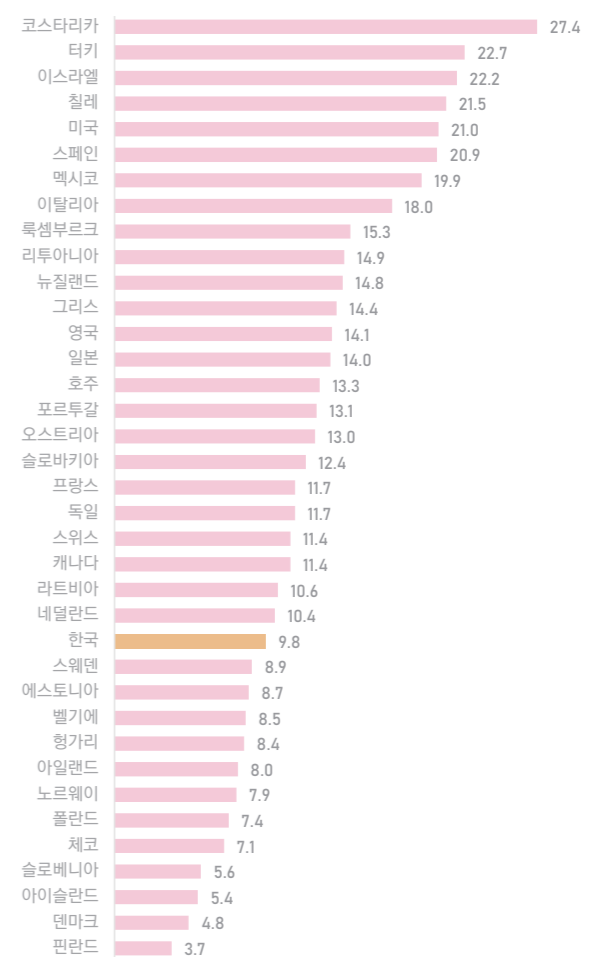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2015~2020)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RAS 분석

- 주① 학교급별 상대적 빈곤율은 휴학생을 포함하여 분석함
- ② 상대적빈곤선은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 임
- ③ 소득 기준연도 임(즉, 2020년 결과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료임)

OECD 회원국의 아동 상대적 빈곤율(2019)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2022. 10)

- 주① 분석대상은 0~17세임
- ② OECD 각국 수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2017년(아이슬란드, 칠레), 2018년(폴란드, 아일랜드,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2020년(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라트비아, 한국, 스웨덴), 2021년(코스타리카) 수치도 포함됨
- ③ 네덜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잠정치임

# 거주지역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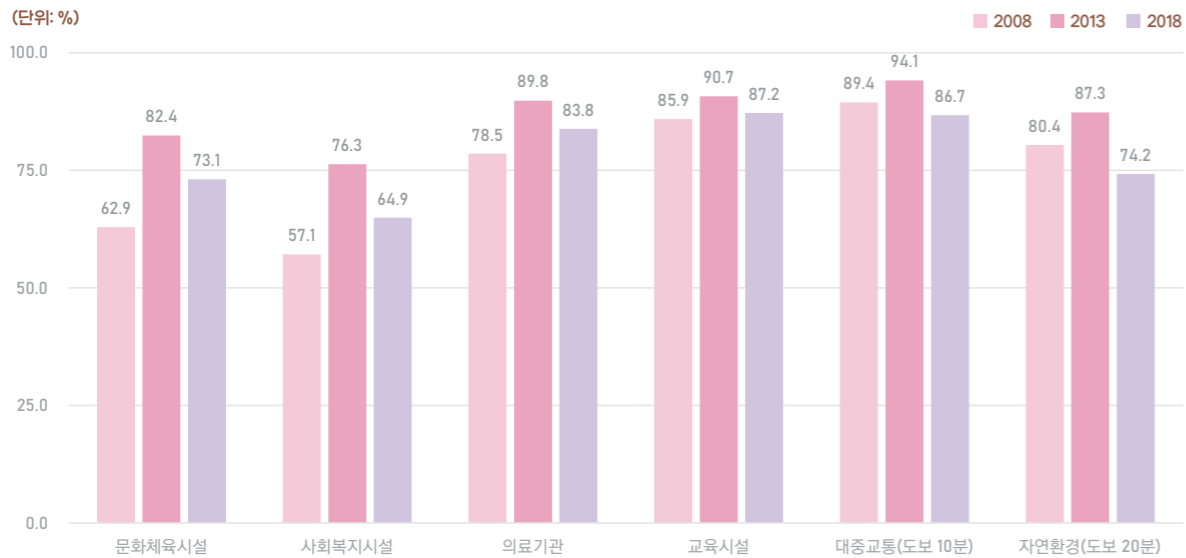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 내에 이용가능한 유형별 편의시설의 유무

**해당연령** 만 0~17세

**측정방법** 지역사회에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도보 10분 이내), 자연환경(도보 20분 이내)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거주지역 편의성은 거주지역 내에서 편의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정도를 제시하는 지표이다. 2018년 의료기관과 교육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체육시설과 자연환경 접근성은 73~74%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은 64.9%만 있다고 응답하였다.
- 거주지역의 편의성은 모든 항목에서 2008년과 비교해 2013년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2018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저소득층이거나 가구소득이 낮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계층들이 의료 이용이 필요할 때 다른 가구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교육시설** 소득계층이나 수급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편차도 적은 편이다.
- 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은 농어촌 지역에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거주지역 편의성(2008,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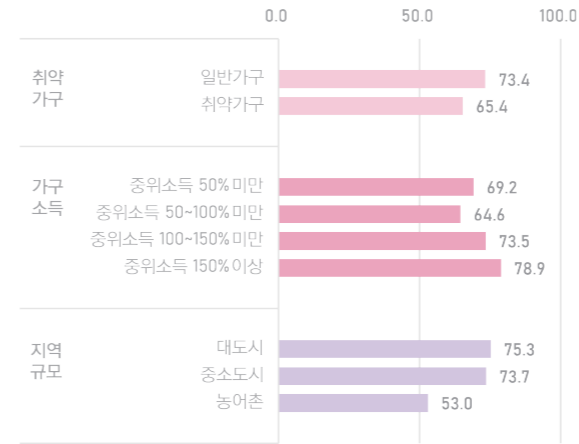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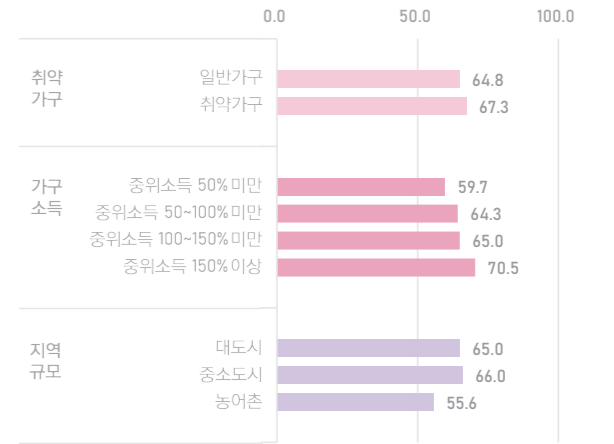
시설유형별 거주지역 편의성(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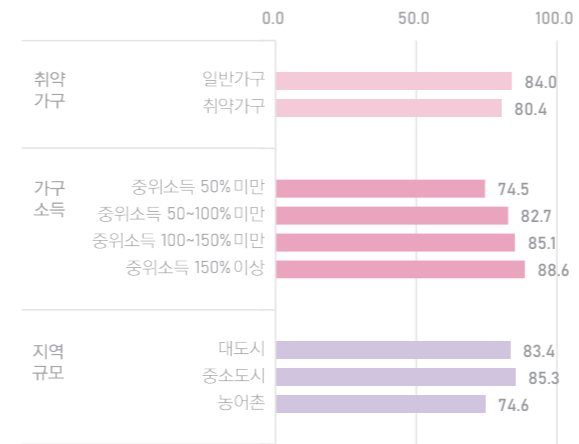
## 1. 문화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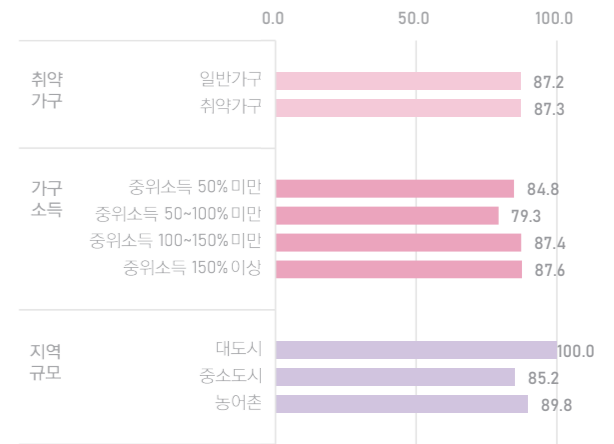
## 2. 사회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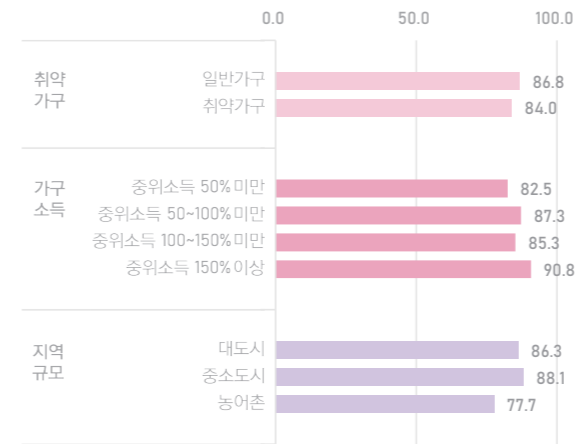
## 3.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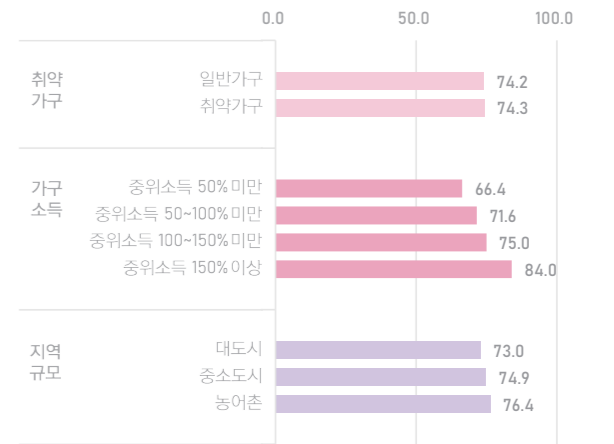
## 4. 교육시설



## 5. 대중교통(도보 10분)



## 6. 자연환경(도보 20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주①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금 수급자 중 만 0~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임.

② 소득계층은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이며,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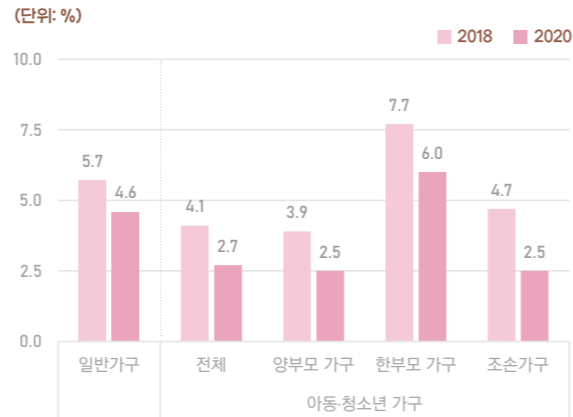
지표정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0~17세

측정방법 (0~17세 아동이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0~17세가 있는 가구) × 100

-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소한의 주거기준이 보장되는 것이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4.1%에서 2020년 2.7%로 감소하였다.
-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낮은 편이다. 다만, 한부모가구는 각각 7.7%, 6.0%로 일반가구보다 높아 다른 계층에 비해 주거의 질이나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일반가구에 비해 침실기준 미달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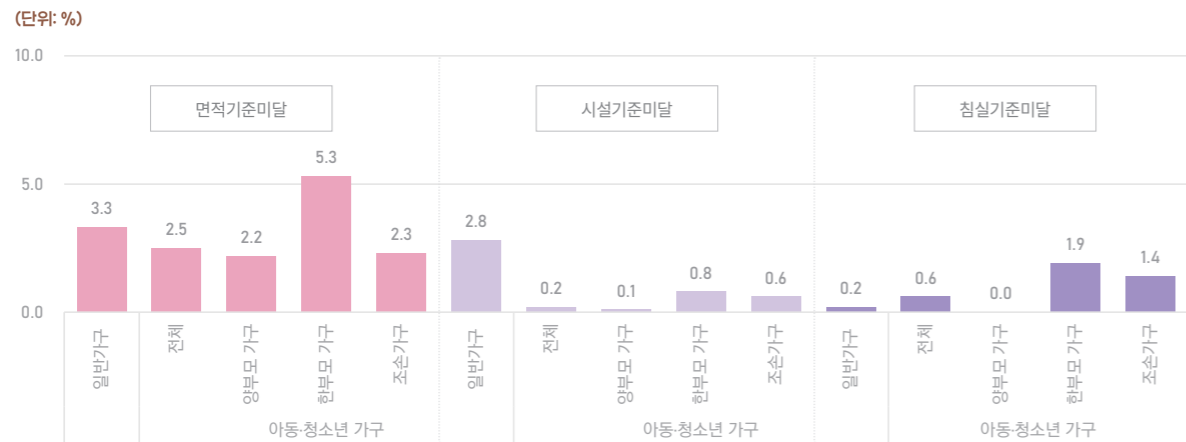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2018, 2020)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주① 아동·청소년 가구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임  
② 기타가구 제외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2020)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주① 아동·청소년 가구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임  
② 기타가구 제외

# 초미세먼지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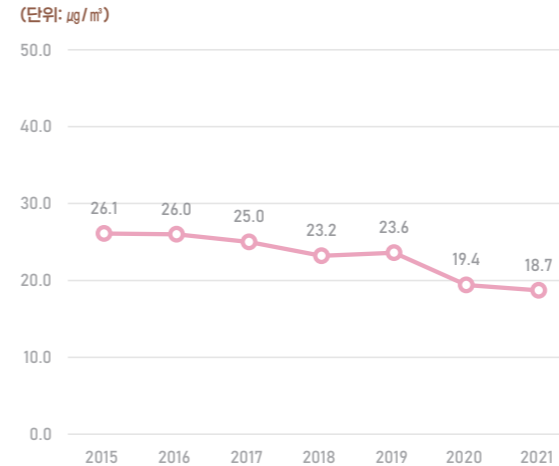
지표정의 대기 중 미세먼지(PM<sub>2.5</sub>)의 농도

해당연령 전국 기준

측정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당 시도 추계인구로 가중한 평균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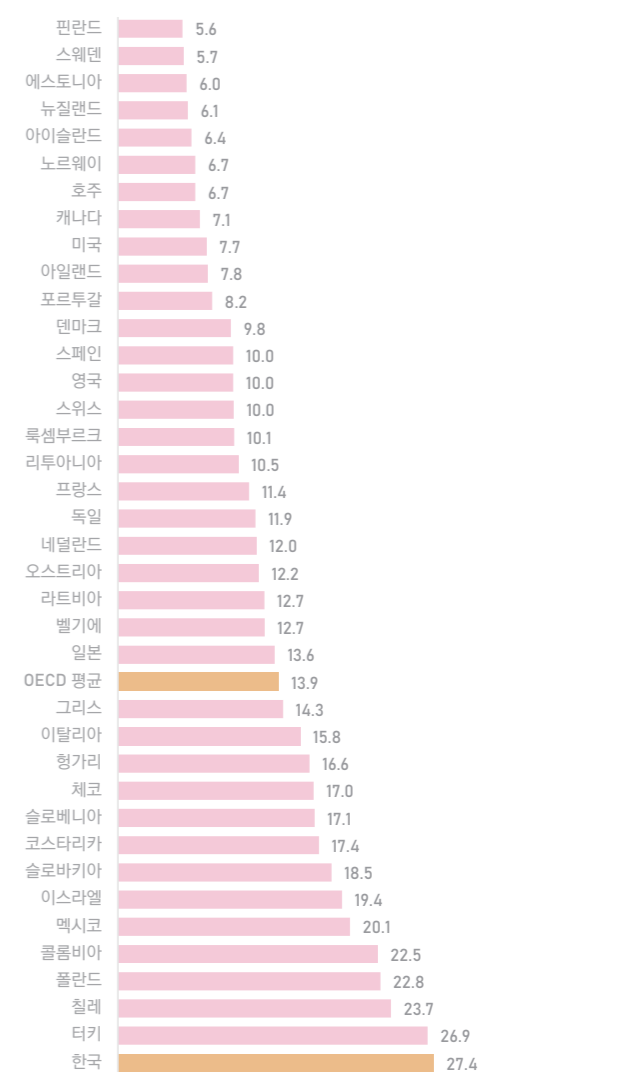
- 초미세먼지 농도는 호흡기의 발달이 진행 중이고 외부활동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유치원, 학교에서의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까지 감소추세였다가 정체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이용과 공장가동률 감소 등으로 2020년 19.4 $\mu\text{g}/\text{m}^3$ , 2021년 18.7 $\mu\text{g}/\text{m}^3$ 로 감소하였다.
- 국제비교 2019년 OECD 측정 기준으로 27.4 $\mu\text{g}/\text{m}^3$ 로, OECD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인 13.9 $\mu\text{g}/\text{m}^3$ 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초미세먼지 농도(2015~2021)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보도자료(22.1.6.) 참고  
주 17개 시도 연평균 미세먼지(PM<sub>2.5</sub>)농도의 인구가중 평균값임

OECD 회원국의 초미세먼지 농도(2019)



출처 OECD, Air quality and health

주 국가별 미세먼지(PM<sub>2.5</sub>) 농도는 위성관측 자료와 화학수송모형(chemical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추정치임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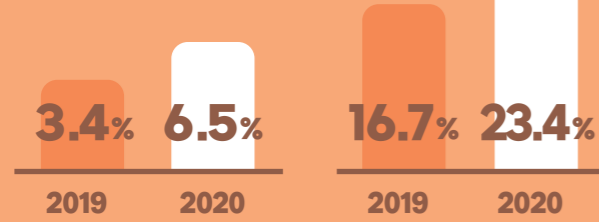
## 건강

아동·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안전하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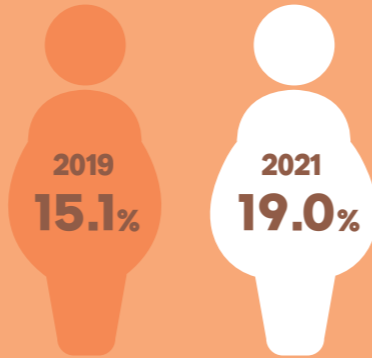
### Key Indicators

#### 영양결핍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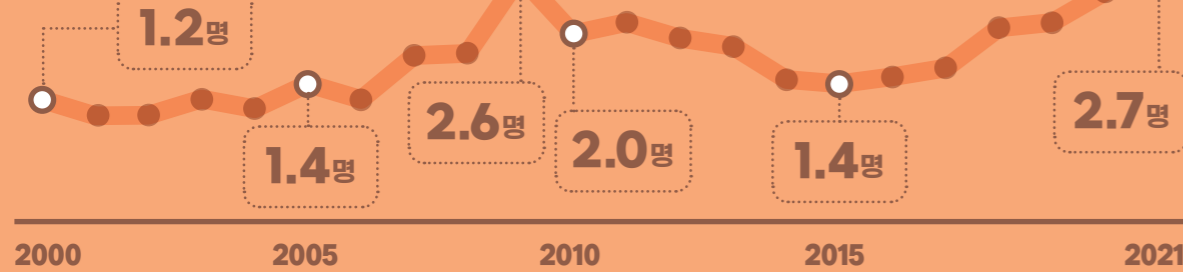
1~9세



#### 비만율



#### 자살률



### Indicators

세부영역	지표명	주기	이전년도	최근년도	해당연령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1년	34.2% (2020)	38.8% (2021)	중·고등학생	
	자살률	1년	10만 명당 2.5명(2020)	10만 명당 2.7명(2021)	0~17세	
신체건강	저체중 출생아 비율	1년	6.8% (2020)	7.2% (2021)	0세	
	비만율	1년	15.1% (2019)	19.0% (2021)	초·중·고	
	주관적 건강 인지율	1년	69.6% (2020)	64.7% (2021)	중·고등학생	
	수면시간	1년	6.2시간 (2020)	6.2시간 (2021)	중·고등학생	
건강행동	예방접종률(6세)	1년	83.5% (2020)	86.1% (2021)	1~6세	
	영양결핍률	1~9세	1년	3.4% (2019)	6.5% (2020)	1~18세
		10~18세	1년	16.7% (2019)	23.4% (2020)	
	규칙적 운동 실천율	1년	14.0% (2020)	14.6% (2021)	중·고등학생	

#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정의**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측정방법**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5~2007년에 45% 이상으로 높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 40% 전후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원격수업 등의 변화로 스트레스 인지율은 34.2%로 가장 낮았으나, 2021년 38.8%로 다시 증가하였다.
- 성 및 학교급** 남학생(32.3%)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학교급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에 증가했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2019년보다 2021년에 스트레스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200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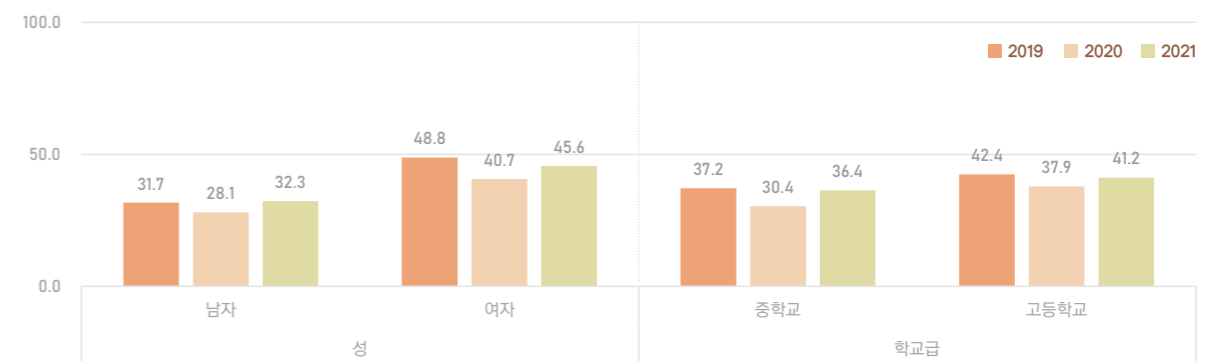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성·학교급별 스트레스 인지율(2019~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자살률



**지표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자살로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자 수

**해당연령** 만 0~1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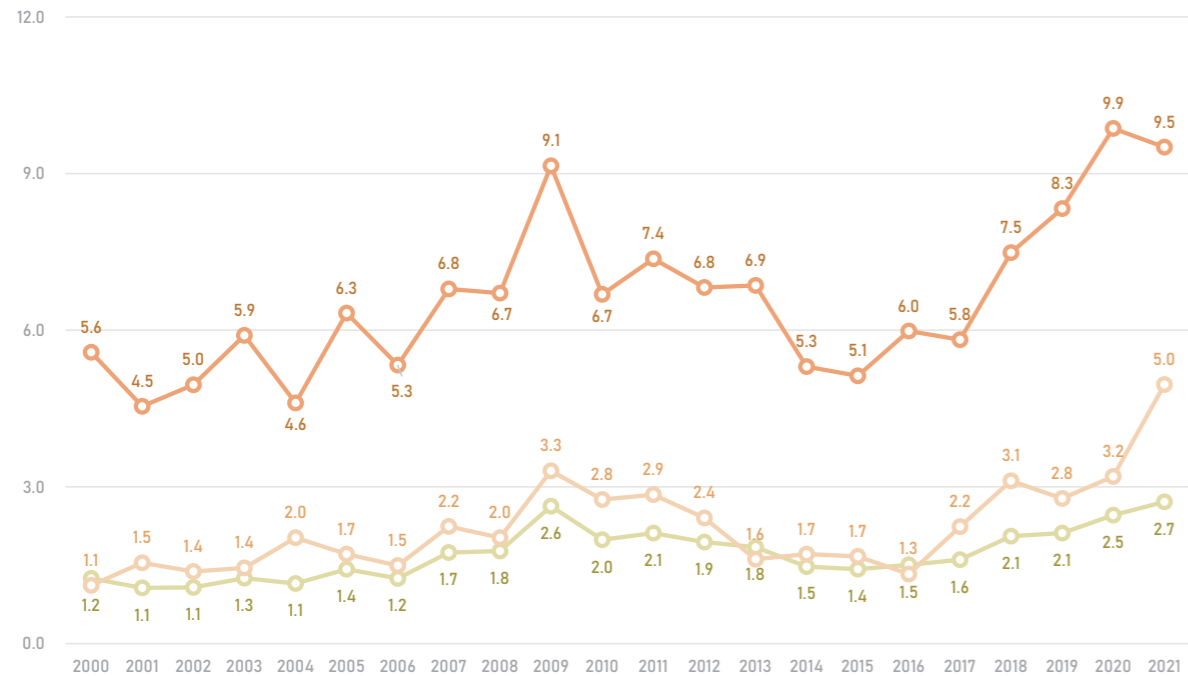
**측정방법** (0~17세 자살자 수 ÷ 0~17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요인이 합쳐져서 발생한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자살률은 2018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이며 202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 **성** 2021년 남녀 모두 2.7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 **연령** 12~14세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 2000년 1.1명에서 2009년 3.3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6년 1.3명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5.0명으로 가장 높다. 15~17세는 2009년 9.1명에서 감소추세를 보인다,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 9.9명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9.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자살률(2000~2021)

(단위: 명/1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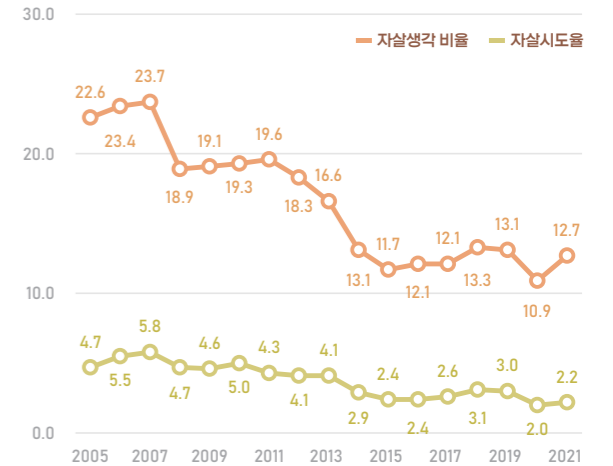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조사」

주 만 0~17세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를 해당 연령 인구를 10만 명당으로 계산한 수치임

- 자살생각 비율<sup>1</sup>과 자살시도율<sup>2</sup>은 정신건강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살 시도 포기 또는 실패로 실제 자살률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차후에 재시도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인 자살생각 비율은 2007년 23.7%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11~13%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12.7%로 2020년(10.9%) 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 자살시도율은 실제로 자살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자살시도율 또한 자살생각 비율과 마찬가지로 2007년 5.8% 이후 감소추세이며, 2014년 이후 2~3%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다. 2021년에는 2.2%로 2020년보다(2.0%) 소폭 증가하였다.
- **성** 자살생각 비율과 자살시도율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 비율은 6.6%p, 자살시도율은 1.4%p 더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 2021년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생각 비율과 자살시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 비율은 학교급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살시도율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더 높다.

자살생각 비율과 자살시도율(2005~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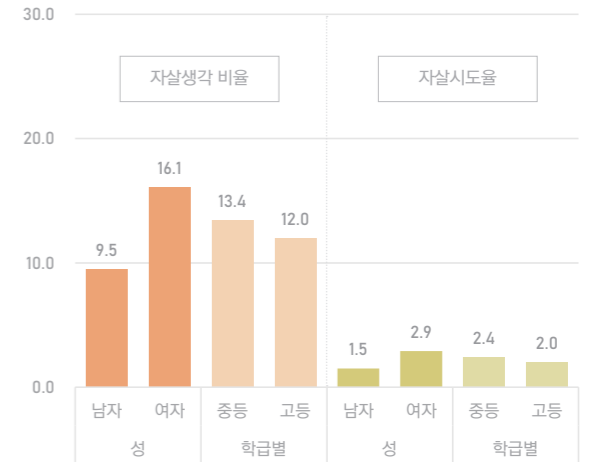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성·학교급별 자살생각 비율과 자살시도율(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sup>1</sup> 자살생각 비율은 중·고등학생 응답자 중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sup>2</sup> 자살시도율은 중·고등학생 응답자 중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저체중 출생아 비율



**지표정의** 전체 출생아 중에서 출생시 저체중으로 태어난 출생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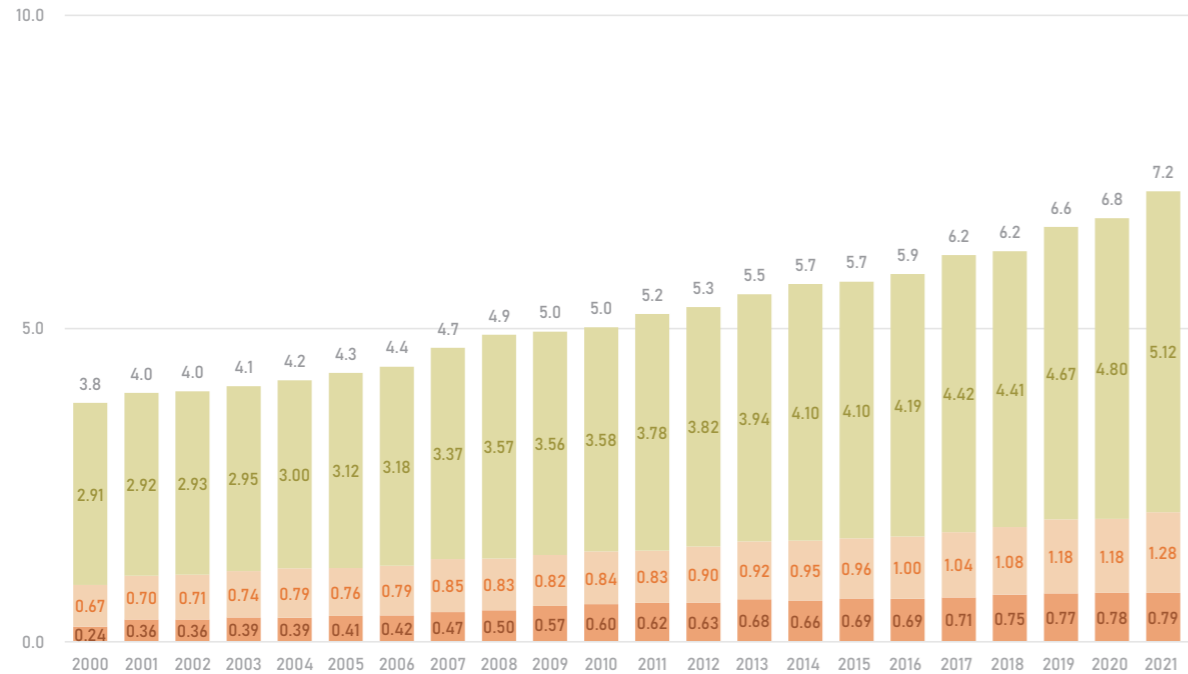
**해당연령** 0세

**측정방법**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수 ÷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 × 100

- 저체중 출생은 사망 위험이 높고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유아기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00년 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에 전체 출생아 중에 7.2%가 2.5kg 미만인 저체중으로 태어났다.
- 저체중 출생아 중에서 2.0~2.4kg로 태어난 태아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1% 미만이지만 2000년 0.24%에서 2021년 0.79%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저체중 출생아 비율 (2000~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전체 출생아 수에서 체중 미상인 경우는 제외했음.

# 비만을



**지표정의**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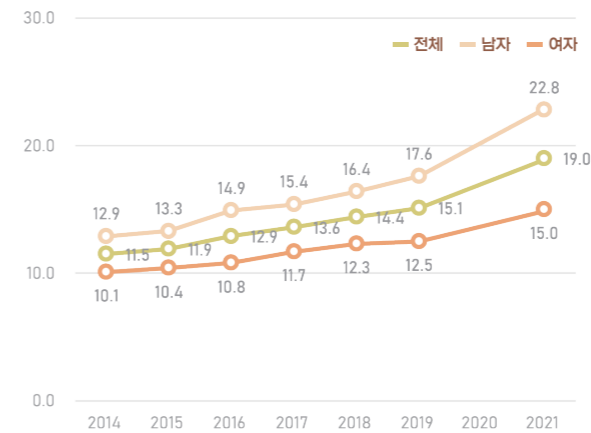
**해당연령** 초·중·고등학생

**측정방법** 체질량지수(BMI)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인 아동·청소년의 비율

- 아동·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장과 성호르몬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합병증의 원인이 되어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신체활동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 비만율은 증가추세이다.
-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14년 11.5%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비만율은 19.0%로 2019년 15.1%에서 3.9%p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감소가 체중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성 남자 비만율은 2021년 22.8%로 여자(15.0%)보다 높다. 남녀 비만율의 차이는 2014년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2014년 2.8%p에서 2021년 7.8%p까지 커졌다.
- 학교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율이 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만율이 증가한 2021년을 보면 초등학생은 2019년 13.7%에서 18.7%로, 중학생은 14.9%에서 19.1%로 상승해 고등학생의 비만율(19.5%)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이 성장기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더 컸음을 보여준다.

성별 비만율(2014~2021)

(단위: %)



출처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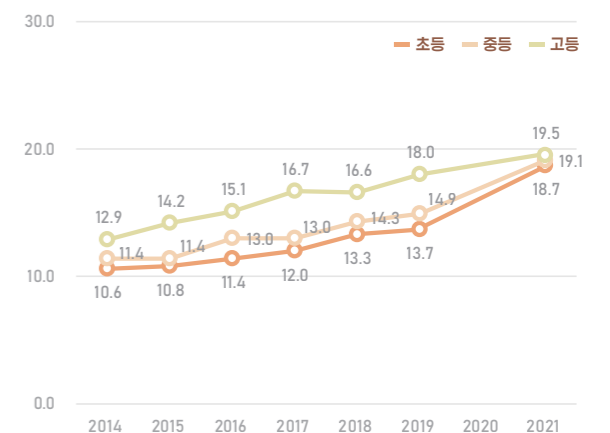
주① 체질량지수(BMI) = 체중(kg)/[신장(m)]<sup>2</sup>

②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기준으로 재분석

③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2020년 건강검사 미실시

학교급별 비만율(2014~2021)

(단위: %)



출처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보도자료

주① 체질량지수(BMI) = 체중(kg)/[신장(m)]<sup>2</sup>

②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기준으로 재분석

③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2020년 건강검사 미실시

# 주관적 건강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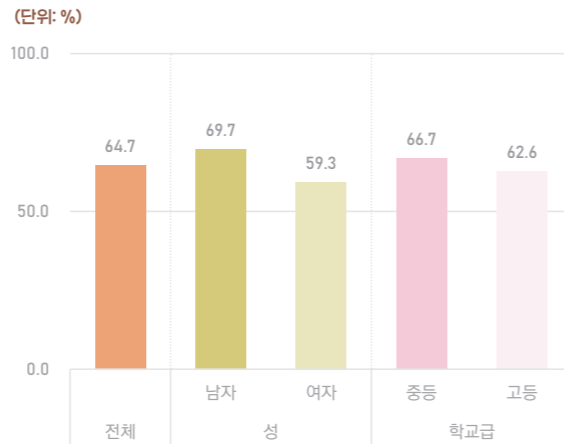
**지표정의**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측정방법**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건강'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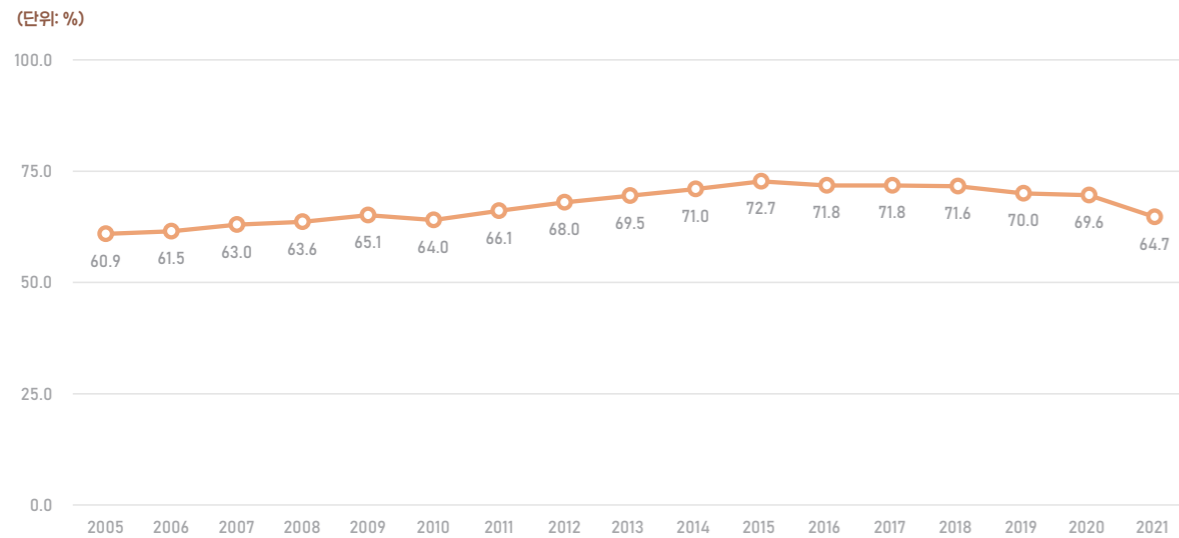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 인지도는 자신의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객관적인 건강상태와는 상이할 수 있지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개인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인지도는 2005년 60.9%에서 2015년 72.7%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0년 69.6%에서 2021년 64.7%로 감소폭이 크다.
- 성 및 학교급** 2021년 기준 남학생이 69.7%로 여학생(59.3%)보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66.7%로 고등학생(62.6%)보다 더 높다.

성·학교급별 주관적 건강 인지도(2021)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관적 건강 인지도(2005~2021)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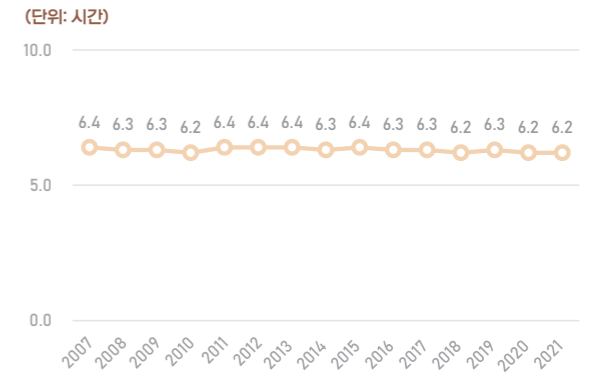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측정방법**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시간의 평균

- 수면시간은 행동·사고·기분·학업 등 낮 시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애전반의 발달과 건강상태의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삶에 매우 중요하다. 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감은 있지만 6.2~6.4시간 정도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 주중 수면시간의 분포를 보면, 6~7시간이 2021년 25.1%로 가장 많았으며, 7~8시간은 2015년 22.1% 이후로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2021년 18.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5~6시간과 5시간 미만인 비율은 각각 24.1%, 18.6%이며,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수면시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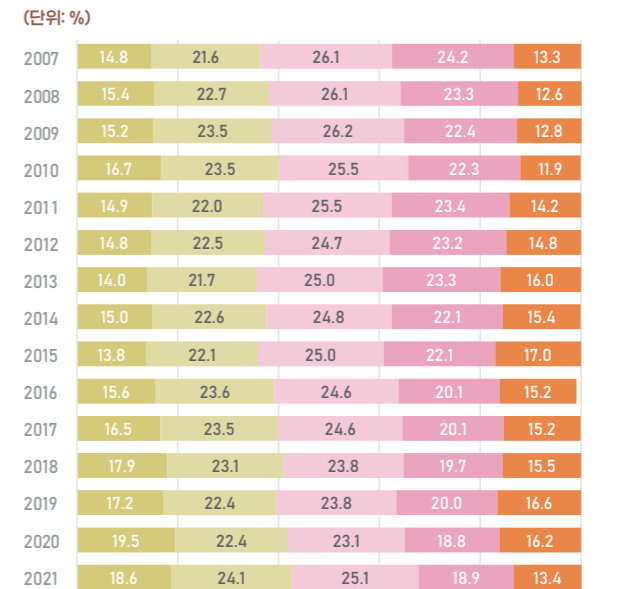
평균 수면시간(2007~2021)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 평균수면시간 =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 시간의 평균

수면시간 시간대별 비율(2007~2021)



■ 5시간 미만 ■ 5~6시간 미만 ■ 6~7시간 미만 ■ 7~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예방접종률



**지표정의** 필수 백신을 모두 접종받은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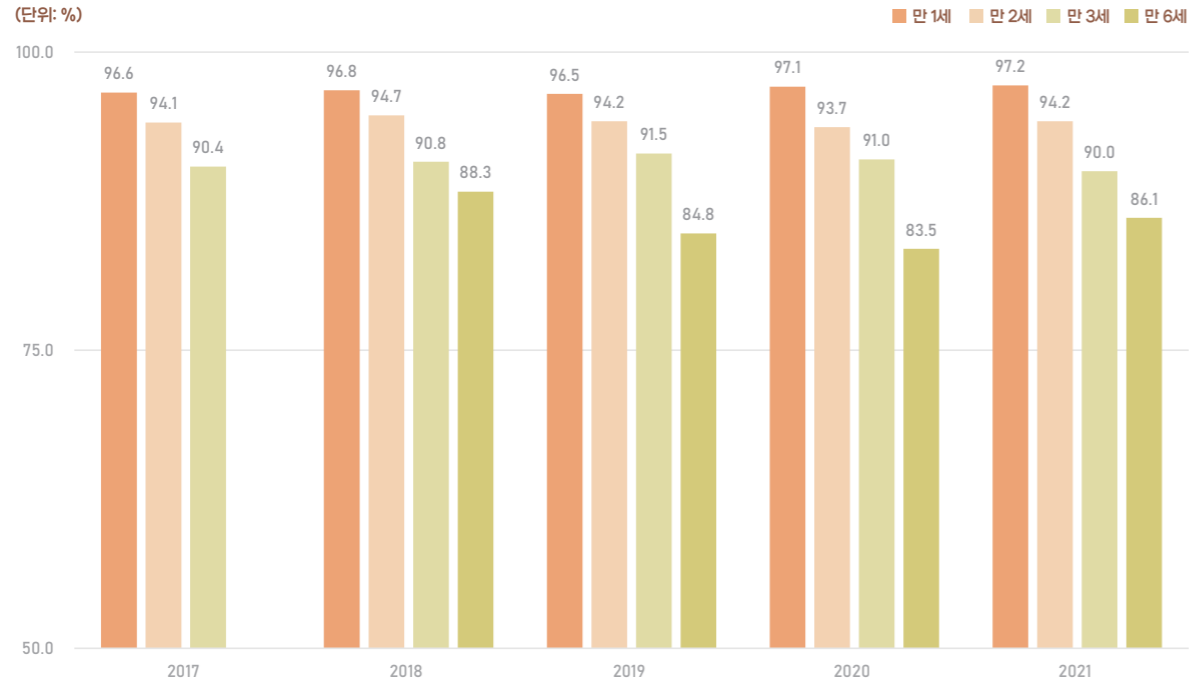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6세

**측정방법** 생후 72개월에 접종해야 하는 백신을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

- 예방접종률은 건강검진과 함께 0~6세 아동의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예방접종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 **연령** 예방접종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필수로 접종해야 하는 백신에서 차이가 있는데, 만 1세 아동의 예방접

종 완료율은 2021년 97.2%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만 6세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2018년 88.3%에서 2020년 83.5%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86.1%로 다시 증가하였다.

0~6세 아동의 예방접종률(2017~2021)



출처 질병관리청,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주 연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전산등록자료를 이용한 전국 예방접종률 전수조사 자료임

# 영양결핍률



**지표정의** 에너지 및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1~1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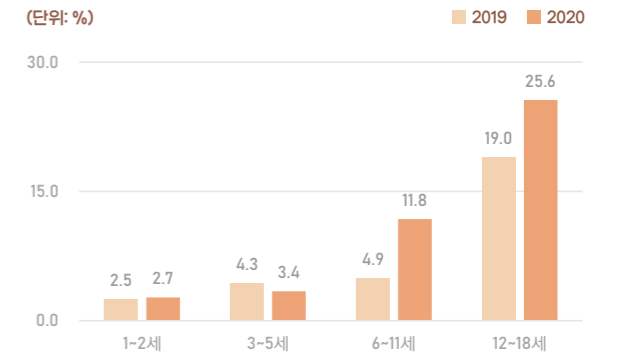
**측정방법**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필요량 미만인 응답자의 비율

- 아동기의 영양결핍은 성장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 상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양결핍률은 1~9세의 경우 2001년 15.2%에서 2019년 3.4%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6.5%로 증가하였으며, 10~18세는 2001년 21.2%에서 2011년 13.2%로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0년에는 2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 영양결핍률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와 원격수업 등이 아동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 **연령** 영양결핍률은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2020년 기준 만 1~2세와 3~5세의 영양결핍률은 각각 2.7%, 3.4%인데 비해 만 6~11세와 만 12~18세는 11.8%, 25.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20년의 경우 5세 이하에서는 2019년과 큰 차이가 없

는 반면, 만 6세 이상에서는 6%p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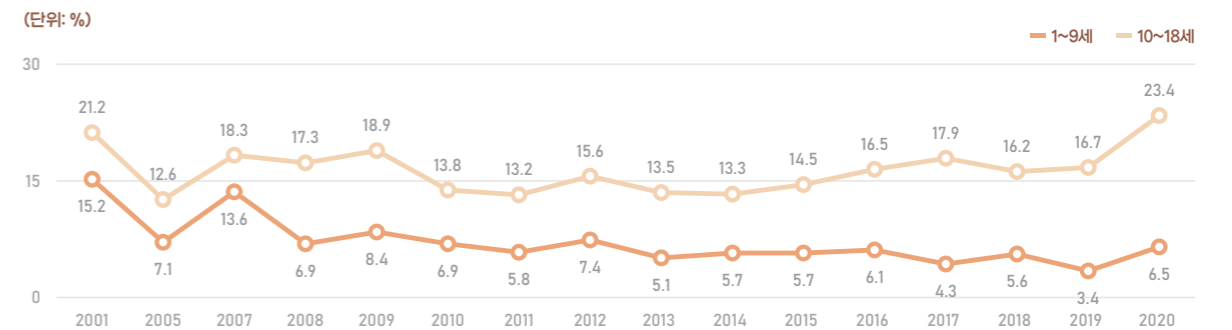
- **성** 2020년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영양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영양결핍률(2019, 2020)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별 영양결핍률(2001~2020)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본 지표는 1998년부터 생산되었으며, 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주기로 생산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생산됨.

# 규칙적 운동 실천율



**지표정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일정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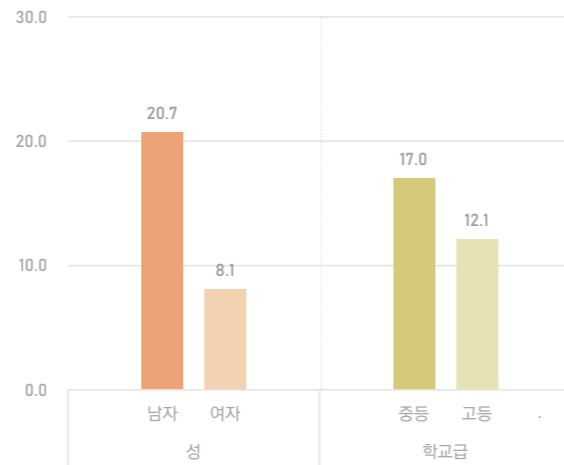
**측정방법** 최근 7일 동안 신체활동\*을 하루에 60분 이상, 5일 이상 했다고 응답한 비율

- **신체활동**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 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

-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증진의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성장기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오염, 입시 등 학업 부담,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09년 10.9%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최근에는 2015년 이후부터 정체되어 있다. 2021년 14.6%로 여전히 15%에 못 미친다는 점은 신체활동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 **성** 남학생이 2021년 기준 20.7%로 여학생(8.1%)보다 2배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 **학교급** 중학생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17.0%로 고등학생(12.1%)보다 높아 신체활동이 활발하다.

성·학교급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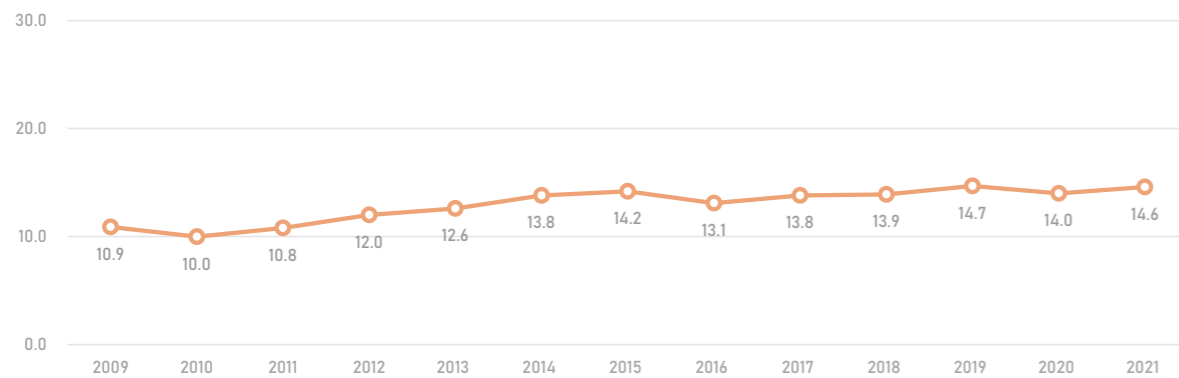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규칙적 운동 실천율(2009~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04

## 학습·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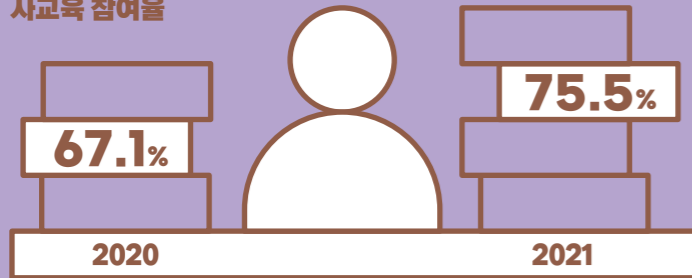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 Key Indicators

#### 학습시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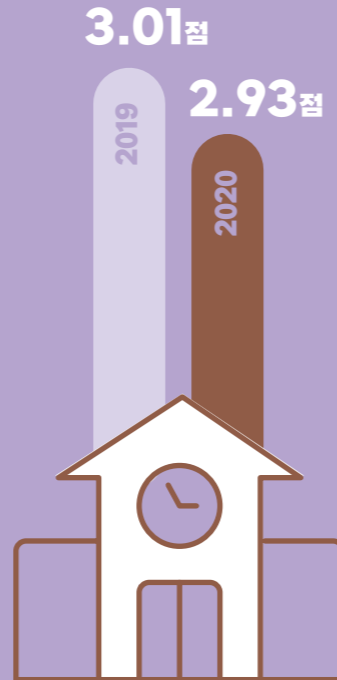
####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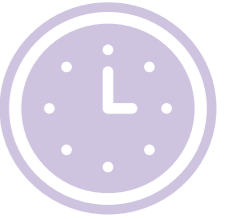
### Indicators

세부영역	지표명	주기	이전년도	최근년도	해당연령	
학습	학습시간	초등학생	5년	5시간 24분(2014)	5시간 9분(2019)	10세~고등학생
		중학생	5년	7시간 16분(2014)	7시간 10분(2019)	
		고등학생	5년	8시간 28분(2014)	8시간 2분(2019)	
역량	사교육 참여율	1년	67.1%(2020)	75.5%(2021)	초·중·고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3년	3.35점/5점(2017)	3.41점/5점(2020)	9~18세	
	학교생활 만족도	3년	3.01점/4점(2017)	2.93점/4점(2020)	9~18세	
	학업중단율	1년	0.6%(2020)	0.8%(2021)	초·중·고	
역량	영유아 언어발달 정도	5년	-	2.25점/4점(2018)	0~5세	

#### 학교생활 만족도



## 학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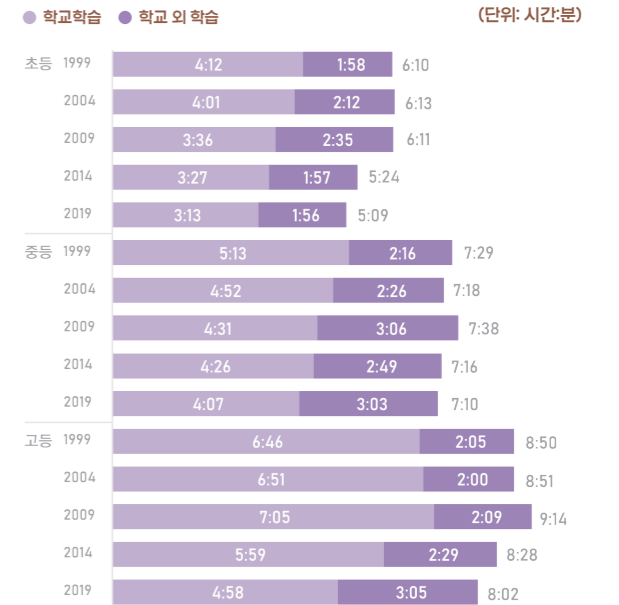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하루 중에서 학습에 할당하는 시간

해당연령 만 10세 ~ 고등학생

측정방법 하루 24시간 중 주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수업' 시간과 '정규수업 외 학습(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값

-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도나 자기개발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가나 신체활동 시간의 부족, 입시 위주의 학습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총 학습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시간이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 경우에는 2009년까지 6시간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 5시간 24분, 2019년에는 5시간 9분으로 감소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09년에 각각 7시간 38분, 9시간 14분에서 2019년 7시간 10분, 8시간 2분으로 감소하였다.
- 학교급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시간이 증가하며, 특히 2019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평균 학습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여 초등학생은 5시간 9분, 중학생은 7시간 10분, 고등학생은 8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주말에도 4시간 이상의 학습시간을 보이고 있다.
- 학습시간은 공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공교육 시간인 학교학습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로, 초등학생은 1999년 4시간 12분에서 2019년 3시간 13분으로, 중학생은 같은 기간 5시간 13분에서 4시간 7분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은 2009년까지는 증가추세였으나 2009년 7시간 5분에서 2019년 4시간 58분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학교학습 시간은 줄어든 반면 학교 외 학습 시간은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증가추세로 중·고등학생은 1999년 2시간대에서 2019년 3시간 정도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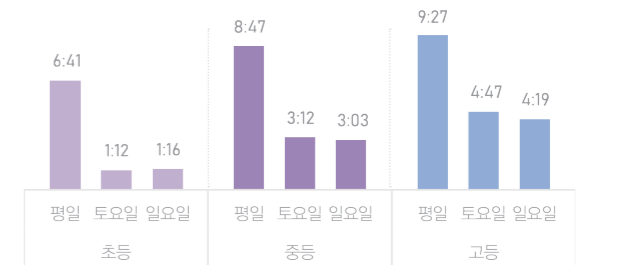
#### 학교급별 학습시간(1999~201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주① 학교급별에서 수학여부는 '재학'인 경우에만 해당
- ② 9월 시간량 자료를 이용함
- ③ 주행동을 기준으로 작성됨

#### 요일·학교급별 학습시간(2019)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주① 학교급별에서 수학여부는 '재학'인 경우에만 해당
- ② 9월 시간량 자료를 이용함
- ③ 주행동을 기준으로 작성됨

#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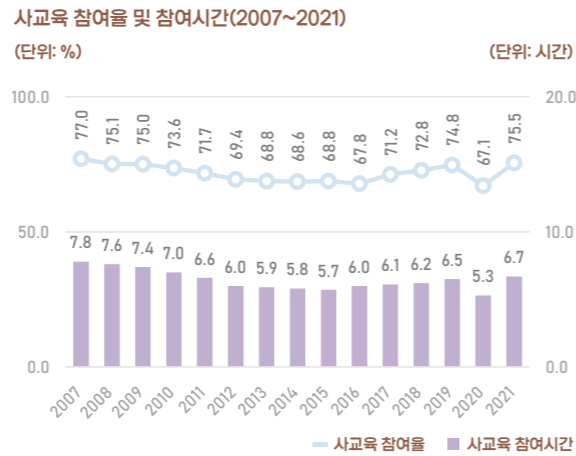


**지표정의** 유료 사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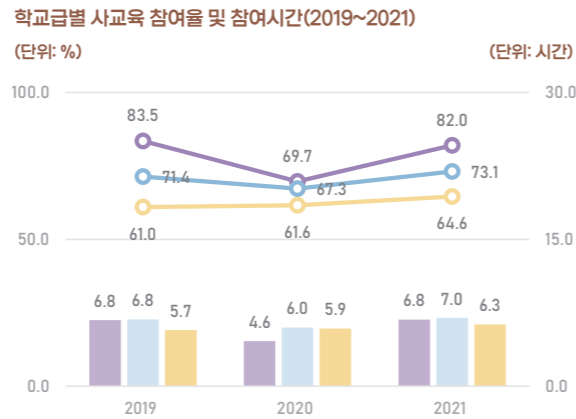
**해당연령** 초·중·고등학생

**측정방법** 조사기간 중 유료로 일반교과목, 논술, 예체능, 교양, 취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방과 후 활동, EBS 강의는 미포함)

- 사교육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교육이나 입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학습시간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0%에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74.8%에서 2020년 67.1%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75.5%로 다시 증가하였다.
- **학교급**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 초등학생 82.0%, 중학생 73.1%, 고등학생 64.6%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나, 최근 고등학생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 고등학생은 다른 학교급과는 달리 2020년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오히려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 **참여시간** 사교육 참여학생의 주당 평균시간도 2007년 7.8시간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21년 6.7시간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시간은 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2020년에 5.3시간으로 낮았으나,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참여율이 낮아진 만큼 사교육 참여시간도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은 사교육 참여율의 소폭 증가와 함께 참여시간도 2019년 5.7시간에서 2020년 5.9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등교중지로 인한 학습 공백을 사교육을 통해 보충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출처**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주① 조사기간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② 사교육 참여 학생의 주당 평균 참여시간임.



**출처**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주① 사교육 참여 학생의 주당 평균 참여시간임.  
② 고등학교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포함됨.

#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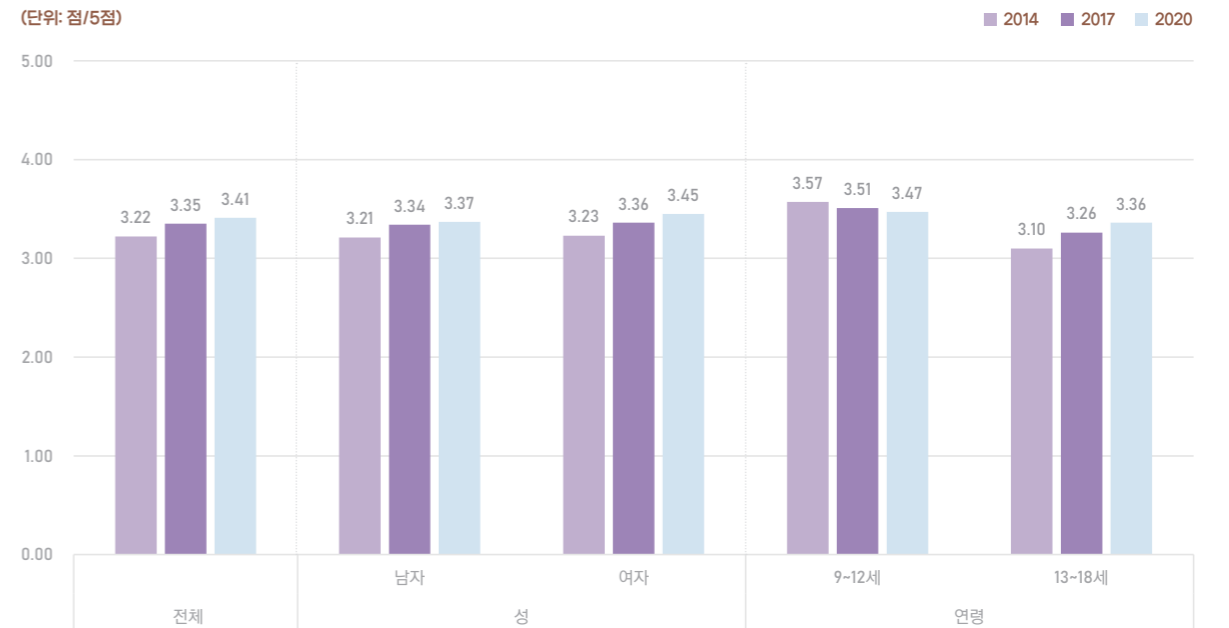
**지표정의**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정도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현재 학업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매우 못한다' ~ '매우 우수하다') 응답의 평균점수

-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는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실제 성취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실제 학업성취도가 높고 낮은지 보다 본인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2014년 5점 만점의 3.22점에서 2020년 3.41점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 **성**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약간 더 높아 2020년 여학생은 3.45점, 남학생은 3.37점으로 나타났다.
- **연령**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아 2020년 9~12세는 3.47점, 13~18세는 3.36점으로 약 0.1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이후 학업성취도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동안 중·고등학생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2014~2020)**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정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9~1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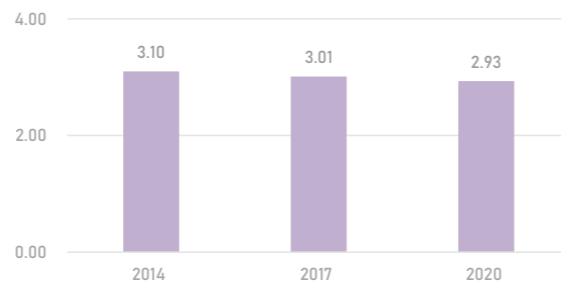
**측정방법**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에 대한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응답의 평균점수

-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하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4년 3.10점에서 2017년 3.01점, 2020년 2.93점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 **성** 2017년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큰 차이는 없다.
- **연령** 2020년에 9~12세는 2.98점, 13~18세는 2.89점으로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더 낮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76점,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2.83점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학교생활 만족도(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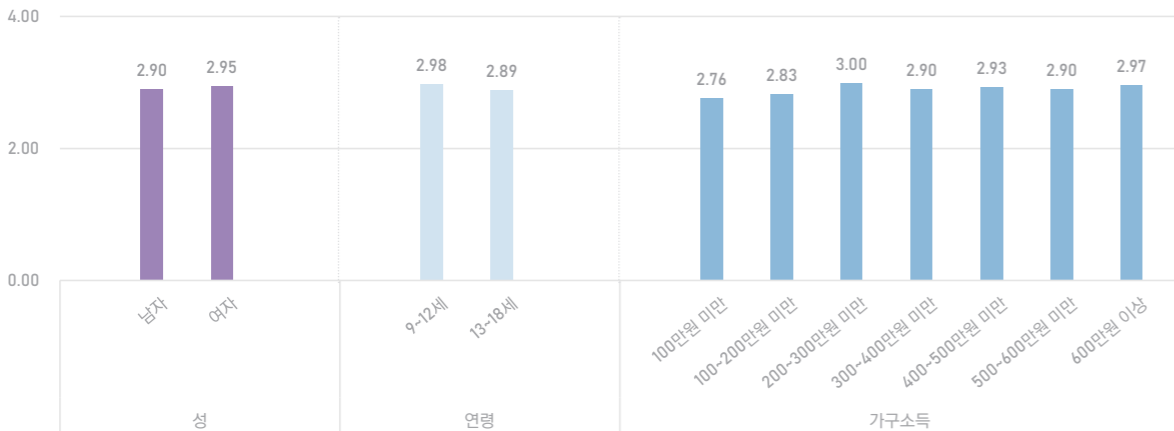
(단위: 점/4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성·연령·가구소득별 학교생활 만족도(2020)

(단위: 점/4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학업중단을



**지표정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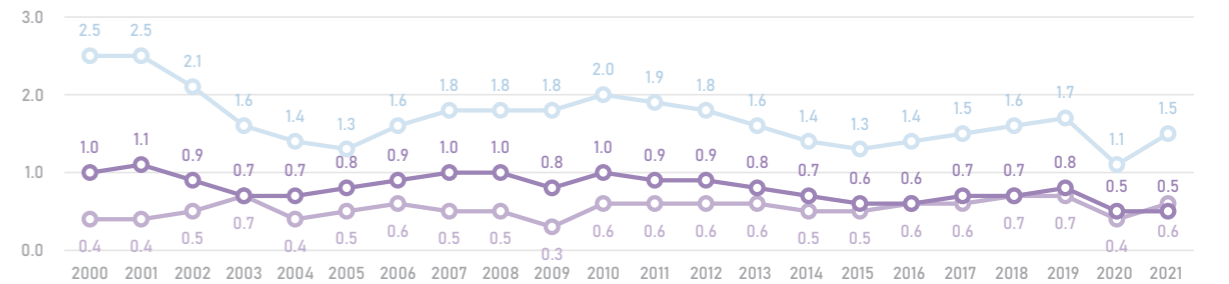
**해당연령** 초·중·고등학생

**측정방법** (학업중단자 수 ÷ 학생수) × 100

- 학업중단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해당 연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교육의 범위에서 벗어난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보여준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학업중단 사유가 면제나 유예만 해당되고 최근에는 0.5% 내외로 낮은 편이다.
-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은 2000년 2.5%에서 2021년 1.5% 정도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학업중단은 1.1%로 학교 등교일수의 감소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
-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자퇴가 대부분으로 자퇴 사유 중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6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부적응(21.8%), 해외출국(9.0%) 순으로 높다. 2012년과 비교해보면 가사, 부적응, 퇴학은 감소한 반면, 기타는 증가추세이다. 해외출국의 경우 2012년 12.5%에서 2015년 16.4%, 2018년 14.3%, 2019년 12.9%로 2017년 이후 정체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학업중단율(2000~2021)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주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중단 사유는 유예, 면제임

②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2012, 2021)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주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 영유아 언어발달 정도



**지표정의** 영유아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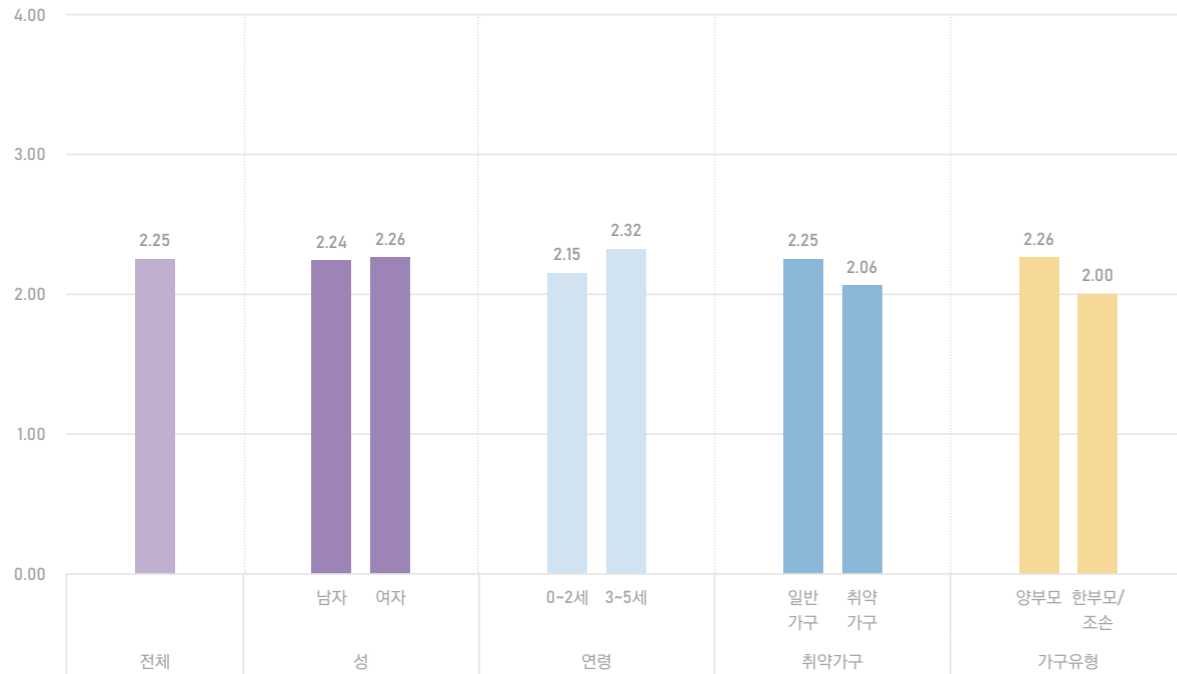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0~5세

**측정방법** 주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의 전반적 언어발달 정도에 대한 4점 척도(‘매우 느린 편’ ~ ‘매우 빠른 편’) 응답의 평균점수

- 영유아 시기의 언어발달은 차후에 사회성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2018년 영유아 언어발달 척도의 평균은 4점 중에 2.25점이다.
- **성** 남자 아동의 언어발달은 2.24점, 여자 아동의 언어발달은 2.26점으로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다.
- **가구소득** 일반가구의 평균이 2.25점인 반면 취약가구의 평균이 2.06점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 **가구유형** 한부모나 조손가구의 아동은 2.00점으로 양부모가구의 아동(2.26점)에 비해 언어발달이 느린 경향이 있다.

영유아 언어발달 정도(2018)

(단위: 점/4점)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주①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②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금 수급자 중 만 0~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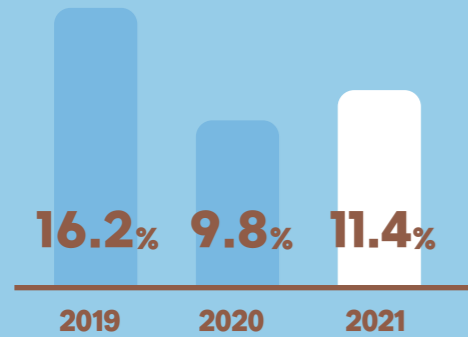
# 05

## 여가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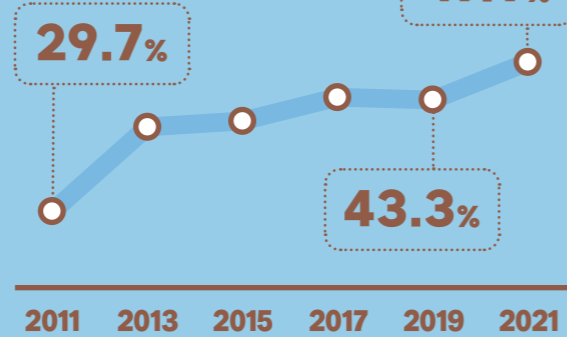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고,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 Key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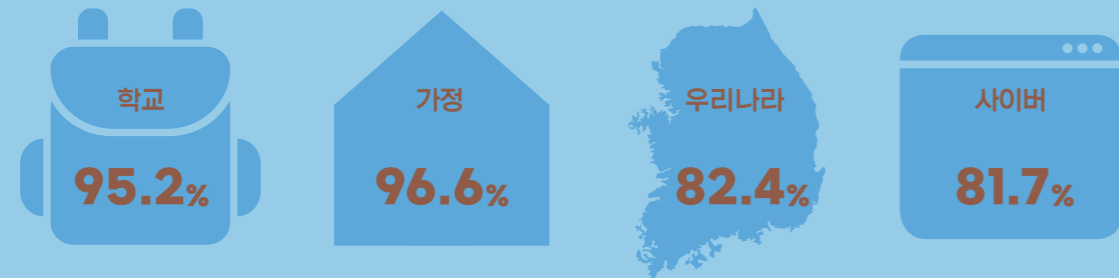
#### 평일 여가시간(한 시간 미만 비율)



#### 여가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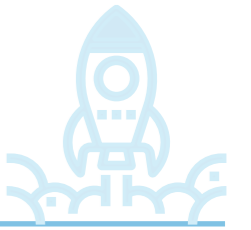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2021)



### Indicators

세부영역	지표명	주기	이전년도	최근년도	해당연령	
여가 및 활동	평일 여가시간(1시간 미만인 비율)	1년	9.8%(2020)	11.4%(2021)	초4~고3	
	방과 후 활동(학원/과외 비율)	5년	40.6%(2013)	47.3%(2018)	9~17세	
	여가생활 만족도	2년	43.3%(2019)	47.9%(2021)	13~19세	
사회경제 정치참여	동아리 참여율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3년	17.2%(2017)	10.9%(2020)	
		인터넷 단체나 동아리	3년	10.4%(2017)	5.4%(2020)	9~18세
		기타 단체	3년	15.1%(2017)	8.5%(2020)	
	사회문제 관심 정도	3년	4.86점/10점(2017)	4.91점/10점(2020)	13~18세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우리나라 전체)	1년	83.7%(2020)	82.4%(2021)	초4~고3	

## 평일 여가시간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평일 하루 중 여가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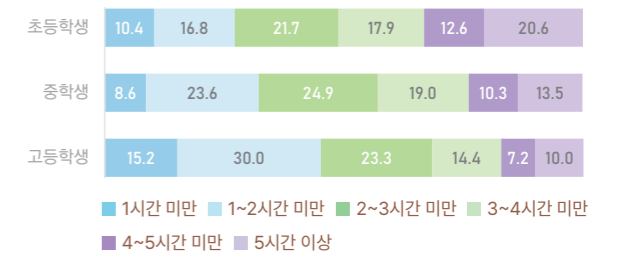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측정방법 평일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1시간 단위(1시간 미만 ~ 5시간 이상)로 응답한 각 시간대별 비율

- 2013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평일 여가시간을 보면 2시간 미만인 비율은 60.5%에서 43.4%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시간 이상인 비율은 39.5%에서 56.6%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평일 여가시간은 증가추세이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평일 여가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2시간 미만인 비율은 29.6%로 감소하였고, 5시간 이상인 비율은 2019년 11.9%에서 18.2%로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학교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평일 여가시간은 2020년보다 감소하였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학교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줄어들어 초등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인 비율은 20.6%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길다. 고등학생의 경우 5시간 이상은 10.0%, 2시간 미만은 4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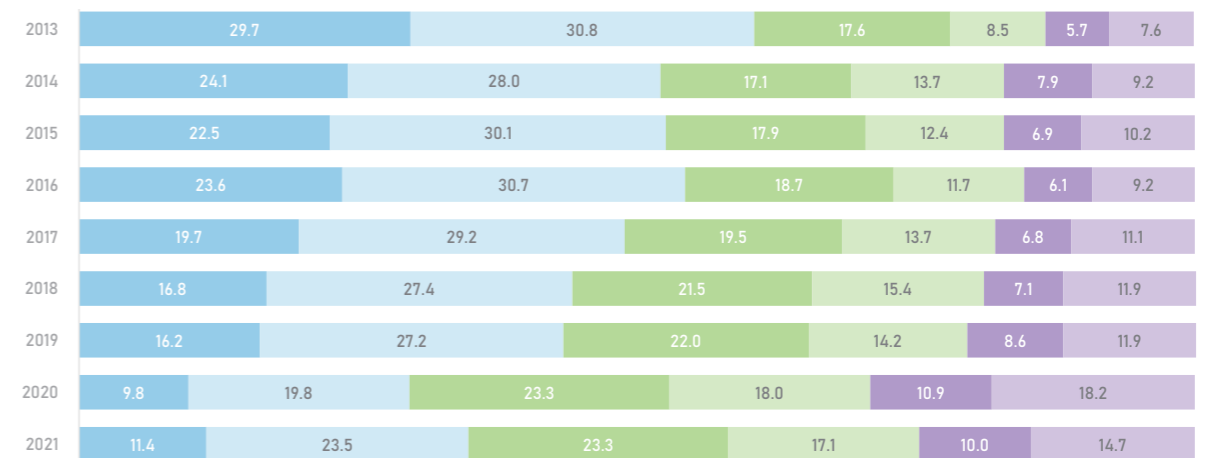
학교급별 평일 여가시간 (2021)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주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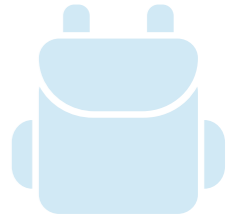
평일 여가시간 (2013~2021)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주 평일 여가시간의 양을 1시간 단위로 응답

# 방과 후 활동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평일 방과 후에 주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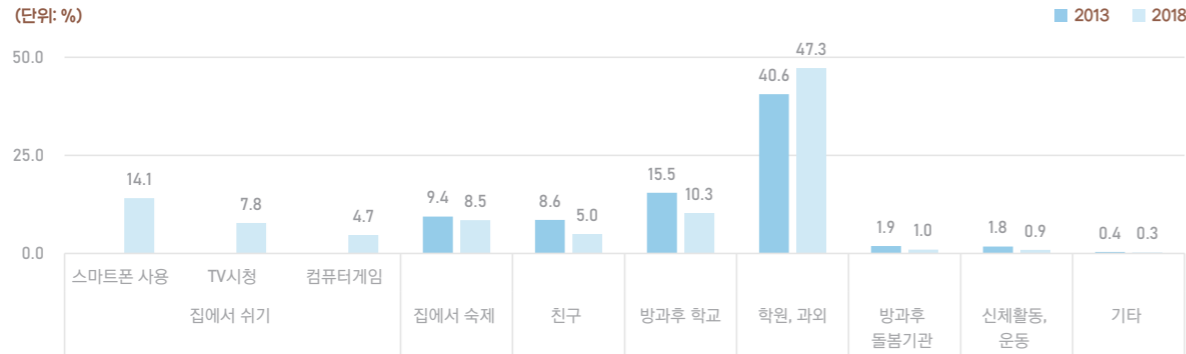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7세

**측정방법** 평일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 비율

-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으로 2013년과 비교해 2018년 ‘학원/과외’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40.6%에서 47.3%로 증가한 한편 집에서 숙제·친구·방과 후 학교·방과후 돌봄기관·신체활동이나 운동은 감소했다. 응답 항목의 변경으로 2013년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18년 스마트폰 사용은 14.1%로 ‘학원/과외’ 다음으로 높다.
- **가구소득**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모두 ‘학원/과외’가 가장 높지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원/과외’ 비율이 높아 중위소득 50% 미만과 150% 이상인 집단은 각각 33.2%, 62.5%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 TV, 컴퓨터게임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더 높으며, 소득 100% 미만을 기준으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지역규모** ‘학원/과외’ 비율은 농어촌에서는 26.3%로 낮고,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는 46% 이상이다. 반면, 스마트폰, TV, 컴퓨터 게임은 농어촌 지역에서 매우 높고 특히 TV와 컴퓨터게임은 두 배 이상 높으나,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친구들과 함께 논다는 비율은 대도시의 경우 2.9%에 불과하였으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6% 이상이다.
- **가구유형** 양부모가구와 한부모/조손가구를 비교해보면, ‘학원/과외’는 양부모가구의 경우 49.2%로 한부모/조손가구(22.5%)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반면, 스마트폰, TV, 컴퓨터게임은 반대로 한부모/조손가구에서 두배 가까이 높고, 컴퓨터게임은 11.3%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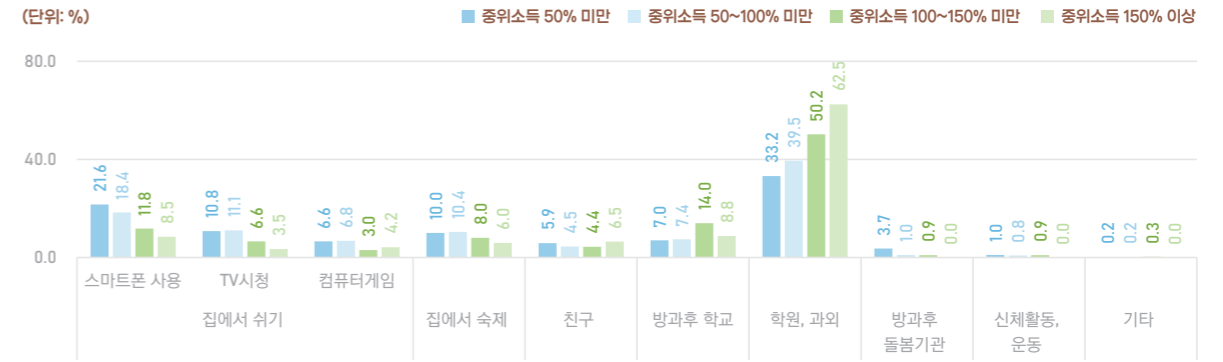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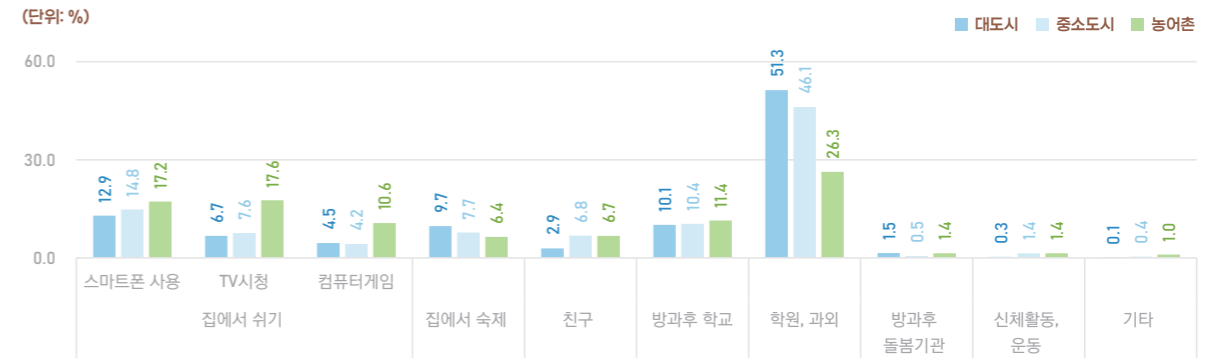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 주① '방과후 돌봄기관'은 방과후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이나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을 포함.
- ② '기타'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됨.
- ③ 2013년에는 '집에서 쉬기(21.8%)'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되고, 2018년도 조사시 '스마트폰 사용', 'TV 시청', '컴퓨터 게임'으로 세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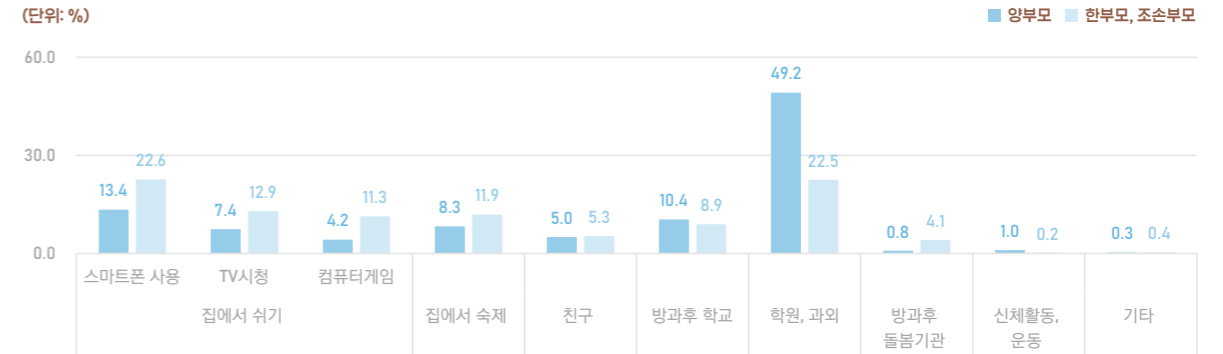
1. 가구소득별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2018)



2. 지역규모별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2018)



3. 가구유형별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2018)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 주① '방과후 돌봄기관'은 방과후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이나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을 포함.
- ② '기타'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됨.
- ③ 소득계층은 균등화 가구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여가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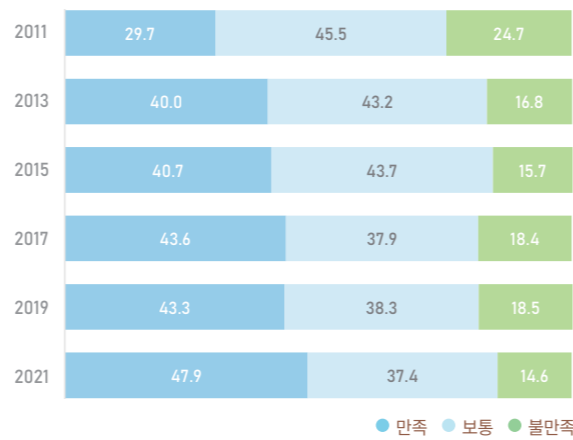
**지표정의** 자신에 여가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13~19세

**측정방법** 자신의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 응답 중 '약간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 여가활동은 개인별 선호가 다양하여 어떤 여가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보다 개인들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1년 29.7%에서 2013년 40.0%로 급상승한 이후로 2019년 43.3%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였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는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로 여가생활 만족도 역시 2019년 43.3%에서 2021년 47.9%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여가생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13~19세 청소년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보다 4.6%p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가시간은 증가하였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여가활동에도 일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 다른 연령대에서는 여가생활 만족도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3~19세에서는 오히려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13~19세 연령대의 여가활동이나 여가생활이 타연령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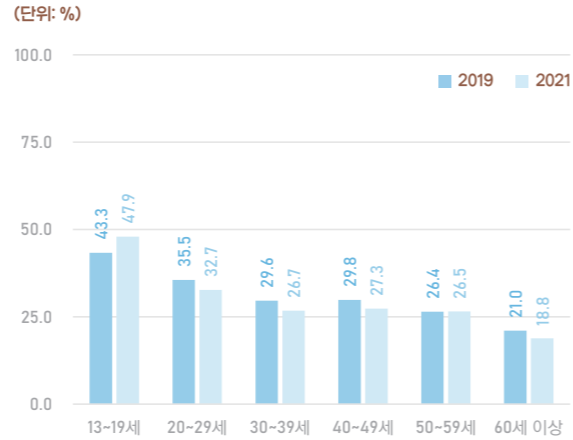
여가생활 만족도 (2011~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만족 = "매우 만족" 혹은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불만족 = "매우 불만족" 혹은 "약간 불만족"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2019, 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동아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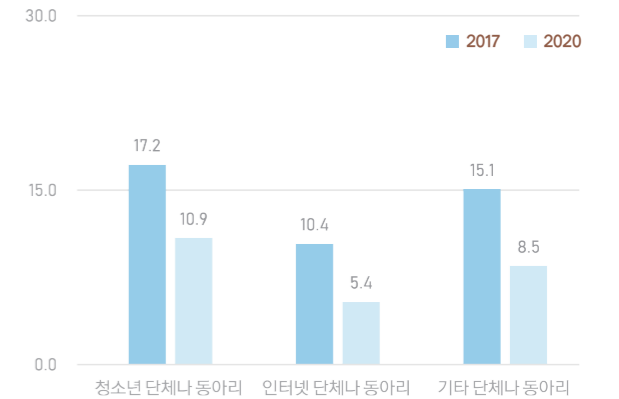
**지표정의** 동아리나 기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청소년 단체,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 중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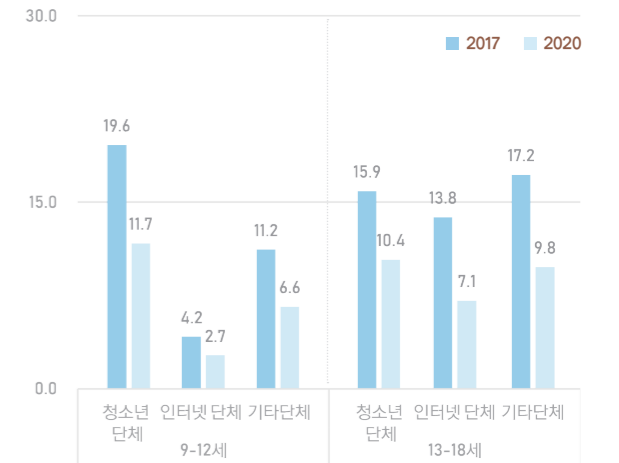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동아리 참여율'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동아리 참여율은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인터넷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로 나뉘어져 조사되며, 2020년 기준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참여율이 10.9%로 가장 높고, 인터넷단체 (5.4%)보다는 기타 단체나 동아리 참여율(8.5%)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017년과 2020년 동아리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모든 유형의 동아리 참여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해 청소년 단체는 6.3%p, 인터넷 단체는 5.0%p, 기타단체는 6.6%p 감소하였다.
- 연령 9~12세는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참여율이 11.7%로 가장 많고, 인터넷 단체나 동아리의 경우 2.7%에 불과하여 인터넷 단체나 동아리의 참여율이 낮다. 반면, 중·고등학생인 13~18세의 경우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참여율이 10.4%로 높지만, 기타단체 9.8%, 인터넷 단체 7.1%로 초등학생보다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리 참여율(2017, 2020)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령별 동아리 참여율(2017, 2020)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사회문제 관심 정도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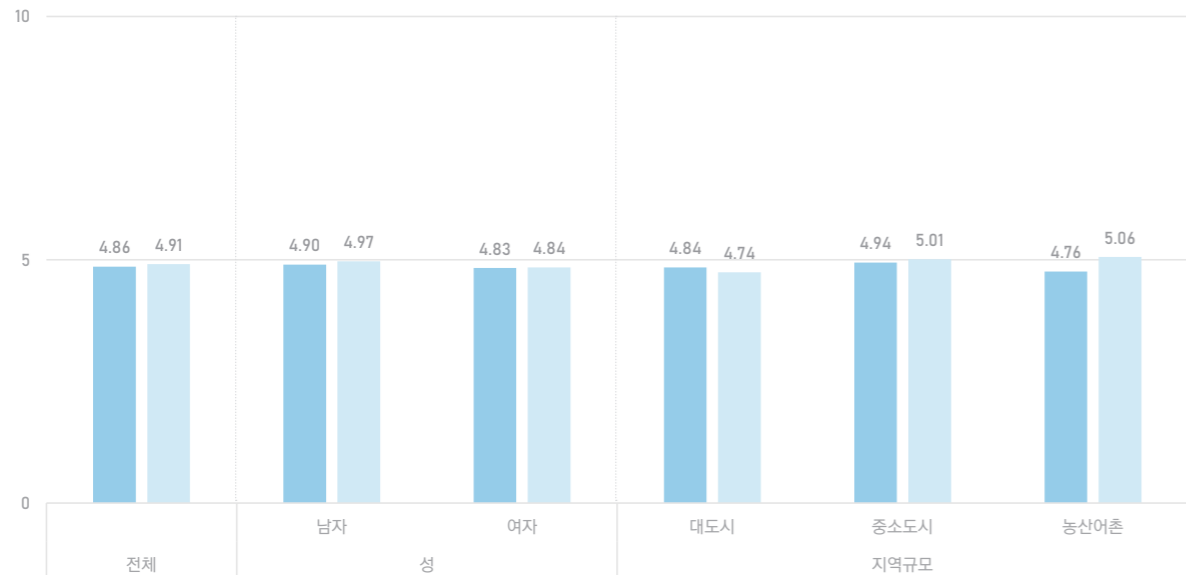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13~18세

**측정방법**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이슈나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은 건강한 가치관과 시민의식 형성에 있어 중요하다. 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향후 활동이나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사회문제 관심 정도는 2017년 4.86점에서 2020년 4.91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0~10점 척도의 평균점수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문제 관심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다.
- **성** 남자가 4.97점으로 여자(4.84점) 보다 높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 **지역규모**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 사회문제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제 관심정도(2017, 2020)

(단위: 점/10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지표정의**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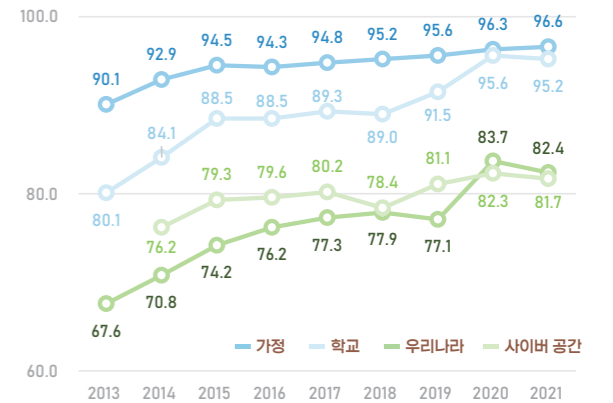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측정방법** 우리나라, 학교, 가정, 사이버 공간 각각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로 응답한 비율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사회활동참여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장기적으로 사회활동이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021년 기준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 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각각 96.6%, 95.2%로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와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는 각각 82.4%, 81.7%로 상대적으로 낮다.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은 2013년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위항목별로 보면 가정은 2013년 90.1%에서 2021년 96.6%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교는 80.1%에서 95.2%, 우리나라 전체는 67.6%에서 82.4%로 증가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존중 정도는 2014년 76.2%에서 2021년 81.7%로 증가하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정체되거나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은 성별이나 지역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 하위항목 전체에 대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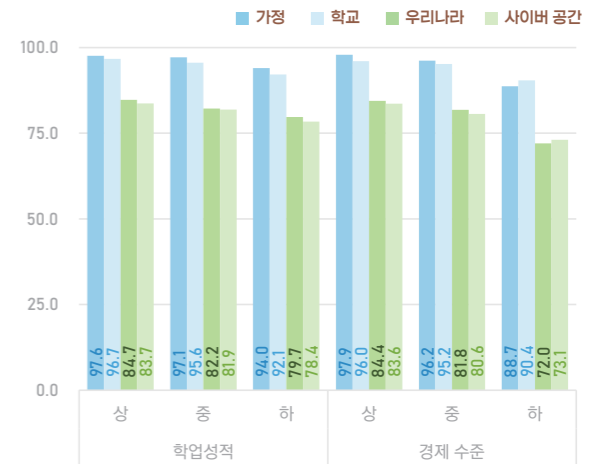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학업성적·경제수준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2021)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06

## 안전·위험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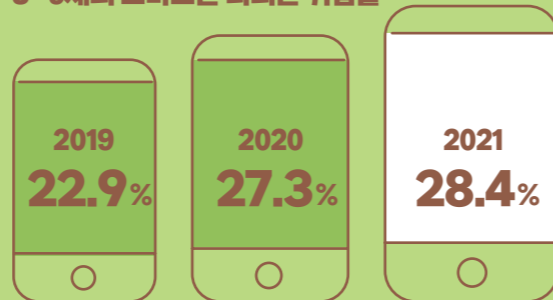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 Key Indicators

#### 도래폭력 피해 경험률



####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 Indicators

세부영역	지표명	주기	이전년도	최근년도	해당연령	
안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년	10만 명당 401.6건(2020)	10만 명당 502.2건(2021)	0~17세	
	방과 후 방치 정도	0~5세	-	12.2%(2018)	0~12세	
		6~12세	-	40.7%(2018)	0~12세	
	도래폭력 피해 경험률	2년	8.5%(2018)	5.9%(2020)	초4~고3	
위험행동	교통사고 사망률	1년	10만 명당 1.3명(2020)	10만 명당 1.3명(2021)	0~20세	
	강력범죄 피해율	1년	10만 명당 318.6명(2019)	10만 명당 280.7명(2020)	0~20세	
	흡연율	1년	4.4%(2020)	4.5%(2021)	중·고등학생	
	음주율	1년	10.7%(2020)	10.7%(2021)	중·고등학생	
	소년범죄 발생률	1년	10만 명당 780.5명(2019)	10만 명당 785.9명(2020)	14~18세	
	가출 경험률	1년	2.9%(2020)	3.2%(2021)	초4~고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3~9세	1년	27.3%(2020)	28.4%(2021)	만 3~19세
		10~19세	1년	35.8%(2020)	37.0%(2020)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지표정의 해당연령 인구 대비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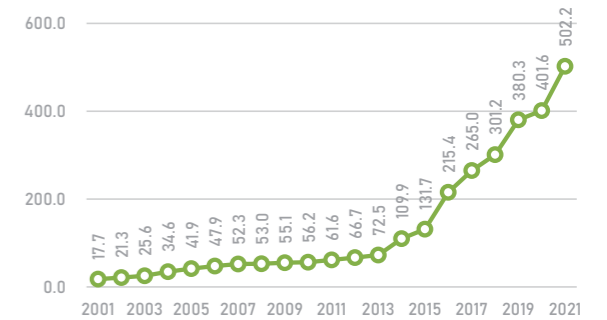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0~17세

측정방법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수 ÷ 0~17세 추계인구) × 100,000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을 말한다.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학대와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01년 10만 명당 17.7건이었으나 2013년 72.5건에서 2014년 109.9건으로 급증한 이후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정 강화 등으로 신고건수도 급증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2020년 401.6건에서 2021년 502.2건으로 10만 명 당 100건 이상 급증하였다.
- **아동학대 유형** 중복을 포함하여 보면 2000년대에는 방임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 정서학대의 비율이 높다. 신체학대의 비율도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01~2021)

(단위: 건/1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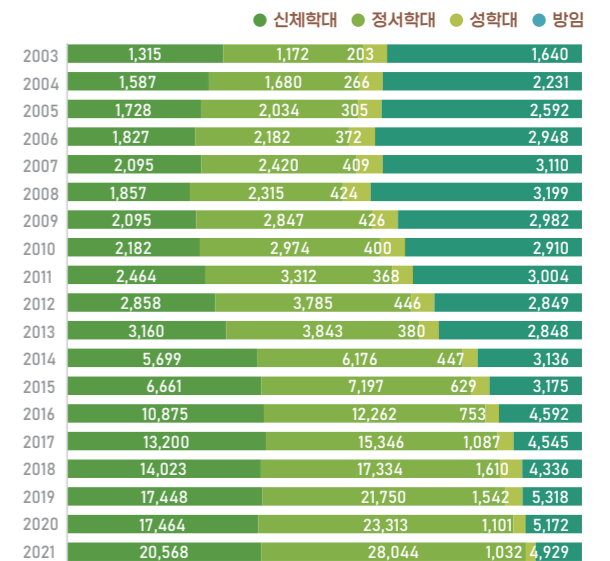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주 아동학대사례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건수임

아동학대 유형(2003~2021)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주① 아동학대사례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건수임

② 항목별 중복이 포함되어 집계된 값임

# 방과 후 방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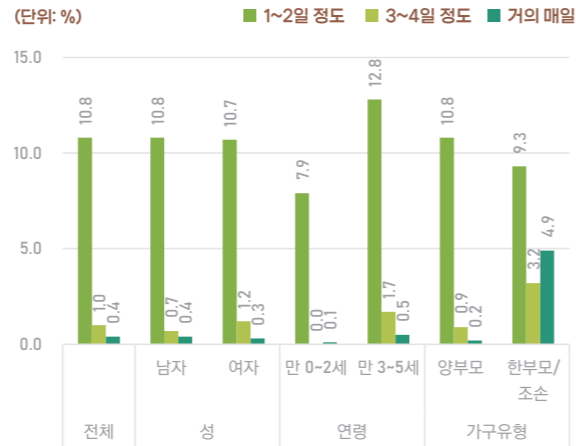
**지표정의**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아동의 비율

**해당연령** 만 0~12세

**측정방법** 방과 후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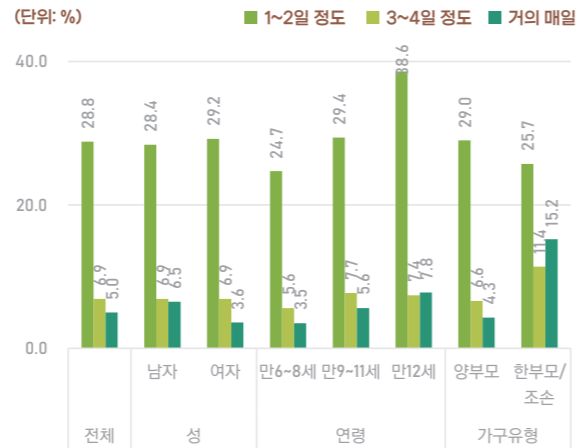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혼자 남겨져 있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방임과도 관련될 수 있다. 2018년 만 0~5세 아동 중에서 30분 이상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인 비율은 12.1%이다.
- 전체 만 0~5세 아동의 10.8%는 혼자 30분 이상 있는 날이 일주일에 1~2일 정도였으나 거의 매일이라는 비율도 0.4%를 차지하고 있다. 0~2세보다 3~5세가 혼자 있는 비율이 더 높고, 한부모나 조손가구 아동의 경우 30분 이상 보호자 없이 있는 것이 거의 매일이라는 비율이 4.9%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 만 6~12세 아동이 방과 후 30분 이상 보호자 없이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인 비율은 40.7%로 미취학 아동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6~8세는 33.8%인 반면, 만 9~11세는 42.7%, 만 12세는 53.8%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부모나 조손가구 아동의 경우 30분 이상 보호자 없이 있는 것이 거의 매일이라는 비율은 15.2%로 다른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0~5세 아동 방과후 방치 정도(2018)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주 0~5세 아동의 부모가 응답한 결과임.

6~12세 아동 방과후 방치 정도(2018)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주 6~12세 아동의 부모가 응답한 결과임.

#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



**지표정의**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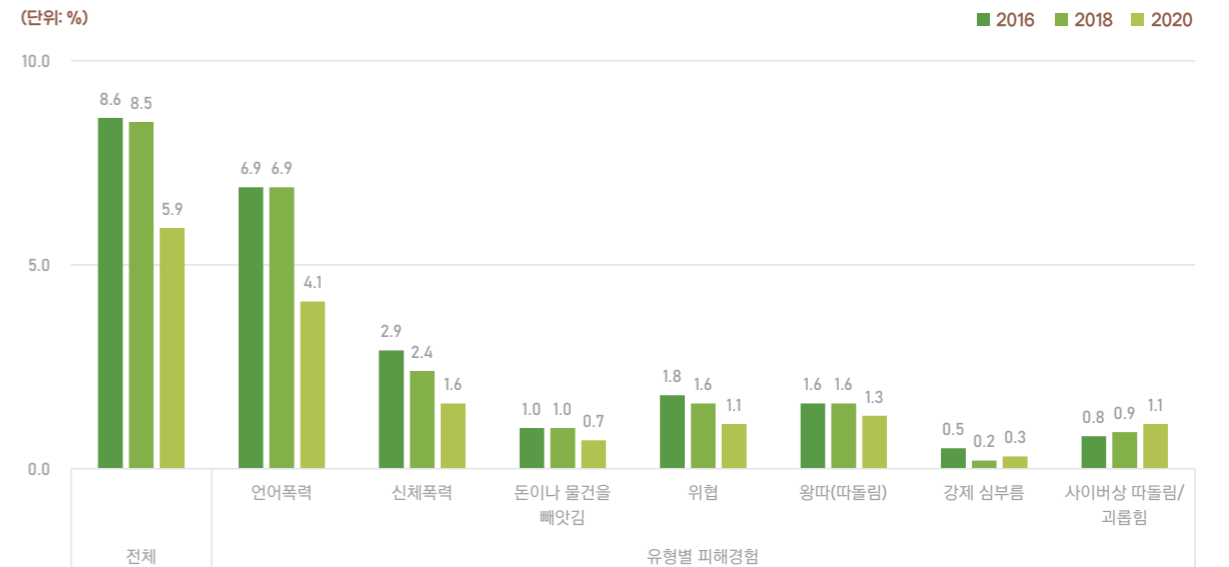
**측정방법** 최근 1년동안 다른 학생, 친구, 선배로부터 유형별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유형별 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위협, 왕따(따돌림), 강제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괴롭힘

- 일과 중에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래와의 관계에 민감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또래폭력 피해 경험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집단폭행이나 자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6년 8.6%에서 2018년 8.5%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등교횟수와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따라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도 5.9%로 감소하였다.

- 유형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또래폭력 유형 중에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체폭력’, ‘위협’, ‘왕따’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20년에는 각 유형별 비율이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사이버상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2018년 0.9%에서 2020년 1.1%로 증가하여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2016~2020)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 ① 전체 경험률은 제시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② 유형별 피해경험은 중복응답을 집계한 것임

#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교통사고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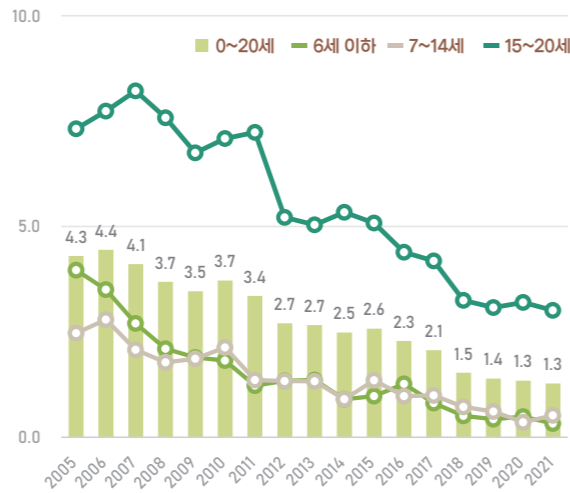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0~20세

**측정방법** (0~20세 교통사고 사망자 수 ÷ 0~20세 추계인구) × 100,000

-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에서 운수사고가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 0~20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5년 4.3명에서 2021년 1.3명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연령**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21년 15~20세가 3.0명으로 가장 많으며 7~14세 0.5명, 6세 이하 0.3명이다.
-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15년 이후로 201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 연령대별로 비교할 때 사망자 수와 동일하게 15~20세 부상자 수가 2021년 13,212명으로 가장 많지만 2020년 15,291명에서 줄어든 반면 6세 이하와 7~14세 부상자 수는 각각 2020년 4,634명, 7,498명에서 2021년 4,776명, 8,093명으로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률(200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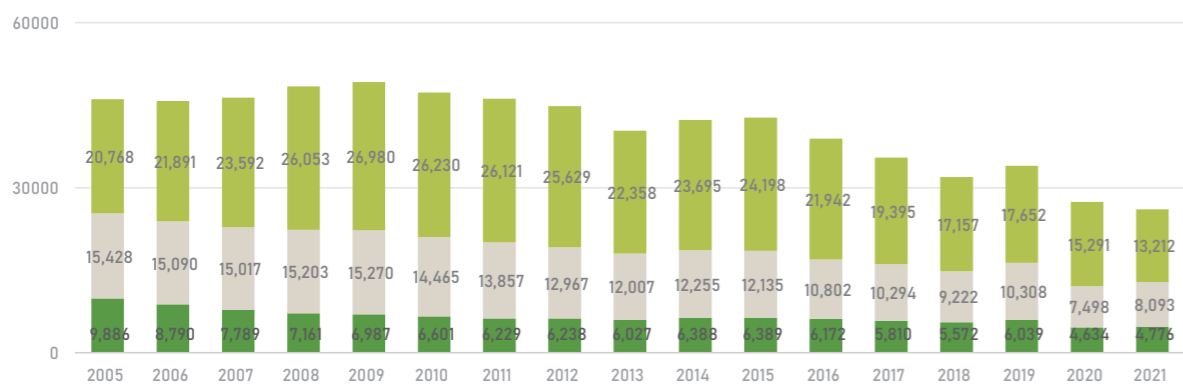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부상자 수(2005~2021)

(단위: 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강력범죄 피해를



**지표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강력범죄(홍악,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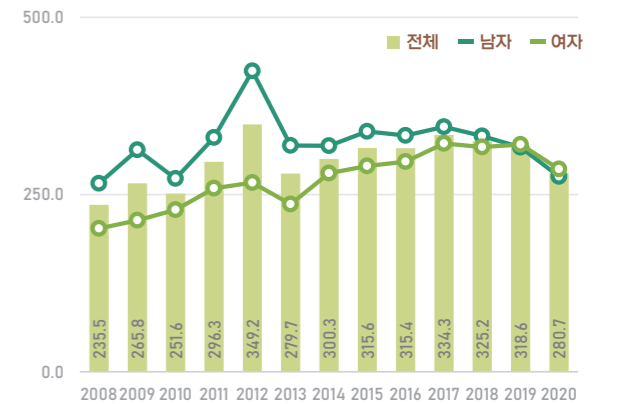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0~20세

**측정방법** (0~20세 강력범죄 피해자 수 ÷ 0~20세 주민등록인구) × 100,000

- 범죄로 인한 피해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그 중 강력범죄는 피해나 두려움이 다른 범죄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범죄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
- 홍악범죄와 폭력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강력범죄 피해율은 2013년 10만 명당 279.7명 이후로 2017년 334.3명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318.6명에서 2020년 280.7명으로 급감했다.
- **성** 2018년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더 많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여자 피해자가 각각 320.6명, 286.1명으로 남자('19년 316.7명, '20년 275.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강력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16~20세가 722.1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3~15세가 349.7명으로 많다. 7~12세 피해자는 71.9명, 0~6세 피해자는 13.9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강력범죄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율(2008~2020)

(단위: 명/1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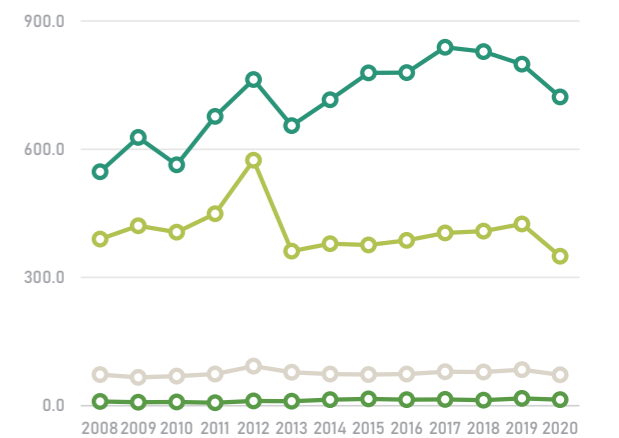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강력범죄에는 홍악범죄와 폭력범죄 포함됨

연령별 강력범죄 피해율(2008~2020)

(단위: 명/10만 명)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강력범죄에는 홍악범죄와 폭력범죄 포함됨

# 흡연율



지표정의 흡연하는 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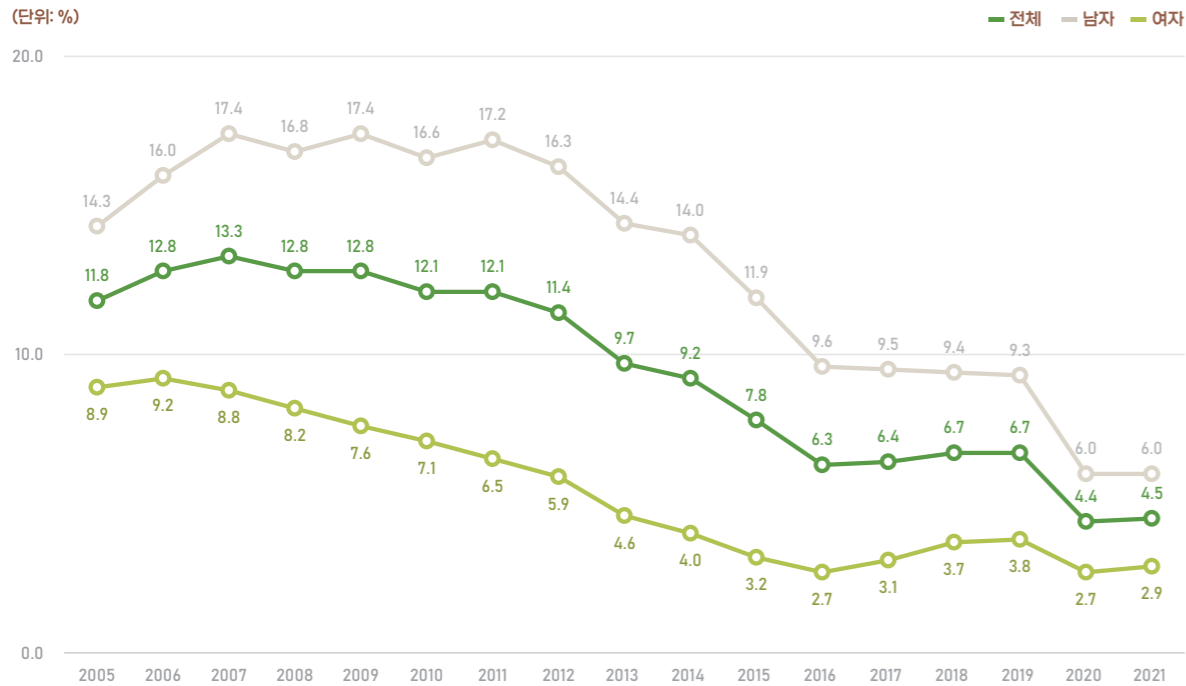
측정방법 최근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흡연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

- 흡연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지만, 아동·청소년에게 흡연은 건강 뿐 아니라 위험행동 중 하나이다. 신체발달이 덜 끝난 청소년의 신체에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성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독의 위험이 높고, 다른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2007년 흡연율이 13.3%로 최고 수치를 찍은 이후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율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6%대를 유지하던 흡연율이 2020년 4.4%로 급락했지만 2021년에 4.5%로 소폭 상승했다.

- **성** 2010년대 초반에는 남학생의 흡연율이 여학생보다 최대 10.7%p(2011년)까지 차이 났었지만 최근 성별 간 흡연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에는 3.1%p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흡연율은 2020년과 2021년 6.0%로 동일한 반면 여학생의 흡연율은 2020년 2.7%에서 2021년 2.9%로 소폭 상승했다.

흡연율(2005~2021)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음주율



지표정의 음주하는 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측정방법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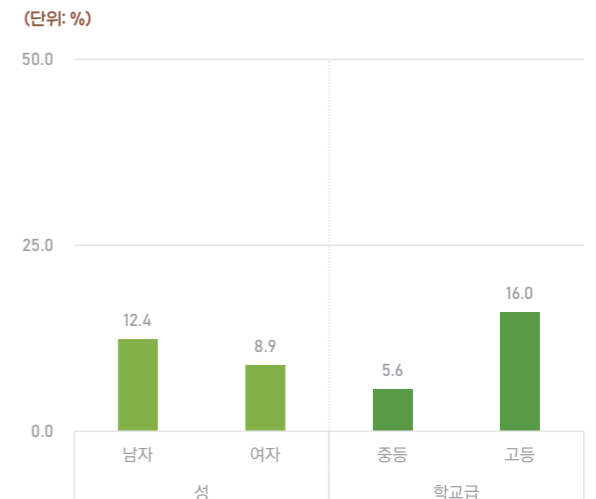
- 흡연과 마찬가지로 음주 또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건강의 위험요인 뿐 아니라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행동이다. 또한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다른 범죄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범죄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 아동·청소년의 음주율은 2005~2007년에는 20% 후반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5%까지 감소하였다.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감소폭이 더 커져 10.7% 정도로 나타났다.
- **성 및 학교급** 2021년 기준 남학생의 음주율이 12.4%로 여학생(8.9%)보다 높으며, 중학생의 음주율은 5.6%, 고등학생의 음주율이 16.0%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 3배 이상 더 높다.

음주율(2005~2021)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성·학교급별 음주율(2021)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소년범죄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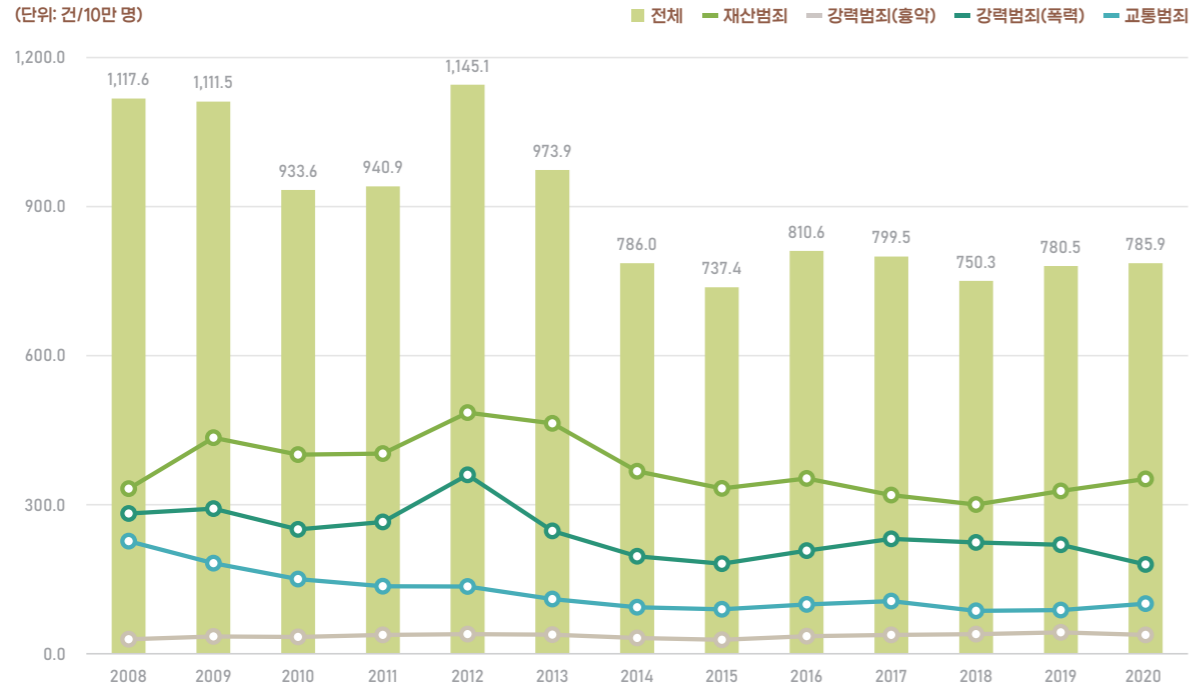
**지표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해당연령** 만 14~18세

**측정방법** (14~18세 인구의 범죄발생 건수 ÷ 14~18세 주민등록인구) × 100,000

-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주변에 휩쓸려 범죄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소년범죄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개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범죄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1,117.6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3년 973.9건, 2018년 750.3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소폭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0년에는 785.9건으로 나타났다.
- 소년범죄 유형 중 재산범죄가 인구 10만 명당 351.7건으로 가장 많으며 2018년 이후로 증가추세이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179.7건으로 많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중지와 외부활동이나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2019년에 비해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하였다. 흉악범죄는 발생률이 가장 적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범죄 발생률(2008~2020)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주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피의자를 의미하며, 2018년 이전은 10~18세, 2018년부터 14세 미만은 제외되어 14~18세임

# 가출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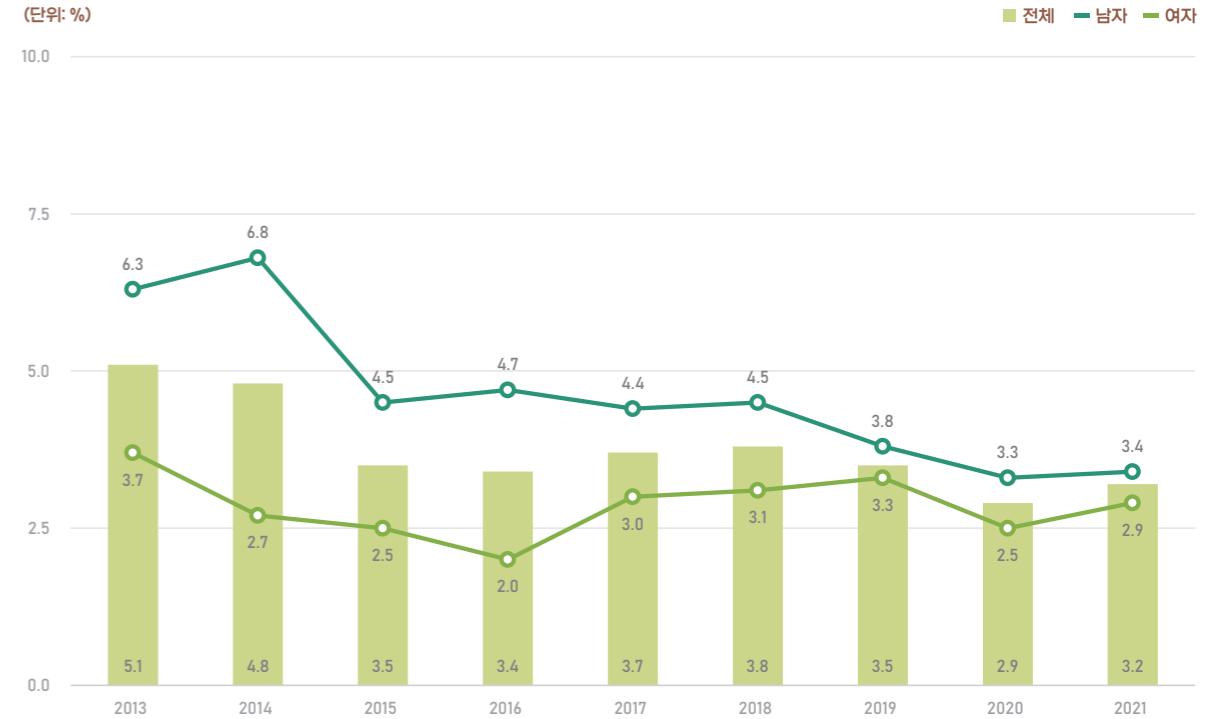
**지표정의**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측정방법**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가출은 보호자로부터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2013년 5.1%에서 2015년 3.5%로 감소한 이후 전체적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2.9%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 다시 3.2%로 상승했다.
- 성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여자보다 1~2%p 정도 더 높았으나 2019년 이후로 성별 간 가출 경험률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2020년 2.5%에서 2021년 2.9%로 남자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률(2013~2021)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지표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 및 잠재적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3~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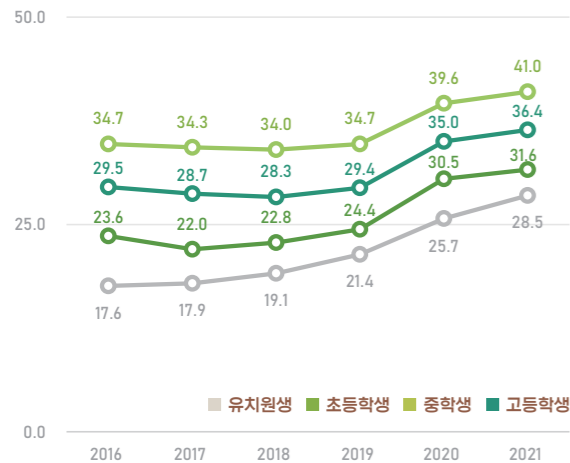
**측정방법**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세 개 하위항목의 10개 문항에 대한 4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 중 세 가지 유형별 특성 중 한 개 이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율

-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을 편의를 도와주는 도구이지만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학업이나 신체활동 시간의 감소, 다양한 유해환경 노출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이용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6년 이후 증가추세로 2021년 만 3~9세의 28.4%, 만 10~19세의 37.0%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3~9세의 경우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학교급** 2021년 기준 중학생이 41.0%로 전 학교급에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36.4%로 높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또한 각각 28.5%, 31.6%로 낮은 편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수업과 외부활동의 감소로 인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든 학교급에서 2020년에 전년보다 최소 4.3%p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6.1%p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학교급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2016~2021)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주**①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② 만3~9세는 보호자가 응답한 내용임.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2016~2021)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주**①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② 만3~9세는 보호자가 응답한 내용임.

# 07

## 관계

아동·청소년이 가정, 학교,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 Key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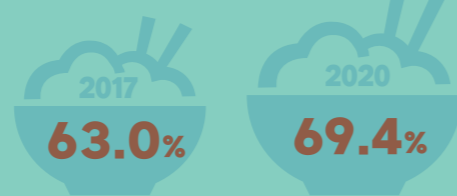
#### 평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사회 신뢰도



#### 가족과 주 4회 이상 저녁식사



### Indicators

세부영역	지표명	주기	이전년도	최근년도	해당연령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어머니, 평일	3년	8.4시간(2018)	7.9시간(2021)	0~5세
	아버지, 평일	3년	3.6시간(2018)	4.0시간(2021)	
가족관계	가족과의 식사 빈도(주 4회 이상)	3년	63.0%(2017)	69.4%(2020)	9~18세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공부시간 및 방법)	1년	91.0%(2020)	91.1%(2021)	초4~고3
	가족관계 만족도	3년	-	8.19점/10점(2020)	9~18세
또래관계 및 일반관계	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일주일에 1회 이상)	3년	-	83.7%(2018)	3~8세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2년	90.1%(2019)	84.2%(2021)	13~18세
	친구관계 만족도	3년	-	7.89점/10점(2020)	9~18세
	사회 신뢰도	3년	5.52점/10점(2017)	5.89점/10점(2020)	13~18세

#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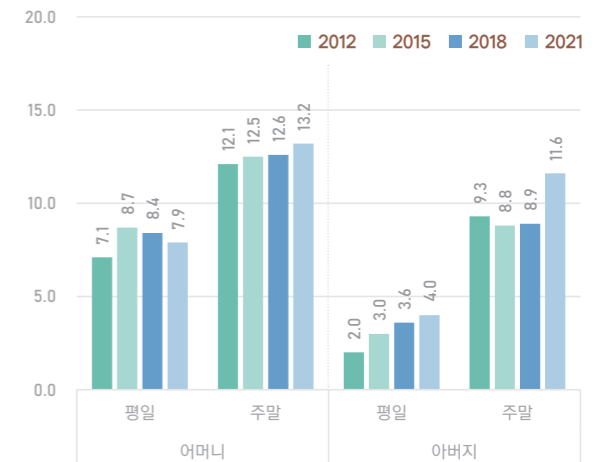
**지표정의** 영유아가 평일과 주말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해당연령** 만 0~5세

**측정방법** 아동의 주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이 평일과 주말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보낸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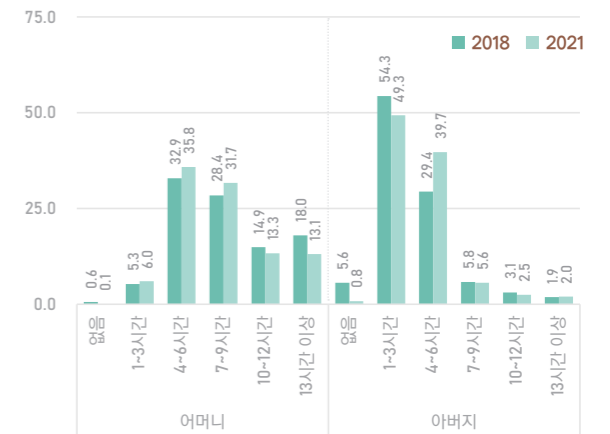
-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영유아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큰 역할을 하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지만 영유아가의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 평일에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이 2012년 7.1시간에서 2015년 8.7시간으로 급증한 이후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별 비율을 보면 13시간 이상인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일과 반대로, 주말에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매년 증가하면서 영유아들이 2021년 주말에 평균적으로 어머니하고 13.2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가 늘어나면서 평일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평일에 아버지와 보내는 평균 시간이 4시간으로 2012년 2시간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주말에 아버지와 보내는 평균 시간이 감소했거나 같은 수치를 유지했으나 2018년 8.9시간에서 2021년 11.6시간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의 이러한 증가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이후의 시계열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2012~2021)  
(단위: 시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주 이통의 주양육자가 응답한 내용임.

부모와 함께 보내는 평일 시간대별 비율(2018, 2021)  
(단위: 시간)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주 이통의 주양육자가 응답한 내용임.

# 가족과의 식사빈도



**지표정의**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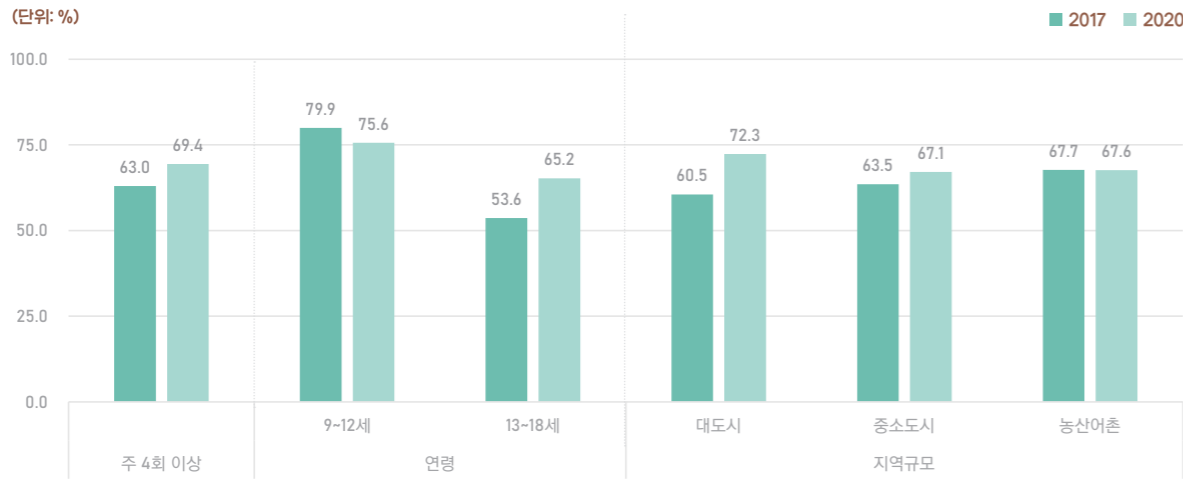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최근 1년동안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주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 그 중 식사는 필수적인 행동으로 가족과의 식사 빈도는 가족들끼리 기본적인 생활시간을 얼마나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 4회 이상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63.0%에서 2020년 69.4%로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9~12세는 2017년 79.9%에서 2020년 75.6%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13~18세는 2017년 53.6%에서 65.2%로 10%p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외부활동 제한 등 청소년과 부모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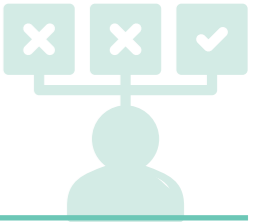
- **지역규모**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2020년 72.3%로 가장 높으며, 2017년 60.5%에서 11.8%p 증가하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역시 63.5%에서 67.1%로 상승한 반면, 농어촌의 경우 2017년 67.7%에서 2020년 67.6%로 거의 차이가 없다. 2017년에 농어촌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시계열 비교가 더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농어촌보다 대도시에서 더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족과의 식사빈도(2017, 2020)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지표정의** 가족 내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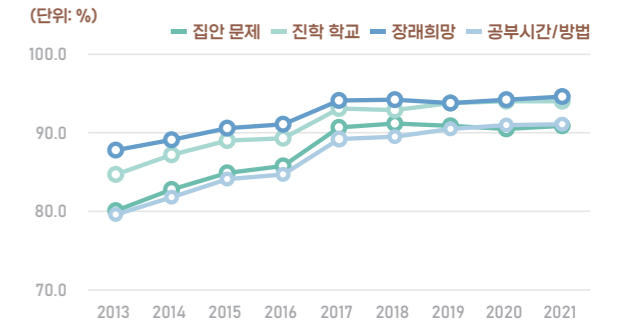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측정방법** 가정 내 의사결정 상황(집 안의 중요한 문제, 진학할 상급학교, 장래희망, 공부 시간이나 방법)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 가족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2013년에는 집안 문제나 공부시간/방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 정도로 진학 학교(84.7%)나 장래희망(87.8%)보다 4.7~7.8%p 낮았으나 2021년 기준 집안문제와 공부시간/방법에 대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0.9%, 91.1%로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진학학교와 장래희망에 대해 존중 받는다는 비율이 각각 94.0%, 94.6%로 증가하여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존중 받는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다.
-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비율이 높다. 성적이 '상'인 집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중'인 집단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하'인 경우 학교성적인 높은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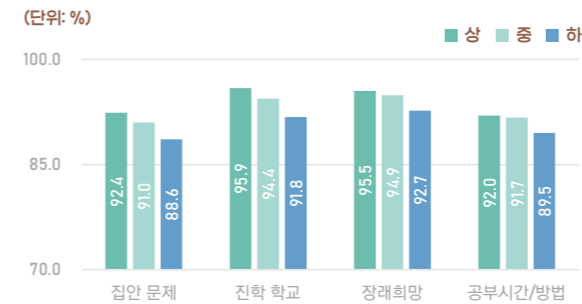
- **가족유형** 양부모가구과 한부모가구의 아동·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에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조손가구의 아동·청소년들이 집안문제(86.4%)에서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의견을 덜 존중 받지만 진학학교, 장래희망, 공부시간/방법 등에서 오히려 다른 아동·청소년보다 더 존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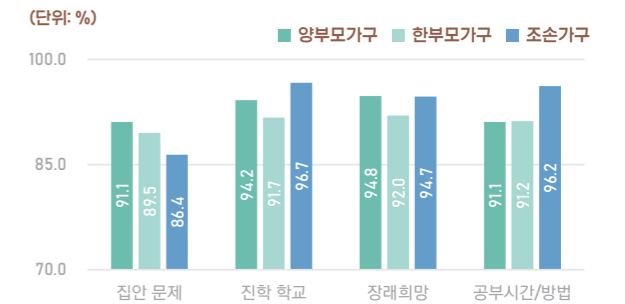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학교성적별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2021)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족유형별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2021)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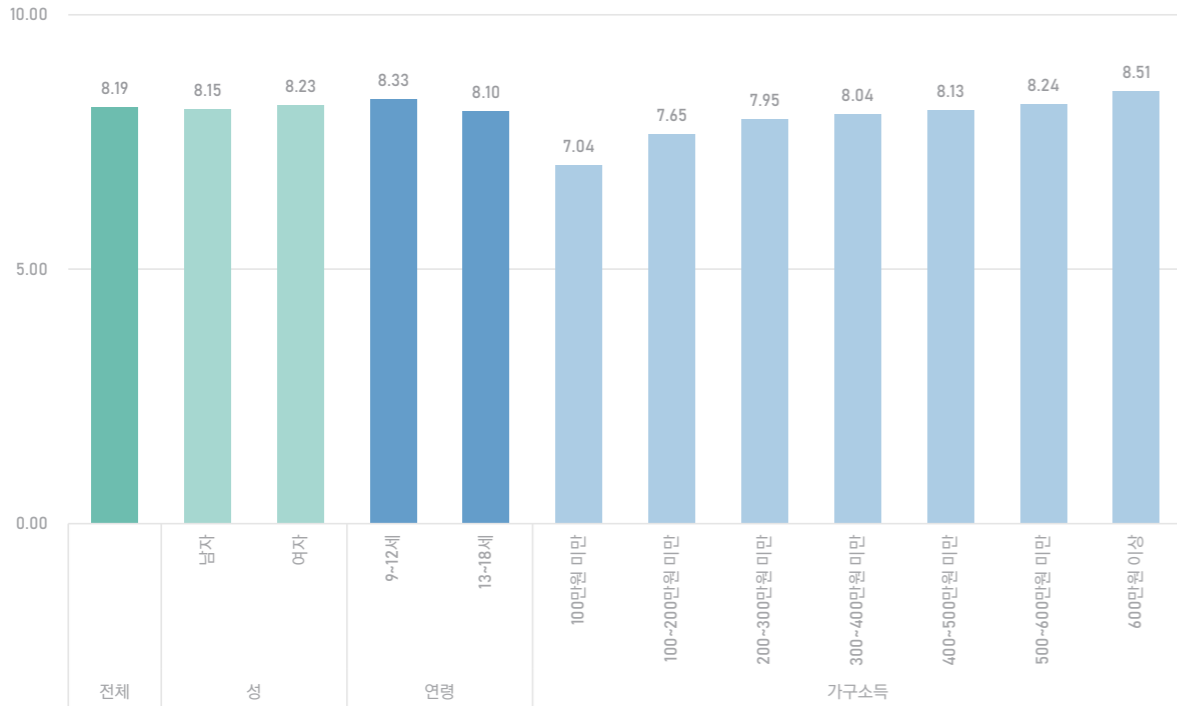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현재의 가정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11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

-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 상 건강한 정서 발달에 가족관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0~10점 척도 평균 8.19점이다.
- **성 및 연령** 남자(8.15점)보다 여자(8.23점)가, 연령대가 낮을수록(9~12세 8.33점, 13~18세 8.10점) 가족관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0년 기준 7.04점인 반면 600만원 이상인 아동·청소년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8.51점으로 1.47점의 차이를 보인다.

가족관계 만족도(2020)

(단위: 점/10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



**지표정의** 또래 친구와 어울려 노는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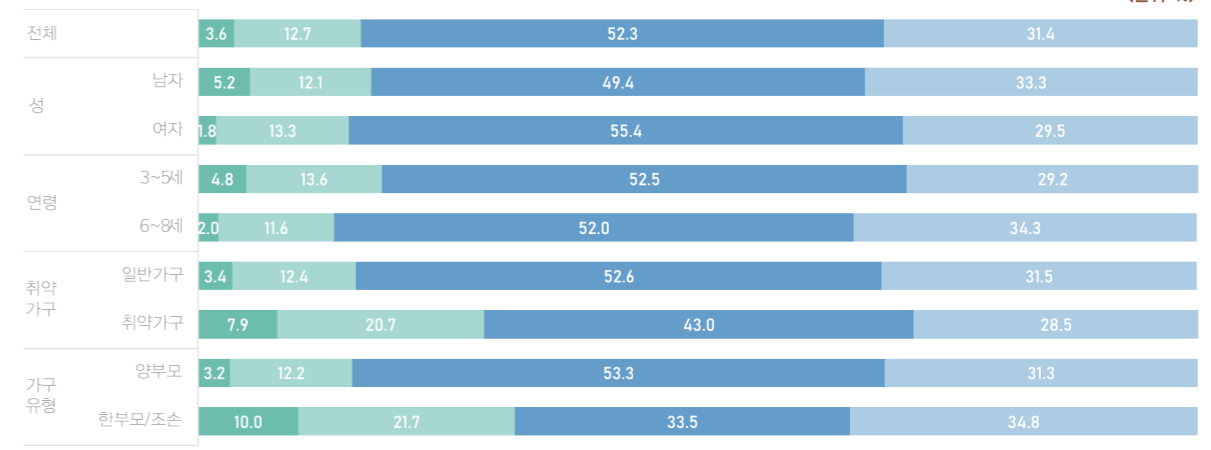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3~8세

**측정방법** 주 양육자가 해당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 아동에게는 가족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또래와의 관계 형성 역시 아동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중요하다. 2018년 기준 만 3~8세 아동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친구와 노는 비율은 83.7%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거의 매일 친구와 노는 비율은 31.4%이다.
- **성**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주 1회 이상 친구와 노는 비율이 약간 더 높으나, '거의 놀지 않는다'(남자 5.2%, 여자 1.8%)와 '거의 매일'(남자 33.3%, 여자 29.5%) 노는 비율은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높다.
- **연령** 3~5세의 미취학아동보다는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더 많아지는 6~8세의 취학연령에서 친구들과 주1회 이상 노는 비율이 86.3%로 더 높고, 거의 놀지 않는다는 비율도 2.0%로 낮다.
- **취약가구**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를 비교할 때 일반가구 아동의 84.1%가 주1회 이상 친구와 노는 반면, 취약가구 아동은 71.5%로 낮고, '거의 놀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7.9%로 높은 편이다.
- **가구유형** 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 중 '거의 매일' 친구와 노는 아동의 비율은 34.8%로 양부모가구의 아동(31.3%)보다 높지만, '거의 놀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10.0%로 높게 나타나서 양부모가구의 아동과 차이를 보인다.

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2018)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주① 주양육자가 응답한 내용임.

②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금 수급자 중 만 0~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임.

#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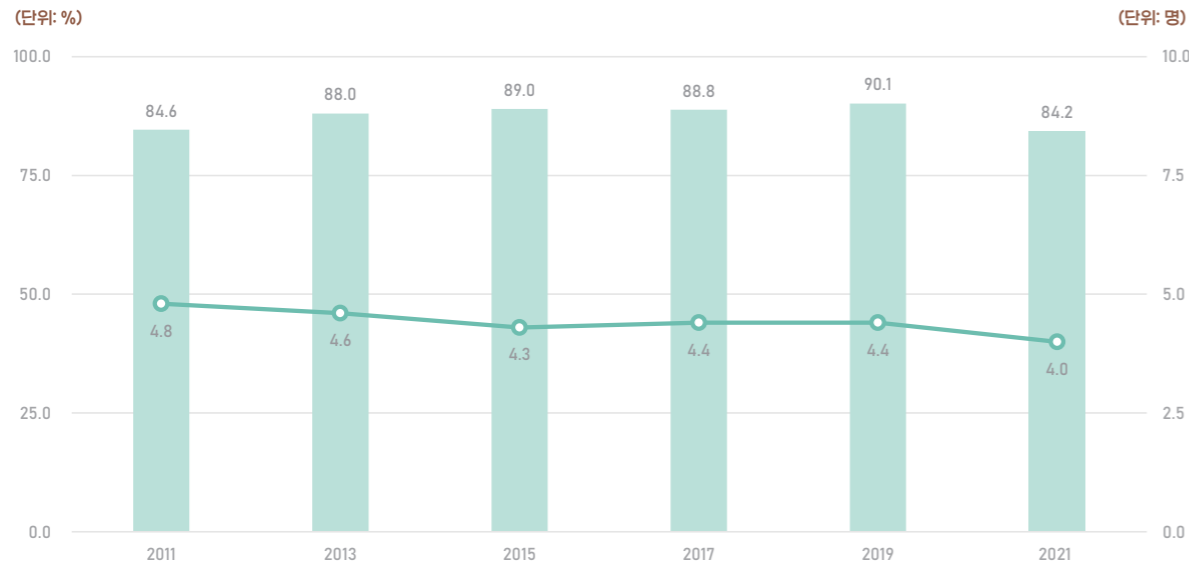
**지표정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청소년의 비율

**해당연령** 만 13~18세

**측정방법** '낙심하거나 우울하여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단순히 놀이를 위한 관계라기 보다는 또래들과의 다양한 활동과 생각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연령으로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힘들 때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청소년이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해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이후로 2017년을 제외하고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비율이 84.2%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평균 인원**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사람들 중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평균 인원을 보면 2011년 4.8명에서 2015년 4.3명까지 계속 감소한 이후로 4.4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 4.0명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2011~202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

# 친구관계 만족도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친구와의 관계에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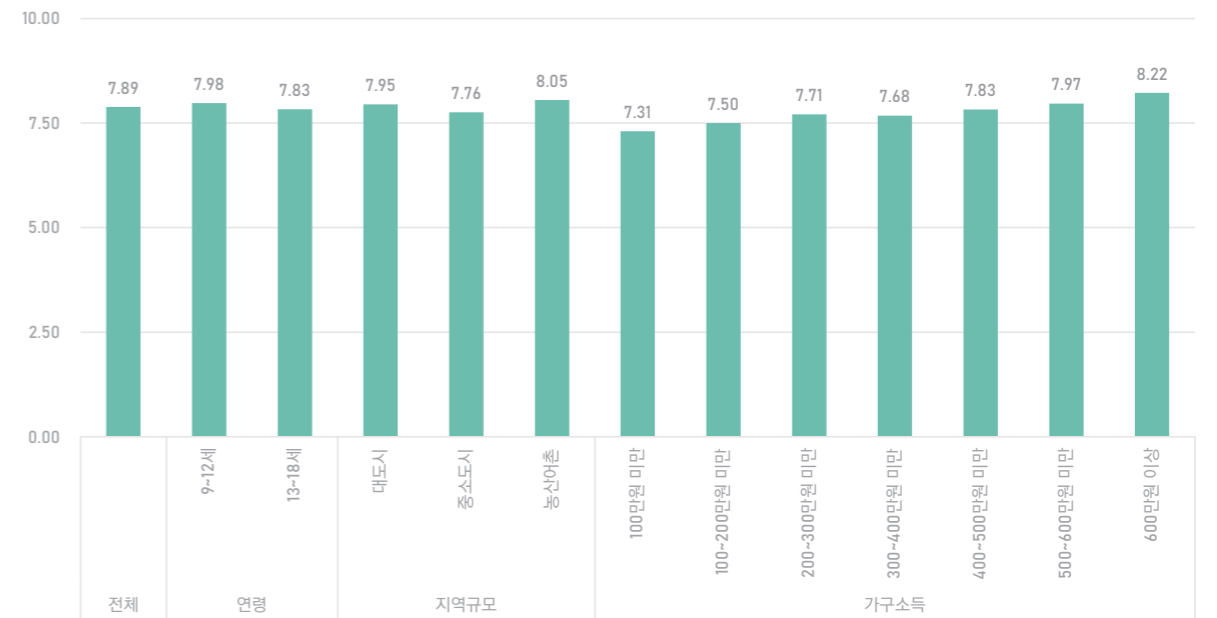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친구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11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

- 아동·청소년기에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형성은 차후에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민감한 경우가 많아 친구관계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다.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10점 중 7.89점으로 나타났다.
- **연령** 9~12세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7.98점인 반면 13~18세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7.83점으로 나타나 낮은 연령대에서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 **지역규모** 농어촌 거주 아동·청소년이 8.05점으로 친구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가 7.95점, 중소도시는 7.76점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아동·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7.31점인 반면, 600만원 이상인 아동·청소년은 8.2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올라갈수록 아동·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만족도(2020)

(단위: 점/10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사회 신뢰도



**지표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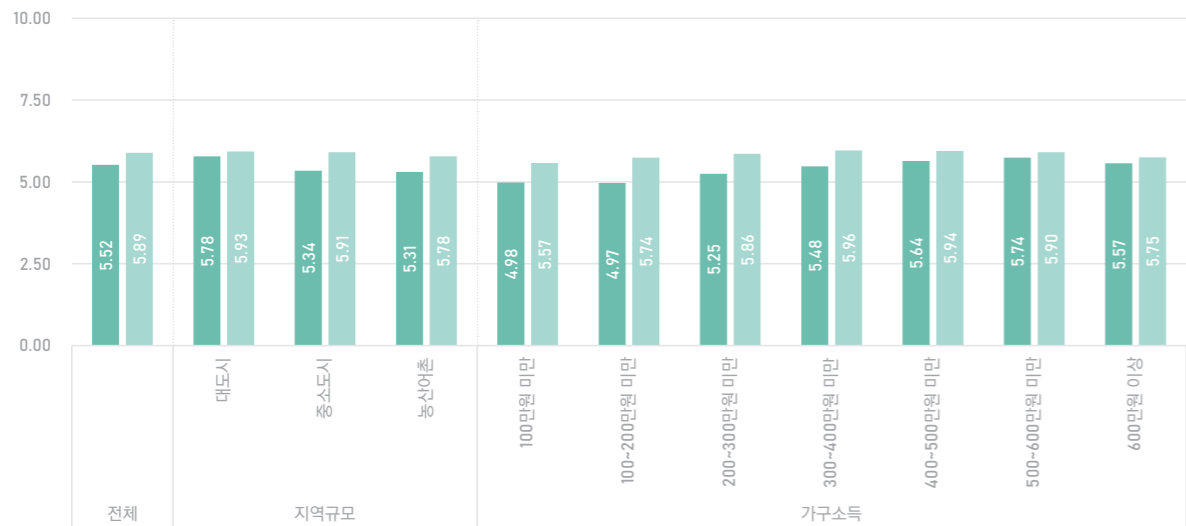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13~18세

**측정방법**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1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

-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여주는 아동·청소년의 사회 신뢰도는 2020년 5.89점으로 2017년 5.52점과 비교해 과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10점이 최고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지역규모**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대도시 거주 아동·청소년의 사회신뢰도는 2017년 5.78점에서 2020년 5.93점으로 증가폭이 비교적 작은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 아동·청소년의 사회 신뢰도는 각각 2017년 5.34점, 5.31점에서 2020년 5.91점, 5.78점으로 증가했다.
- **가구소득** 2017년에는 가구소득별로 비교할 때 6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 신뢰도가 낮았다. 가구소득이 500~600만원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5.74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사회 신뢰도는 5점 미만으로 낮았다. 2020년에는 모든 집단에서 사회 신뢰도가 올라갔지만 특히 100~200만원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사회 신뢰도가 5.74점까지 올라가는 등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신뢰도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사회 신뢰도(2017, 2020)

(단위: 점/10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08

## 주관적 웰빙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의미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역

### Key Indicators

#### 삶의 만족도

2017 6.99점



2020 6.80점



####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2017 6.95점

2020 6.86점

### Indicators

세부영역	지표명	주기	이전년도	최근년도	해당연령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3년	6.99점/10점(2017)	6.80점/10점(2020)	9~18세
긍정/부정감정	긍정정서	3년	7.29점/10점(2017)	7.19점/10점(2020)	9~18세
	부정정서	3년	2.67점/10점(2017)	2.94점/10점(2020)	9~18세
삶의 가치와 의미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3년	6.95점/10점(2017)	6.86점/10점(2020)	9~18세

# 삶의 만족도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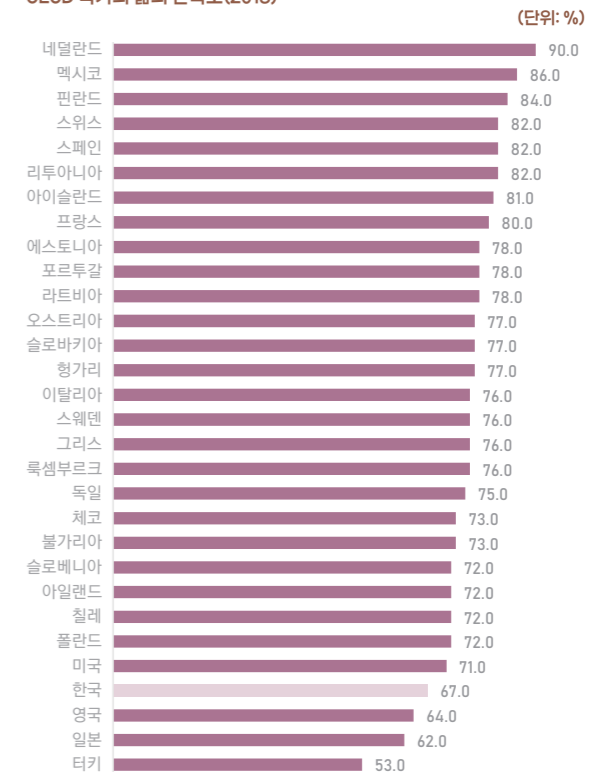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11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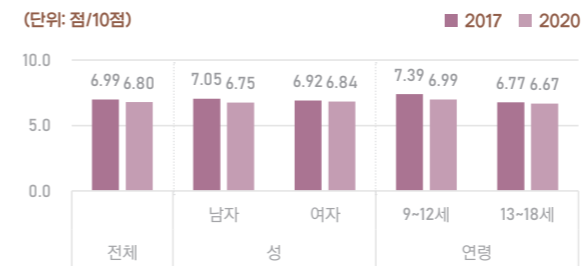
- **인지적 측면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0년 10점 만점 중에서 6.80점으로 2017년 6.99점에서 소폭으로 감소했다.
- **성** 2017년에는 남자가 7.05점으로 여자(6.92점)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여자가 6.84점으로 남자(6.75점)보다 삶에 더 만족하고 있다. 다만 2020년에 삶의 만족도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 동일하다.
- **연령** 2020년 기준 9~12세의 삶의 만족도는 6.99점, 13~18세는 6.67점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9~12세는 7.39점, 13~18세 6.77점으로 삶의 만족도 하락폭이 9~12세가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령대가 어릴수록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국제비교** 만 15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비교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67% 정도로 OECD 비교 대상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64%), 일본(62%), 터키(53%)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2018)



성·연령별 삶의 만족도(2017, 2020)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출처 UNICEF Innocenti,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6(원출처: OECD PISA 자료 활용)

주① 만 15세를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측정결과임.  
 ②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0~10점 척도 응답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임.



# 긍정정서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행복)를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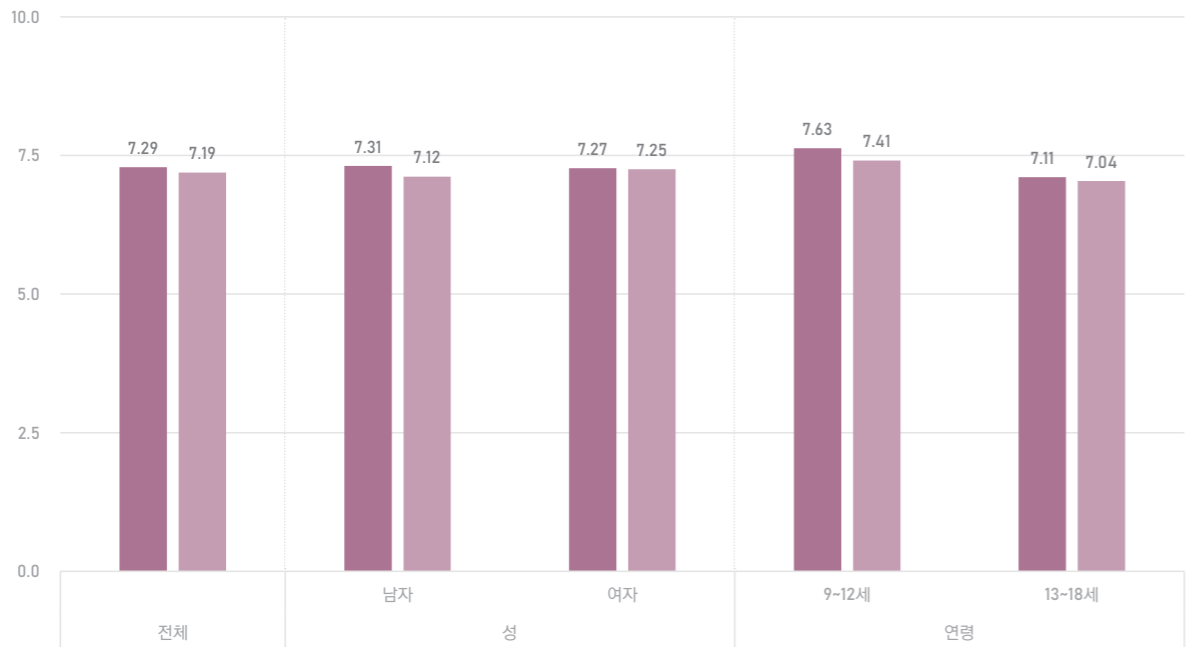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에 대한 11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

-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 중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지표인 긍정정서는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로 측정된다. 2017년 긍정정서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7.29점이었으나 2020년에는 7.19점으로 소폭이지만 감소하였다.
- **성** 남자와 여자의 긍정정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남녀 모두 감소했으나 남자의 감소폭이 더 커서 2020년 여자의 긍정정서가 약간 더 높다.
- **연령** 2017년에는 9~12세가 7.63점으로 13~18세(7.11점)보다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에는 9~12세가 7.41점, 13~18세가 7.04점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9~12세가 2020년에 긍정정서의 하락폭이 더 컸다.

긍정정서(2017, 2020)

(단위: 점/10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부정정서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정서(근심·걱정, 우울)를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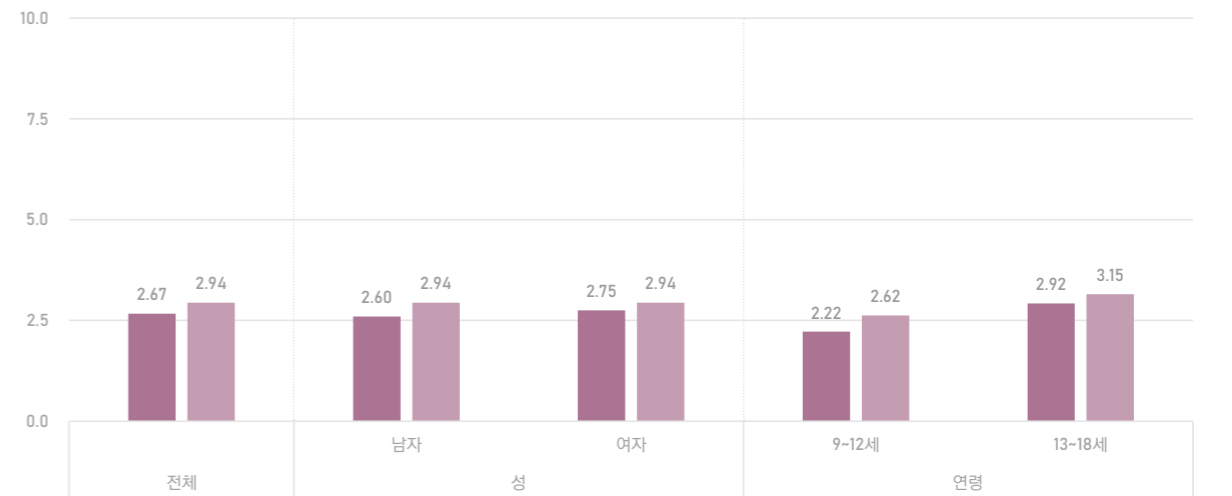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어제 얼마나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는지, 우울하였는지에 대한 11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

-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 중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지표인 부정정서는 어제 '근심·걱정'과 '우울'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로 측정된다. 2017년 아동·청소년의 부정정서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2.67점이었으나 3년 뒤인 2020년에 2.94점으로 0.27점 상승하여 부정적 정서경험이 증가했다.
- **성** 남녀 모두 2017년보다 2020년에 부정적 정서경험을 더 자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정서 지표에서 보인 경향과 비슷하다. 남자의 경우 2017년 2.60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0.34점 증가했고, 여자는 2017년 2.75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0.19점 증가했다.
- **연령** 연령대별 부정정서 역시 긍정정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9~12세 아동·청소년의 부정정서는 2017년 2.22점에서 2020년 2.62점으로 0.4점 증가했고, 13~18세는 2017년 2.92점에서 2020년 3.15점으로 0.23점 증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정정서(2017, 2020)

(단위: 점/10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지표정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삶에 대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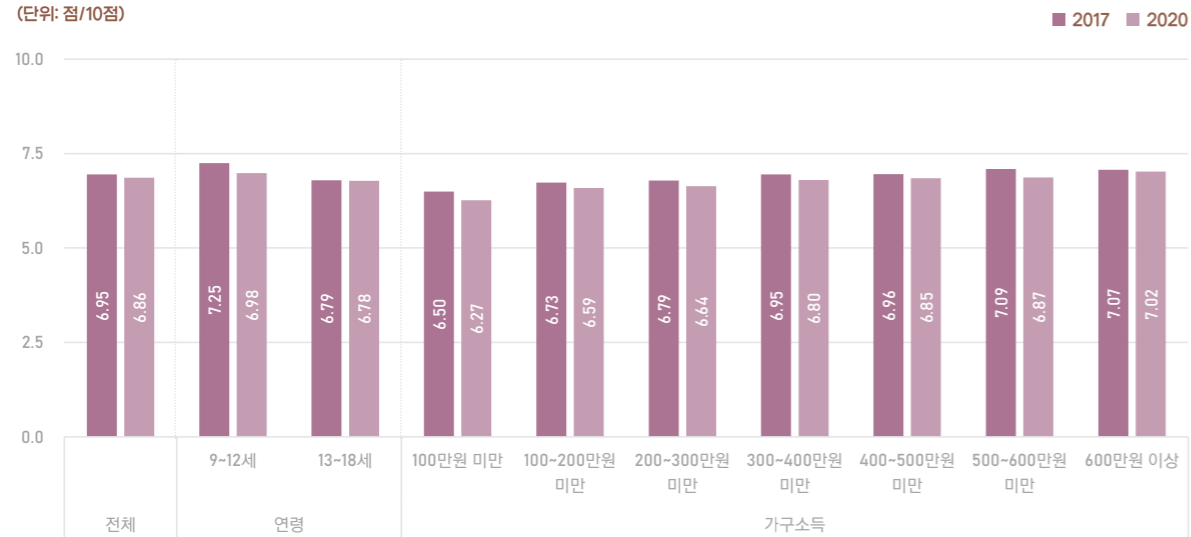
**해당연령** 만 9~18세

**측정방법**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1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

-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주관적 웰빙 측정 지표 중 하나이다. 2020년 만 9~18세 아동·청소년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6.86점으로 2017년 6.95점에서 소폭으로 감소했다.
- **연령** 9~12세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2017년 7.25점, 2020년 6.98점으로 동일연도 기준 13~18세(2017년 6.79점, 2020년 6.78점)보다 더 높다. 하지만 2017년에서 2020년의 하락폭이 13~18세보다 더 크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가구의 아동·청소년이 삶의 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기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6.27점에 불과하나 600만원 이상에서는 7.02점으로 높다.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2017, 2020)

(단위: 점/10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 A R T

# 3

## 부록

1. 지표 정의서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참여연구진 및 도움주신 분들

## 1. 지표 정의서

### 이 사회적 배경

#### 아동·청소년 추계인구

정의	전체 추계인구 대비 0~17세 추계인구 비율
의의	아동·청소년 인구의 시계열 변화와 앞으로의 아동·청소년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측정방법	$(0\sim 17\text{세 인구} \div \text{총인구})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10만 명당 사망자 수

정의	0~17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의의	사망자수와 사망원인 변화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측정방법	$(\text{사망자 수} \div \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맞벌이 가구 아동 비율

정의	양부모와 같이 사는 0~17세 아동 중 부모가 맞벌이인 아동의 비율
의의	맞벌이 가구의 아동은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돌봄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출처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측정방법	$(\text{부모가 맞벌이인 아동} \div 0\sim 17\text{세 양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한부모 가구 아동 비율

정의	만 0~17세 아동 중 한부모와 사는 아동의 비율
의의	한부모 가구의 아동은 돌봄공백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아동돌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통계청,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측정방법	$(\text{한 부모와 사는 아동} \div 0\sim 17\text{세 아동})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정의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의의	취학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현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측정방법	$(\text{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div 0\sim 5\text{세 추계인구})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5세

####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정의	전체 어린이집 중 설립 주체가 국공립인 어린이집 수
의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운영 주체에 따른 질적 차이가 매우 크며, 영유아 돌봄 분야 공공성 강화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측정방법	$(\text{국공립 어린이집} \div \text{전체 어린이집})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5세

#### 학급당 학생수

정의	학교급별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의의	교육정책의 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측정방법	$\text{학생 수} \div \text{학급 수}$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 장애아동 통합교육 비율

정의	특수교육대상자수 대비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의의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측정방법	$(\text{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div \text{특수교육대상자 수}) \times 100$ 특수교육대상자수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를 합한 수치임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비율

정의	만 0~17세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아동의 비율
의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측정방법	$(\text{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div 0\sim 17\text{세 추계인구})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정의	만 0~17세 아동인구 10만 명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
의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보호정책의 개입방향을 검토하고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측정방법	$(\text{신규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총계} \div 0\sim 17\text{세 추계인구}) \times 100,0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시설가정위탁보호아동 수

정의	만 0~19세 인구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수
의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측정방법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만 포함하였으며 가정위탁보호아동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고등학생까지만 포함하여 집계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9세(아동복지시설은 해당 시설의 전체 아동수를 기준으로 함.)

### [보조지표] 국내외 아동 입양비율

정의	국내외 입양 아동의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측정방법	국내입양 비율 = (국내입양 아동 수 ÷ 총계) × 100, 국외입양 비율 = (국외입양 아동 수 ÷ 총계) ×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9세

## 02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 물질적 결핍지수

정의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적인 물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의의	소득 뿐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의 결핍을 보여주는 지표 (국제비교가 가능하나 연령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함.)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물질적 결핍지수를 측정하는 1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결핍으로 응답한 비율 * 유니세프 이노센티innocenti의 14개 항목 아동결핍지수를 활용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0~17세
조사표 항목	0~8세는 보호자 응답항목

####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01.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1	0
02.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1	0
0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1	0
04. 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학교 교재 제외)	1	0
0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1	0
0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1	0
0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적어도 형제자매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 포함)	1	0
08. 우리 집은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낼 수 있다	1	0
09. 우리 집은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	1	0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	0

항목	예	아니오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	0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1	0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다	1	0
14.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	1	0
15. 인스턴트 식품(예: 라면, 햄버거, 콜라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1	0
16.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해외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1	0
17.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국내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1	0

### 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

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정도
의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아동들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한 4점 척도(‘전혀 걱정하지 않는다’~‘항상 걱정한다’) 응답의 평균점수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9~17세
조사표 항목	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 1.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2. 가끔 걱정한다 3. 자주 걱정한다 4. 항상 걱정한다

### 상대적 빈곤율

정의	상대적인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의의	빈곤층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측정방법	가구소득이 상대적 빈곤선(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거주지역 편의성

정의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 내에 이용가능한 유형별 편의시설의 유무
의의	교육 및 의료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토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지역사회에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도보 10분 이내), 자연환경(도보 20분 이내)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조사표 항목	보호자 응답항목

#### 귀댁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물음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역 내 생활환경	예	아니오
1. 문화·체육시설(시립체육관, 도서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지역 내 생활환경	예	아니오
2.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3.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4.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5.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가능하다	1	0
6.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	0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거 비율

**정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100-490호, '11.5.27)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기준 및 면적기준** 가구원수별 방수 및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구원수(인)	1	2	3	4	5	6
방수(개)	1	1	2	3	3	4
면적(㎡)	14	26	36	43	46	55

**의의** 주거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된 지표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측정방법** (0~17세 아동이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 0~17세 아동이 있는 가구) ×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초미세먼지 농도

**정의** 대기 중 미세먼지(PM<sub>2.5</sub>)의 농도

**의의** 미세먼지 농도는 호흡기질환과 관련이 높을 뿐 아니라 아동의 외부활동과도 연관되어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음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측정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당 시도 추계인구로 가중한 평균농도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전국기준

## 03 건강

### 스트레스 인지율

**정의**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의의**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측정방법**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조사표 항목**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낀다    ③ 조금 느낀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자살률

**정의** 해당 연령 대비 자살로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자 수

**의의** 자살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요인이 합쳐져서 발생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측정방법** (0~17세 자살자 수 ÷ 0~17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보조지표] 자살생각 비율

**정의**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조사표 항목**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 [보조지표] 자살시도율

**정의**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조사표 항목**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 저체중 출생아 비율

**정의** 전체 출생아 중에서 출생시 저체중으로 태어난 출생아의 비율

**의의** 저체중 출생은 높은 사망위험,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측정방법**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 수 ÷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 × 100

※ 전체 출생아 수에서 체중 미상인 경우는 제외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0세

### 비만을

- 정의**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만인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질병발생 위험이 높음
- 출처** 교육부, 「학생건강검사표본통계」
- 측정방법** 체질량지수(BMI)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인 아동·청소년의 비율, 체질량지수(BMI) = 체중(kg)/[신장(m)]<sup>2</sup>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초·중·고등학생

### 주관적 건강 인지도

- 정의**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지상태를 통해 건강상태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를 보여줌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측정방법**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양호’ 또는 ‘양호’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조사표 항목**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건강한 편이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수면시간

- 정의** 아동·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
- 의의** 수면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생리적 요인으로, 아동·청소년의 수면정도는 낮 시간 동안의 행동, 사고, 기분, 학업 등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애전반의 발달과 건강상태의 건강결정요인이 됨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측정방법**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지난주 주중(월~금) 수면 시간의 평균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조사표 항목**

최근 7일 동안,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잠자리에 든 시각		일어난 시각	
주중(월~금)	시	분	시	분
주말(토~일)	시	분	시	분

### 예방접종률

- 정의** 필수 백신을 모두 접종받은 아동의 비율
- 의의** 예방접종률은 건강검진과 함께 아동의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며, 동시에 예방접종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
- 출처** 질병관리청,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 측정방법** 생후 72개월에 접종해야 하는 백신에 대해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만 1~6세

### 영양결핍률

- 정의** 에너지 및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아동·청소년기 영양결핍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상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측정방법**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필요량 미만인 응답자의 비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만 1~18세

### 규칙적 운동 실천율

- 정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일정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아동의 낮은 신체활동은 대기오염의 증가, 입시 등 학업의 부담, 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측정방법** 최근 7일 동안 신체활동\*을 하루에 60분 이상, 5일 이상 했다고 응답한 비율  
\* 신체활동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 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조사표 항목**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⑦ 주 6일    ⑧ 주 7일

## 04 학습·역량

### 학습시간

- 정의** 아동·청소년이 하루 중에서 학습에 할당하는 시간
- 의의** 우리나라 아동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해 학습시간이 긴 편으로 학교급별 차이를 통해 학습시간을 파악할 필요 있음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측정방법** 하루 24시간 중 주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수업’ 시간과 ‘정규수업 외 학습(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값
- 작성주기** 5년
- 해당연령** 만 10세~고등학생

### 사교육 참여율

- 정의** 유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
- 의의**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측정방법** 조사기간 중 유료로 일반교과목, 논술, 예체능, 교양, 취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방과 후 활동, EBS 강의는 미포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초·중·고등학생

조사표 항목

자녀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과 / 예체능 및 기타(취미, 교양 등)와 관련하여 / 취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자녀가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유료로 진로·진학 학습상담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주관적 학업성취 정도

정의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정도  
 의의 학생들의 인지하는 자신의 학업성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현재 학업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매우 못한다' ~ '매우 우수하다') 응답의 평균점수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9~18세

조사표 항목

현재 학업 성적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우수한 편이다 ⑤ 매우 우수하다

학교생활 만족도

정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의의 학교생활의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에 대한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의 평균점수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9~18세

조사표 항목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5)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학업중단율

정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  
 의의 공교육 과정의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학교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측정방법 (학업중단자 ÷ 학생 수) ×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초·중·고등학생

영유아 언어발달 정도

정의 영유아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정도  
 의의 영유아의 인지 발달 중 언어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작성주기 3년  
 측정방법 주양육자가 응답한 해당 연령별 아동의 전반적 언어발달 정도에 대한 4점 척도('매우 느린 편' ~ '매우 빠른 편') 응답의 평균점수  
 주양육자가 해당 아동의 연령별로 제시된 척도에 대해 응답  
 해당연령 만 0~5세

05 여가·활동참여

평일 여가시간

정의 아동·청소년이 평일 하루 중 여가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의의 평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측정방법 평일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1시간 단위(1시간 미만 ~ 5시간 이상)로 응답한 각 시간대별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조사표 항목

[초등학생]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중·고등학생]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방과 후 활동

정의 아동·청소년이 평일 방과 후에 주로 하는 활동  
 의의 평일 방과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을 파악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평일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 비율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9~17세

조사표 항목

여러분은 지난학기(2018년 2학기) 평일 방과 후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냈습니까?  
 • 방과후 하는 활동(주로 했던 활동)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에서 선택하여 2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스마트폰 사용하기(TV 동영상 시청, 게임하기 등)	② TV 시청	③ 컴퓨터 게임하기
④ 집에서 숙제하기	⑤ 친구들과 놀기(놀이터, PC방 등)	
⑥ 학교에서 남아서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참여하기	⑦ 학원이나 과외	
⑧ 방과후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이나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⑨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	⑩ 아르바이트	⑪ 기타(적을 것:      )



### 여가생활 만족도

**정의**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의의**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측정방법** 자신의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 응답 중 '약간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만 13~19세  
**조사표 항목**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 동아리 참여율

**정의** 동아리나 기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의의** 사회단체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여 활동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청소년 단체,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 중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9~18세  
**조사표 항목**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구분	없다	있다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0	1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인터넷 카페 등)	0	1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 단체 포함)	0	1

### 사회문제 관심정도

**정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의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한 지표로 사회적 이슈나 쟁점에 대한 관심정도로 파악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13~18세  
**조사표 항목**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관심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정의**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정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회인지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측정방법** 우리나라, 학교, 가정, 사이버 공간 각각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로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조사표 항목**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가정	①	②	③	④
학교	①	②	③	④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 06 안전·위험행동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의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아동의 안전에 중요한 요인임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측정방법**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수 ÷ 0~17세 추계인구) × 100,0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만 0~17세

### 방과 후 방치 정도

**정의**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아동의 비율  
**의의**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방과 후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었던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인 비율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0~12세  
**조사표 항목** 보호자 응답항목

지난 일주일 동안 △△(이)는 하루에 30분 이상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

- 정의**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또래로부터의 폭력 피해는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측정방법** 최근 1년동안 다른 학생, 친구, 선후배로부터 유형별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 유형별 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위협, 왕따(따돌림), 강제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괴롭힘
- 작성주기** 2년
-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 조사표 항목**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① 있다	② 없다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① 있다	② 없다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있다	② 없다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5) 왕따(따돌림)를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6)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어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7)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① 있다	② 없다

### 교통사고 사망률

- 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교통사고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자 수
- 의의**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이며, 아동·청소년기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임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측정방법** (0~20세 교통사고 사망자 수 ÷ 0~20세 추계인구) × 100,000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만 0~20세

### 강력범죄 피해율

- 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강력범죄(홍악,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
- 의의** 범죄 피해의 증가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 있음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측정방법** (0~20세 강력범죄 피해자 수 ÷ 0~20세 주민등록인구) × 100,000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만 0~20세

### 흡연율

- 정의** 흡연하는 청소년의 비율
- 의의** 청소년의 대표적인 비행행동 중 하나인 흡연율을 건강약화 뿐 아니라 다른 비행행동이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측정방법** 최근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흡연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 조사표 항목**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꺄련)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

### 음주율

- 정의** 음주하는 청소년의 비율
- 의의** 음주율은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음주로 인해 다른 비행행동이나 범죄피해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측정방법**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중·고등학생
- 조사표 항목**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

### 소년범죄 발생률

- 정의** 해당 연령 인구 대비 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 의의** 범죄행동은 자신 뿐 아니라 주변에게도 범죄피해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측정방법** (14~18세 인구의 범죄발생 건수 ÷ 14~18세 주민등록인구) × 100,000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만 14~18세

### 가출경험률

- 정의**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혼자서 독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가출은 범죄피해나 범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측정방법**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 조사표 항목**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 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 및 잠재적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점차 이용연령이 낮아지면서 중독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측정방법**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세 개 하위항목의 10개 문항에 대한 4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 중 세 가지 유형별 특성 중 한 개 이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율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만 3~19세
- 조사표 항목**

3~9세 보호자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자녀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나의 자녀는 정해진 이용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한다	①	②	③	④
나의 자녀는 이용중인 스마트폰을 뺏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①	②	③	④
나의 자녀는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놓고 싶어한다	①	②	③	④
나의 자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나의 자녀는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나의 자녀는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나의 자녀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10세 이상 응답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07 관계

###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정의** 영유아가 평일과 주말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의의**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
-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 측정방법** 아동의 주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이 평일과 주말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보낸 평균 시간
- 작성주기** 3년
- 해당연령** 만 0~5세
- 조사표 항목** 아동의 보호자(주양육자) 응답항목

이 아이가 어제,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이었습니까?  
※ 부모 부재일 경우 해당 칸에 88 기입함.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함.

어머니	최근 평일(하루)	( )	시간
	지난 주말(하루)	( )	시간
아버지	최근 평일(하루)	( )	시간
	지난 주말(하루)	( )	시간

### 가족과의 식사 빈도

- 정의**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저녁식사를 통해 가족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행동을 공유함으로써 가족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작성주기** 3년
- 해당연령** 만 9~18세
- 조사표 항목**

최근 1년(2019. 6. 1~2020. 5. 31)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6) 저녁 식사	①	②	③	④	⑤

###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 정의** 가족 내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 의의**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존중된다고 느낄수록 가족간 관계도 원만할 수 있음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측정방법** 가정 내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 집 안의 중요한 문제, 진학할 상급학교, 장래희망, 공부 시간이나 방법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조사표 항목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가족관계 만족도

**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의의** 가족관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인식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현재의 가정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9~18세  
**조사표 항목**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1)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

**정의** 또래 친구와 어울려 노는 아동의 비율  
**의의**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해당 아동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3~8세  
**조사표 항목** 보호자 응답항목

△△(이)는 친구와 얼마나 자주 논니까?  
 ① 거의 놀지 않는다    ② 한달에 1-2회    ③ 일주일에 1-2회 논다    ④ 거의 매일 논다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정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청소년의 비율  
**의의** 고민이나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주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측정방법** '낙심하거나 우울하여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만 13~18세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 ( )명    ② 없다  
 ※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가사 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 복지 단체의 활동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구관계 만족도

**정의** 아동·청소년이 친구와의 관계에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의의**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친구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9~18세  
**조사표 항목**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4)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 신뢰도

**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의의** 사회적 신뢰도는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파악하는 지표임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작성주기** 3년  
**해당연령** 만 13~18세  
**조사표 항목**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해당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주시오.										
전혀 믿을 수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믿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 08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 정의**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 의의** 주관적 웰빙 측정 요소 중 하나로 인지적 측면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측정방법**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 작성주기** 3년
- 해당연령** 만 9~18세
- 조사표 항목**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 긍정정서

- 정의**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행복)를 느끼는 정도
- 의의** 주관적 웰빙 측정 요소 중 하나로 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지표임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측정방법**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 작성주기** 3년
- 해당연령** 만 9~18세
- 조사표 항목**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 부정정서

- 정의**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정서(근심걱정, 우울)를 느끼는 정도
- 의의** 주관적 웰빙 측정 요소 중 하나로 정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지표임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측정방법** 어제 얼마나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는지, 우울하였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 작성주기** 3년
- 해당연령** 만 9~18세
- 조사표 항목**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많이 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 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 정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삶에 대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의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측정방법**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의 평균점수
- 작성주기** 3년
- 해당연령** 만 9~18세
- 조사표 항목**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가치 없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 학생의 경우, 일이란 학교생활, 숙제, 공부 등을 말합니다.

##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참여 연구진과 도움 주신 분들

###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1~3차 연구)

#### 연구책임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진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김병수 서울대학교 연구원

김은아 통계개발원 주무관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희길 동남지방통계청 과장

정지은 통계개발원 주무관

최창용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경훈 서울대학교 연구원

#### 보고서 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표검토위원

김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Robert Rudolf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집필진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김은아,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김진,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 통계센터 7층

042.366.7315

디자인 동그란북

eumeumeum20@gmail.com

ISBN 978-89-58015-25-3 93310

CHILDREN AND YOUTH WELL-BEING IN KOREA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7층 T 042.366.7315 sri.kostat.go.kr

